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학년도

박사학위청구논문

팀 켈러(Timothy Keller)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목회적 적용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설교학 전공

박 두 진

2018학년도

박사학위청구논문

팀 켈러(Timothy Keller)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목회적 적용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설교학전공

박 두 진

팀 켈러(Timothy Keller)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목회적 적용

A Study on Pastoral Application of Timothy Keller's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 that moves Hearts’

지도교수 김 대 혁

이 논문을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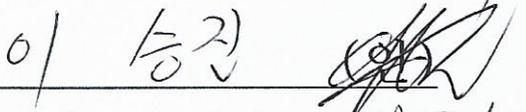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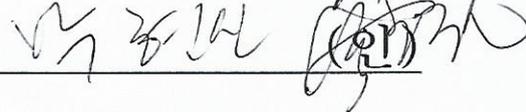
2019년 1월 9일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설교학 전공

박 두 진

박두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정 우홍 (인) 
심사위원 강 대형 (인) 
심사위원 이우제 (인) 
심사위원 이 승진 (인) 
심사위원 박종진 (인) 

2018년 12월 일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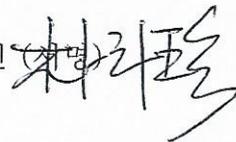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논문제출자	대학원명	목회신학전문대학	학위과정		박사(Th.D)	
	전 공	설교학	학번	2016750101	성명	박 두 진
논문제목	국 문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목회적 적용				
	영 문	A Study on Pastoral Application of Timothy Keller's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 that moves Hearts'				

본인은 총신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타인에게 대필의뢰, 타 논문의 표절, 데이터 및 결과제시의 왜곡과 변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본교에서 정한 연구윤리 관련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만약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약자: 박 두 진 (성명)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장 귀하

감사의 글

설교학이라는 영광스러운 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체력과 지력, 영력, 물력을 공급해주시고, 마음을 붙드셔서 마치게 해주신 예수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순간의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찬양과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본 연구를 마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정서적으로 섬세하게 지도해주신 김대혁 교수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석사과정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학문의 길로 인도 해주신 정우홍, 박현신, 김덕현, 이강률, 백동조, 도원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주신 삼일교회와 송태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개척에 참여하여 무한한 사랑과 기도로 헌신해주고 있는 예수다솜교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기쁨을 나누며 공부했던 장영환, 박승혁, 정중근, 오신영, 박경득, 정은석, 황대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TC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과 교회 개척에 깊은 영감을 주신 팀 켈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와 복음중심의 사역에 키(key)가 되어주신 스티븐 엄 목사님과 노진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TCK 이인호 목사님, 정갑신 목사님 이하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리더며 트레이너로 수고해주시는 오종향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 송유정 사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바쁜 와중에도 아빠를 믿고 따라준 진우, 진주, 진영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인생의 큰 나무로 늘 후원해주시는 아버지 박병채 집사님, 어머니 정미옥 권사님, 장인 송기덕 집사님, 장모 김금자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의의와 목적	5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4. 마음과 감정의 차이, 신앙의 정서, 경험적 설교의 용어 이해	8
II. 경험적 설교를 지향했던 역사적 접근:중요인물들	10
2.1. 경험적 설교의 의미	10
2.2. 어거스틴	13
2.2.1. 디 독트리나 크리스트나(De doctrina christiana)	14
2.3. 조나단 에드워드	18
2.3.1. 신앙과 감정	21
2.3.2. 에드워드의 상상력	25
2.3.3.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26
2.4. 조지 헛필드	28
2.4.1. 헛필드의 설교관	29
2.5. 개혁주의가 잃어버린 가치“마음”(Heart)	30
III. 팀 켈러의 경험적 설교	32
3.1. 팀 켈러의 설교	33
3.1.1. 마음을 움직이는 팀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의 세가지 측면	34
3.1.1.1. 그리스도 중심의 강해	35
3.1.1.2. 그리스도 중심의 적용	37
3.1.1.3. 그리스도 중심의 경배	40
3.2. 팀 켈러의 설교의 경험적 해석과 이해의 강조점	43
3.2.1. 경험적 설교와 켈러의 설교의 해석학적 타당성	45
3.2.1.1. 경험적 설교의 성경적 해석	46
3.2.1.2. 경험적 설교의 역사적 해석	47

3.2.1.3. 경험적 설교의 신학적 해석	51
3.2.1.3.1. 감정 사용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	51
3.2.2. 경험적 설교의 해석학적 충실성	53
3.2.3. 경험적 설교의 설교학적 효과	56
IV.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목회적 변용: 팀 켈러의 설교비평	58
4.1. 팀 켈러의 경험적 설교의 한계	58
4.2.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실례: 한계증명	63
4.2.1. 팀 켈러의 설교분석 1	63
4.2.1.1. <설교1: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 분석>	64
4.2.1.2. 팀 켈러의 설교의 한계와 일반적 분석	67
4.2.2. 팀 켈러의 설교분석 2	69
4.2.2.1. <설교2: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노한 판사가 아닐까?” 분석>	70
4.2.2.2. 팀 켈러의 설교의 한계와 일반적 분석	72
4.2.3. 팀 켈러의 설교분석 3	74
4.2.3.1. <설교3: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 분석>	75
4.2.3.2. 팀 켈러의 설교의 한계와 일반적 분석	77
4.2.4. 팀 켈러의 설교 분석의 결과	80
4.3.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설교학적 변용	81
4.3.1. 성령의 조명 안에 있는 설교자	82
4.3.2. 본문의 감정을 반영하는 설교	86
4.3.3.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설교	88
4.3.4.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는 경건한 삶	90
4.3.5. 드라마로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93
4.3.6.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화 설교	95
4.3.7.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적용설교	98
4.3.8. 마음의 우상을 다루는 설교	100
V.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목회적 제안	103
5.1.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설교학적 제안	105

5.1.1. 경험적 설교를 위한 목회자의 영성	105
5.1.2. 작용자에 대한 분명한 믿음	110
5.1.3.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필요성	113
5.1.4. 설교자의 자기 적용의 필요성	116
5.1.5. 사상(idea)보다 신념체가 바뀐 내용의 전달	119
5.2.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설교 방법론적 적용	123
5.2.1. 내러티브를 통해 인격적 채널로서 작용하는 설교	123
5.2.2. (설교문을 작성할 때) 설교구조가 선명한 설교	126
5.2.3. 거대맥락을 고려한 드라마 단위의 설교	132
5.2.4. 상상력과 이미지를 통한 마음(heart)을 움직이는 설교	137
5.2.5.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는 설교	142
5.3.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청중이해의 적용	145
5.3.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145
5.3.2. 강단과 청중의 공감과 동일시	148
5.3.3. 회심과 실천적 변화를 요청하는 설교	153
5.3.4. 비그리스도인을 고려한 설교	156
5.3.5. 변증적 삶의 운동성을 일으키는 설교	159
5.4.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 작성을 위한 구체적 적용	163
V. 결론 및 제언	168
참고문헌	171
부록	189
팀 켈러 설교 1	189
ABSTRACT	197

표 목차

표 1: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 설교분석	67
표 2: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노한 판사가 아닐까?’ 설교분석	72
표 3: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 설교분석	77
표 4: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과정 5단계	164

그림 목차

그림 1: 팀 켈러의 삼중적 관점	35
그림 2: 도시 문화의 상황화	98

국문초록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목회적 적용

바야흐로 포스트모던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위기상황을 지나오고 있다. 부흥하고 성장했던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과는 달리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가 배양되고 있고, 진리에 대해 회의적이며, 교회 또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서 점점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목회적인 상황에서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

그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마음을 움직여서, 삶의 변화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설교의 현장은 오늘날 가장 세속주의가 심화된 뉴욕이기 때문이다. 켈러는 1989년 뉴욕에서 개척한 이래로 꾸준한 교회 성장을 토대로, CTC 네트워크(city to city)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CTC 네트워크는 도시에서 도시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목표인데, 벌써 13,000명 이상의 도시개척자를 양성했고, 50개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421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필자도 CTC 네트워크에서 훈련을 받고, 개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음운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켈러의 설교이다. 그의 설교에는 포스트모더니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반향을 일으킬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스트에게 중요한 문제는 감정주의인데, 켈러는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설교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의 설교가 개혁주의 전통의 라인에 서있는가에 있다. 또한 그의 설교가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 부합하는가에 있다.

본 논고는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해석학적인 접근을 방법으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개혁주의 전통에 서있는 설교인가를 먼저 연구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어거스틴과 맥이 닿아있다. 어거스틴은 사랑의 해석학자이다.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지향하였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의 지성은 마음을 통과할 때 방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신앙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설교를 지향하였다. 조지 헛필드도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뿌리로 하여, 이 은혜를 마음에 경험하게하기를 원하였다. 이 맥락은 로이드 존스에게도 연결된다. 그는 지성과 마음이 통합되는 설교

를 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개혁주의 전통이며, 오늘날 설교에서 잃어버린 가치가 “마음”이다.

그렇다면 켈러의 설교는 개혁주의 전통에 서있는가? 켈러의 설교는 존 프레임의 삼중적 관점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강해, 감각, 적용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그의 설교는 마음에 와닿는 주해와 적용이 강하다. 이러한 설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면,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의 라인에 서있다. 경험적 설교는 마음에 와닿게 하는 설교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지향성은 많은 영혼을 돌이키는 데에 크게 쓰임받았다.

이상과 같이 마음을 움직이는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는 경험적이다. 그렇다면 그의 설교는 우리의 목회적 정황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켈러의 경험적 설교가 가진 한계점을 보고, 그 한계점을 통해 그의 설교가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켈러의 설교는 우리의 목회적 정황과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따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서 깨달은 점을 토대로, 우리의 설교적 정황에 변용할 수 있도록 도출하였다.

켈러의 설교의 변용으로서는 설교자들이 잇기 쉬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함을 말하였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감정사용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감정을 도드라지게 설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본문 안에 이미 감정이 숨어있음을 통해 감정사용의 당위성을 논증하였다. 또한 켈러가 가진 강점,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영역을 목회현장에서 변용하고,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며, 본문이 가진 수행성에 입각한 드라마로서의 변용, 그리고 청중의 상황을 고려한 설교,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일하심, 마음의 본질 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향한 설교가 목회현장에 변용되어야 함을 전했다.

그리고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경험적 설교를 우리의 목회 현장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설교자적 적용, 설교방법론적 적용, 청중이해의 적용의 3방향으로 고민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설교자로서의 적용으로 제안한 것은 아래와 같다. 잇기 쉬운 영성에 무게 중심추를 다시 두고, 본문 자체에 하나님이 작용하고 계신 부분을 발견하여 실행해야 하며, 구속사적 설교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고, 설교자가 설교자로서 존재하기 전에 본문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하며, 사상보다 신념체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포스트 모던시대에 설교자의 설교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문은 내러티브 안에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찾아서 설교할 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덮어놓고 설교를 만들기보다, 표적 감정선(textual pathos)을 고려하여, 설교 구조를 계획하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 유익함을 전하였다. 그리고 본문이 가진 수행적인 요소

(speech act theory)를 찾아서 설교의 드라마적 구현을 제안하였고, ‘말씀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설교자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더하여 상상력과 이미지를 통하여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는 설교를 제시하였다.

세째, 설교자들의 청중이해를 제안하였다. 현장 목회자들이 설교 원고와 설교 전달에만 치심 함으로써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청중의 마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제안하였으며, 청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비동일시 설교는 결코 청중과 분리된 느낌을 주는 점도 개진하였다. 더불어 마음을 울리는 설교는 회심과 변화를 향한 강한 요청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설교 현장에 비그리스도인이 고려된 설교를 통해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서 마음을 열어야 하며, 교회에 대한 회의감과 절대적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변증적 삶의 운동을 일으켜 사회에 복음 영향력을 키우도록 설교할 것을 제시하였다.

네째, 이러한 설교의 일반론적인 제안을 설교 과정의 5단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경험적 설교는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전통성이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타당하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설교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우리의 목회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변용과 목회적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국교회는 사계절로 말하면 이미 겨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사방이 얼어붙은 느낌이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 수록 여명은 밝아온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세상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신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말씀에 있다.

특별히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강점인 설교학적, 해석학적 방법론은 우리 현장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좋은 적용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광야같은 세상 속에서 마음이 말라가는 이 시대 청중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복음중심, 그리스도중심, 하나님 중심의 설교가 가장 필요하고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논고를 통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돌파구가 되고,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기를 소망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 논고를 마무리한다.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팀 켈러(Timothy J. Keller)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세속도시를 대표하는 뉴욕 맨하탄에서 1989년 리디머 교회(Redeemer Church)를 개척하여, 5가정과 개인으로 참여한 10명에서 시작하여 약 6천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시켰다.¹⁾ 놀라운 점은 그의 설교가 리디머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3만명 이상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고, 교회의 회중이 대부분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문화 아래에서, 회의주의(Skepticism)에 빠진 젊은 영혼들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그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고, 교회개척(CITY TO CITY)사역을 통해 미국에 100여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유럽,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13,000명 이상의 도시개척자를 양성했고, 50개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421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복음운동”을 진행하고 있다.²⁾ CITY TO CITY사역은 팀 켈러가 개척한 리디머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 도시, 운동’으로서, 6개 대륙 중 각 나라의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 중심적 교회개척과 복음갱신을 통해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리디머 교회는 켈러가 은퇴하면서 4개로 나누어져 각각 담임목사를 세워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앞으로 켈러는 10년 후 36개의 작은 리디머 교회가 분립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역동적(Dynamic)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단 하나로 압축하여 보면, 그의 복음중심적 메시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³⁾ 그렇다면 그의 설교의 강점은 무엇인가?

켈러의 설교의 강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점이다. 마음을 움직여서 삶에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이것은 어거스틴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철학과 연결된다.

어거스틴은 설교의 목적이 “to teach(docere), to delight(delectare), to move(flecte

1) CTCK코리아, “복음도시운동세미나: 복음생태계”(경기, GCM세미나, 2018), 52.

2) 정갑신, 『대답하는 공동체』(서울: 아르카, 2018), 229-233.

3)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34권(2015): 12.

re)”라고 했다.⁴⁾ 가르침은 필요를, 기쁨은 달콤함을, 설득은 승리를 위한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는 “신앙의 정서”를 중시하며, 설교에서 영적 감각을 깨워서 이끌어간다. 그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속한 것이었고, 실제적일 뿐 아니라 체험적인 것이며, 머릿에서 어떤 일을 생각한다고 해도 마음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아무 용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흐름은 존 칼빈(John Calvin)⁵⁾에게 이어졌다. 칼빈은 성령의 통치는 2가지로 임하는데, 먼저 ‘마음속에서 임하고, 그리고 외적인 도덕규범’에 임한다고 하였다. 블레어 레이놀즈(Blair Reynolds)는 칼빈은 설교에서 일상 언어를 통해 항상 자기의 내적 감정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회중들의 감정에 깊이 호소하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칼빈의 설교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라고 하였다.⁶⁾ 이 흐름은 영국 청교도들(the English Puritans)로 이어졌다. 서창원은 언약도(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에게 경건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건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⁷⁾ 찰스 코헨(Charles Lloyd Cohen)은 청교도에게 ‘마음’은 종교적인 감정의 자리였을 뿐 아니라, 영적인 실체였다고 말했다.⁸⁾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⁹⁾로 연결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로이드 존스는 부흥은 실제적인 것이며 초대 교회의 경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또한 행함으로 연결되는 지식은 사랑이고, 그 지식이 성품을 보여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붙잡아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¹⁰⁾

이처럼 역사의 중심에 섰던 인물과 흐름 속에 있던 설교의 원리는 ‘말씀중심적인 경험 설교’(Word-centered experiential preaching)의 원리였고, 이들은 이 확신 위에 서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흐름의 시작은 초대교회였다는 점이다. 신약 교회가 탄생될 때, 초

4) Augustine, *De Doctorina Christiana*, John H. Gerstner, *The Rational Bibl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I (Virginia: Berea Publications), 480-482;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ed. trans. D. W. Robertson, Jr (New York: THE LIBERAL ARTS PRESS, 1958), I V.XII.27. 이하 D. W. Robertson의 *ON CHRISTIAN DOCTRINE(De Doctorina Christiana)*를 *DC*로 기록한다.

5) 최윤배,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ly Spirit and Christ as the Bearer of the Holy Spirit in John Calvin,” 『한국개혁신학』 21권(2017): 282.

6) 이문균, “칼빈의 설교신학,” 『대학과 선교』 제 18집(2010): 28.

7) 서창원, “17세기 언약도들의 생활윤리,” 『신학지남』 제 83권 3집(2004): 159-160.

8) Martyn Lloyd-Jones, *Puritans Their Origins/Success*(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서문강 역, 『청교도 신앙-그 기원과 계승자들』(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51

9) Atherstone,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1); 김희정 역, 『로이드 존스를 말한다』(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143.

10) Lloyd-Jones, 『청교도 신앙-그 기원과 계승자들』, 367-69

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 37절의 결과를 가져왔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려”는 영어성경(NIV)에서 ‘cut to the heart’로 번역한다. 누가의 의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음에 메스를 가해 잘라내는 감정적 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설교의 중심에 감정적인 경험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특이한 감정주의(emotionalism)식 설교가 아니고, 개혁주의 전통 위에 서있던 바뀌지 않던 설교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주의 설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터치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전통 위에 서있지만, 말씀 중심적 경험부분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놓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씀과 경험을 통합하였고, 로이드 존스도 말씀과 경험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반대하면서, 설교의 본질은 말씀과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¹¹⁾ 과연 우리는 얼마나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본문¹²⁾을 해석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각하고 있는지, 설교의 적용을 통해 우리는 청중에게 어떤 신앙적 정서를 일깨우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케빈 벤후저(Kevin J. Vanhoozer)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세상이 텍스트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텍스트가 ‘세상을 삼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서 강조한 원리를 떠나 잘못된 방향에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 내면의 중심이기도 하고, 지·정·의의 중심이기도한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신앙적 정서를 움직이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꼼꼼이 따져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은 신앙의 정서 안으로 들어갈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설교자와 청중이 본문 앞에서 변화하기 때문이다.¹³⁾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을 해석할 때, 마음이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신앙 감정(Affection)은 단순한 감정(feeling)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망하는 방향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성적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마음에 대해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설교학자 로버트 레이드(Robert S. Reid)는 전통적인 강해설교를 청중에 민감한 적용과는 동떨어진 교훈중심적 스타일(precept-driven style)로 규정하며, 이런 스타

11) 박완철,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와 그의 ‘마음의 감각’ 신학,” 『신학정론』 제24권 제1호(2006):

211;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218.

12) Kevin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Grand Rapids: Zondervan, 2009);

김재영 역,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 가?』(서울: IVP, 2003), 497.

13)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503-05.

일의 설교를 스킴라주의적이고 적용이 없는 메마른 설교로 구분한다.¹⁴⁾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빼놓고 설교했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본다.

위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여, Keller의 설교의 강점은 본문해석에 있어, 포스트모던세대들을 향한 문화적 적용, 사회적 적용도 잘하지만 개인의 신념체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탁월함이 있다. 이것이 하트(heart)의 개념이다. 신념체계를 완전히 깨트리려는 직접적 접근보다 마음의 방향성을 이끌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정보를 주는 데에만 그치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시도한다고 할 때, 감정만을 다루려고 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설교는 청중이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진중함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예화와 적용을 통해 좋은 스토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좀 더 나아가 본문에 나온 감정을 살리기 위해 해석의 과정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설교에서 구체화하여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교자는 설교 자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치고, 사실상 마음의 변화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개혁주의 설교자로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이성을 중시하는 명제적 설교에 익숙해지면서, 본문이 가진 마음(heart)의 영역을 주해과정에서부터 심도 있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접목한 신설교학에 영향을 받다보니 개혁주의 설교라고 하지만, 감흥을 살리기 위한 설교 내용과 전달(delivery)만 중시하게 된 것이다.

결국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을 놓친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해석학적인 과정과 어떻게 성경을 설교자 자신과 청중에게 실행할 것인가?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변화의 고민없이 본문에서 뽑아낸 아이디어 중심 설교(idea-centered preaching)와 감흥을 중심으로 한 설교(feel-centered preaching)에 안착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사이엔가 설교자들은 마음을 울리는 개혁주의 설교를 벗어나게 되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설교의 요청 앞에서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작용자의 의도와 작용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농후하다. 결국 설교가 만들어지고, 선포는 되고 있지만 종교적 감흥만 줄 뿐, 영적 감각을 깨우지 못하는 공허한 설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본문에서 이슈를 뽑아내기까지는 했지만,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청중의 마음까지 연결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기는 하지만, 청중에게 ‘설교를 위한 방

14) 박현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분석을 통한 적용 패러다임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25권 (2013): 284-85.

향성'만을 가지게 되고,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 청중에게 어떤 경험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설교라고 할 때, 마음의 변화를 주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2. 연구의 의의와 목적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는 탁월하게 청중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적 해석과 설교가 우리 목회현장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가?에 있다. 켈러의 설교를 많은 한국 설교자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의 설교의 틀을 가지고 적용할 때, 서양인들의 정서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우리의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목회적 상황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의 프레임을 알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 맞는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 대한 목회적 적용의 새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 문제에 앞서, 그의 설교의 방법론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가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속사적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임을 통해" 청중의 "마음" 속을 깊이 울려주기 때문이다.

바른 해석이 없으면 바른 적용은 일어날 수 없다. 켈러의 설교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다면 우리의 목회 현장에 바른 목회적 적용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원주의에 빠진 '회의주의자'(Skeptic)들이 리더며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표면적 이유로만 우리들이 반향을 조금 보이고, 놀라운 소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뉴욕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이며,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점에 있어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설교자들이 파악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우리나라 안에 퍼지고 있는 반 기독교적 정서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 가나안 성도화에 직면한 이 시대의 교회 앞에서, 켈러가 의미 있는 설교학적 인물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그의 해석학적 설교방법론에 대한 접근없이 '청중이 몰리는 설교'라고 생각되어, 그의 저작물을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설교의 경직과 또 다른 목회적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인기'를 위한 강단, '수'를 위한 성공주의 목회로의 변질, 그리고 본문과 청중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는 '설교를 위한 설교'로의 또 다른 하락과 함정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한국교회의 신앙이 위기 상황에 와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2017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 의식조사”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다’로 답한 비율이 23.2%였다. 2012년까지 이러한 비율은 11%였지만, 불과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특별히 교회를 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40대, 미혼, 인천/경기, 경상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분포가 높았다.¹⁵⁾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은 ‘설교자’의 위기와도 같다. 예전에는 청중이 교회로 몰려오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청중의 탈교회화’ 현상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유럽처럼 교회가 텅텅비는 결과가 올 가능성이 현저해 보인다.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에게 ‘설교’만큼 관심이 많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미 신설교학(the New Homiletic)의 영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설교자들이 강단에 많이 나타났다. 그만큼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전달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켈러의 설교가 왜 영향력이 생겼는지 해석학적인 탐구과정을 통해 바른 설교원리를 찾는다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설교학적인 토대를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상황 안에서, 세속사회의 뉴요커를 강단 앞으로 이끈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얼마나 ‘적실성’있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여, 현장목회자들의 목회적인 측면에서 작은 도움이 되어 보고자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고는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말씀 중심적인 경험적 설교’¹⁶⁾를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함으로써, 포스트모던과 세속주의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설교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풍성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04년에 교회성장연구소가 한국의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1,088명)을 분석한 결과, 성도들이 교회를 이동하거나 다른 교회에 뿌리내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이사’였고, 그 다음으로 ‘목회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15)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998-2018)』(서울: 도서출판URD, 2018), 79-81.

16) ‘말씀 중심적인 경험적 설교’는 이하 ‘경험적 설교’로 쓴다.

불신자중 55.1%가 교회를 출석한 경험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담임목사의 인격과 자질 문제였다. 재정 사용의 불투명성과 부패, 말과 행동의 불일치, 성적 스캔들, 권위주의와 권력의 오남용, 교회의 세습과 사유화 등'이었다. 점점 목회자는 청중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물론 어떤 분들은 회중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옮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설교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맡은 자로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부담감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청중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3중적 필요가 있는 설교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위해 본 논고는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목회적 적용을 아래와 같이 연구진행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본 논고는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가 개혁주의 전통에 서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구현했던 개혁주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켈러의 설교가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라고 한다면, 이 방식이 과연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지 설교학적, 해석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켈러의 문화적 토양과 우리의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의 설교의 한계를 설교학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한계점을 설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목회적 상황 속에 변용할 수 있을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의 경험적 설교라는 방식이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를 위해 목회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위해서 설교 연구 대상은 켈러를 중심에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마음을 움직였던 기타 설교자들은 켈러와 같은 맥락의 설교자였음을 증명하고, 그의 설교가 경험적 설교의 선상에 있음을 증명하는 방향지시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켈러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뉴욕이라는 세계 최고의 세속도시 속에서 복음 영향력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냈을 뿐 아니라, 평신도, 목회자, 나아가 신학자들에게까지 도전을 주며, 세계 주요도시로 복음운동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그의 설교의 강점인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방법은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교회와 설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리고 본 논고는 설교의 방법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해석학(hermeneutics)적 접근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힌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

17) 김성건, "목사 양산의 현실·문제·대안," 「기독교사상」 제693호(2016): 17-18.

요성,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경험적 설교를 사용했던 중요인물들을 고찰하여, 켈러가 개혁주의 설교자의 전통에 서있었는지를 연구하고 증명하려고 한다. 개혁주의 설교에 있어서 마음(heart)은 잃어버린 전통이며, 중요가치였음을 밝힐 것이다.

제3장에서는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가 개혁주의 전통인물들과 같은 선상에 서있음을 알기 위해서, 그의 설교가 어떤 해석학(hermeneutics)적 방법론을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세 가지 측면을 연구하고, 그의 경험적 설교가 과연 개혁주의 신학노선에 서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성경적 해석, 신학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통해 그의 설교가 경험적 설교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켈러의 설교의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켈러의 설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심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의 목회적 상황과 우리의 목회적 정황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설교에 있어서 설교학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토대로 하여, 그의 설교 본문을 직접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설교의 한계가 우리의 목회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용(變用)되어야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상황에 있는 우리의 위기의 목회적 상황을 향하여, 경험적 해석과 경험적 설교를 통해 켈러가 구현하고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강점을 현장 목회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자로서 적용할지에 대해 작은 방향을 제시하며 논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논문을 요약하고,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필요성을 전하며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1.4. 마음과 감정의 차이, 신앙의 정서, 경험적 설교의 용어 이해

본 논고에서 말하는 마음(heart)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feel)과는 다른 의미로 기술되고 있음을 밝힌다. 인간의 감정은 희노애락의 표출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음(heart)은 인간의 감정(feeling)을 포함한, 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 내면의 중심 자리이며,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곳으로 이해한다. 즉 사람은 단순히 의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내면의 중심 즉 마음이 변해야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마음(heart)은 감정(feel)

은 물론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feel)과 정신을 포함한 “영혼의 경향성”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마음(heart)의 역할을 “감정”(affection)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의 의향이 행동과 연결될 때는 의지, 정신과 연결될 때는 마음, 마음이 분명한 움직임을 가질 때는 감정(affec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마음”(heart)이라고 표현 할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감정”(affection)과 유사한 개념임을 밝힌다.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신앙 감정”은 “영혼의 경향성”이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감정(affection)과 감정(feeling)을 구분하며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 감정(feeling)은 인간의 슬픔, 기쁨, 분노, 애증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지칭하며, “마음”(heart)과 “감정”(affection)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감정(feeling)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의 정서, 변화의 경향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논고는 경험적 설교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경험적 설교란, 단순히 청중의 경험을 일으키는 것을 의도한 설교를 지칭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여 청중에게 경험적으로 확인되도록 하는 설교를 지칭한다. 즉 성경의 인도에 따라 진리가 마음에 경험됨으로 인해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설교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험적 설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통하여 진리가 경험되고, 성령을 통해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험적 설교는 신자의 전반적인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설교이어야 함으로 반드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경험적인 설교가 소위 청중의 경험을 강조하는 설교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험적 설교’라 해서, 말씀에 “경험”이 강조되는 식의 체험주의적 설교와는 다르다. 경험적 설교는 말씀과 경험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하여, 단순히 말씀의 내용이 있고, 청중의 경험이 있는 설교가 아니다. 오히려 말씀과 경험은 각자 대칭적인 구조가 아니라, 말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청중의 삶에 진리로 확인되고 경험되도록 함으로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를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험적 설교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험증적’인 설교라 할 수 있다.

II. 경험적 설교에 대한 역사적 접근:

중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2.1. 경험적 설교의 의미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가 경험적 설교이며, 개혁주의 바탕에 서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경험적 설교가 무엇이고, 어떤 인물이 경험적 설교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 설교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자면, “말씀의 위대한 진리를 경험해서 아는 것”이다. 미국 그린빌신학교 총장인 조셉 파이파(Joseph A. Pipa) 박사는 존 오웬이 ‘설교자들은 설교의 권능을 자신의 영혼에서 먼저 경험해야 한다’라고 했던 설교의 경험성을 강조했다.¹⁸⁾ 이러한 경험이 없을 때, 설교자는 목회에 생기는 결핍되고 냉기는 넘쳐나게 될 것이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폴 헬름(Paul Helm)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상황이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다루는 설교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진전된 경험신학을 요청한다. 설교는 기독교인에게 그들의 실제 경험측면에서 지침과 교훈을 주어야만 한다. 비현실적인 것을 다룬다든지 마치 성도들을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자 혹은 다른 상황에 살고 있는 자처럼 취급하는 설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설교여야 하며 성도들의 실제적 경험들을 소망과 두려움들에 온전히 공감하는 설교여야 하는 것이다.¹⁹⁾

개혁주의 설교는 지성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성 자체만을 추구할 때, 감정은 메마르게 된다. 반대로 감정에 너무 충실할 때, 지성이 역할을 하지 못해 충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설교는 지성과 감정이 같이 가야한다. 나아가 마음의 변화로 가야 한다. 설교자는 이러한 개혁주의 바탕에서 말씀없는 경험을 조심하고, 말씀중심적인 경험사건이 청중에게 일어나도록 목표를 두어야 한다.²⁰⁾ 서창원은 ‘경험적 설교란, 그리스도인

18)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설교: 조셉 파이파(Joseph A. Pipa) 박사가 말하는 설교”, 한국 개혁주의설교연구원 제29기 정기세미나, 2015년 2월 28일, <<http://theosnlogos.tistory.com/455> [theos & logos]>, accessed 17 September. 2018.

19) Paul Helm, “Christian Experience,” Banner of Truth, No139 April(1975), 6; 서창원, “개혁교회의 경험적 설교의 능력,” 15에서 재인용.

20)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27.

의 삶에서 기독교 교리의 참 진리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역동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여기서 “경험적(experimental)”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시험하다(trial)에서 온 말이다(experimentum). 이 말은 experio에서 비롯되었다. 뜻은 ‘시험을 보다’, ‘입증하다’, ‘시도하다’. 즉 경험에 의해 발견하고 아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experientia는 경험에 의한 지식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²¹⁾

경험적 설교에서 중요한 점은 역동성이다. 특별히 설교자가 먼저 진리를 알고 맛보고, 무슨 뜻인지를 체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 설교자는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기를 원했다. 자신에게 적용하며 애통해하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바탕으로 설교자의 심장부터 뜨겁게 하기를 원했다. 그런 일이 없다면 강단에 오르는 일을 꺼려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청교도 설교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자신의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데우고 있는지를 묻게 만든다.²²⁾

그러므로 경험적 설교란, 설교자가 본문을 통해 진리를 경험하고, 청중의 삶 속에서 개인적 경험을 하도록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교는 청중으로 하여금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는 설교인 것이다. 특별히 경험적 설교는 경험적이지 않은 신앙은 위험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경험적 설교의 특징은 분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점을 정의하고, 누군가에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에는 그 문이 닫히고 있는 문임을 분별하며 증거한다.

그러므로 경험하는 신앙이 없다면 청중에게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험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경험자체보다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야 함을 말한다.²³⁾ 따라서 경험적 설교는 그리스도가 경험적으로 실체화되어야 한다.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본다. 어떤 이들은 거룩한 경험에 대한 청교도의 열정을 인간중심적인 사건으로 보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임스 패커는 ‘그 경험은 자신의 경험을 촉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 속으로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²⁴⁾ 경험은 경험만을 강조하는 데에 목표가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목표가 있는 설교이다.

21) 서창원, “개혁교회의 경험적 설교의 능력,” 14.

22)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설교: 죠셉 파이파(Joseph A. Pipa) 박사가 말하는 설교”, <<http://theosnlogos.tistory.com/455> [theos & logos]>, accessed 17 September. 2018.

23) Joel R. Beeke, *Puritan Reformed Spirituality*(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4); 김귀탁 역,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718-19.

24)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28-33.

조엘 비키는 경험적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내면적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거 신학자들은 머리와 가슴이 가지는 지식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지만,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²⁵⁾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heart)으로 아는 지식은 성령을 통해 일어난 결과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청중의 인격적인 경험을 일으키신다. 이런 지식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 생각해보자. 마음으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며,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사람과 머리로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과 누가 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때 경험적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이다. 구약 예레미야서는 만물보다 심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고, 잠언도 '무릇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하였다. 마음은 성경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좌소인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감람산의 기도도 마음을 움직이며, 바울도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하였고,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고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며,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하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다. 이 말씀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되는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경험적 설교는 이런 마음의 감각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중보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적용하시고, 살리시고, 도우시고, 내재하시는 사역을 예배 안에서 경험하게 한다. 아래는 존 오웬의 고백이다.

어느 날 내가 들판을 걷고 있을 때, 이 문장이 내 영혼에 다가와 떨어졌다. '너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 ...나는 또한 나의 의를 보다 낮게 만든 것은 내 마음의 틀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의 의를 보다 악화시킨 것이 내 마음의 틀이 나빠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나를 속박하던 사슬은 내 다리에서 실제로 떨어져 나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달콤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오, 나는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나의 눈 앞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셨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분에게로 나의 시선이 옮겨갔기 때문에, 아울러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생한 것을 보기 때문에, 부자가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는 동전 몇 푼과 그들의 금이 가방 속에 있을 때, 나는 내 집의 가방 속에 있는 황금을 보았다!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였다!²⁶⁾

25) Beeke,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 723-24.

26) Joel R. Beeke And Randall J. Pederson, *Meet the Puritans: With a Guide to Modern Repr*

그러나 이런 고백을 했던 존 오웬도 존 번연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번연의 능력과 바꾸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마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그들의 설교의 목표였던 것이다. 이처럼 경험적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²⁷⁾ 그러므로 개혁주의 설교는 ‘경험적(experimental)’ 설교를 통해 삶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설교자와 청중이 말씀을 통해 은혜의 경험이 통합되는 것이 개혁주의 전통임을 알 수 있다. 경험적 설교에 대한 정의를 마무리하면서, 머레이 카필(Murray A. Capill)의 정의를 통해 경험적 설교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경험적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청중을 이끌고자 해야 하며, 청중들에게 경건의 열망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열정을 소유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²⁸⁾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에 서서 마음을 움직였던 경험적 설교자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어거스틴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으로 알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은 성경해석학적 설교(exegetical homily)를 추구했다. 그는 성경을 해석 되어야 할 ‘사인’(sign)들의 책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당시 역사비평적 방법이 없었기에 신약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사용했고, 일관되게 성경을 예표론적으로,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당시 문법학자들이 고전 본문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또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번역본은 상당 분량이 명확하게 문자적 의미로 이해되지 않았고 오역이 많았다. 당시 어거스틴이 읽은 성서는 제롬이 히브리에서 직접 라틴어로 번역한 별게이트판 성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전라틴어 성서였다.²⁹⁾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직무가 잘 풀리지 않는 본문의 사인(sign)들을 제대로 해독하는 것이라고

ints(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7); 이상웅·이한상 역, 『청교도를 만나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394-96.

27) Beeke,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 725-34.

28)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설교’ 정기세미나”, 개혁주의설교연구원, 2015년 2월 28일 기사, <[http://theosnlogos.tistory.com/455\[theos & logos\]](http://theosnlogos.tistory.com/455[theos & logos])>, accessed 10 september. 2018.

29) 선한용, “어거스틴의 성서해석,” 『신학과 세계』 제 18호 (1989): 191.

생각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가 볼 때 초기 작품들은 번역오류로 터무니없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이 말한 ‘사인’은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거스틴이 말하는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사물’(things)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모든 가르침들이 ‘사물’ 또는 ‘사인’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³⁰⁾ ‘사물’은 ‘사물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인’은 ‘사물을 의미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모든 가르침은 사물에 대한 것’인데, ‘사물에 대한 인식’은 ‘사용할 것’과 ‘즐거워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즐거워 할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사물은 다 하나님을 즐기는 목적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막았고, 다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는 복음적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어거스틴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며,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사인’은 사물에 대한 인상 외에 인간의 감각에 전달하는 어떤 것,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지닌 어떤 것으로 정의한다.³¹⁾

이렇게 볼 때 그의 성경해석학은 마음의 감각과 상당히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해석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는 것이다. 청중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³²⁾ 이렇게 포괄적인 기준을 채택한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때문이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에 설교의 방향도 그러한 것이었다.

2.2.1. 디 독트리나 크리스티나(De doctrina christiana)

어거스틴의 설교론의 총체 『De doctrina christiana』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³³⁾ 처음 3권은 성경의 이해를 돕고, 마지막 4권은 이해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4권은 ‘이해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를 제시한다.’³⁴⁾ 그는 키케로가 인정한 연설가의 세 가지 의무를 다룬다. “가르치기(입증하기), 기쁘게

30) Earnest L. Fortin, “Augustine and the Hermeneutics of Love: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 in *Augustine Today*, Richard John Neuhaus, ed., (Grand Rapids: Eerdmans, 1993), 55.

31) O.C. Edwards, *A History of Preaching*(Nashville::Abingdon Press, 2004); 김석환·윤익세 역, 『교부들의 설교』(서울: 은혜출판사, 2010), 133.

32) Edwards, 『교부들의 설교』, 139.

33) Augustine, *DDC*, IV, X V.32.

34) 문영식, “아우구스티누스와 기독교 수사학,” 『신학과 실천』 제44권(2015): 123-24.

하기, 감동시키기”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회심’이었다. 그래서 청중을 감동시키는 이 웅대한 양식은 가장 결정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는 설교한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하며, 설교할 수 있기 위해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도는 그의 내적 영적 감정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설교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청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언어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 설교 시간이 다가올 때 설교자는 자신의 입술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갈구하는 영혼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샘에서 마신 것을 청중들에게 내어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³⁵⁾

또한 어거스틴은 ‘성서는 읽을 수 있어도 성서로 존중하지 않는 이들, 특별히 암송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의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반하여, 성경은 잘 암송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읽는 눈을 가지고, 성경의 의도를 명확히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³⁶⁾ 어거스틴은 설교자로서 마음을 중시한 경험적인 설교자였음을 알 수 있다. 칼빈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은 선지자의 말’과 같기 때문에 설교자의 경험적인 위치가 중요했다.³⁷⁾

『De doctrina christiana』는 어거스틴 자신과 바울,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문장 등을 예문으로 활용하여 만든 수사학적 교본의 성격이 있다. 그러나 그는 수사학을 변형하여 설교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다. 그는 서두에서 ‘자신이 수사학을 이미 세상에서 가르친 바가 있기 때문에, 수사학 원리를 제시하지 않을까 기우가 있지만, 자신에게 이런 기대를 갖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³⁸⁾ 그는 5가지의 틀로 이 책을 구성했다. 여기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이는³⁹⁾ 설교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사학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설교는 수사학적 원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청중과의 공감대를 확장할 수 있는 언어의 활용과 통찰을 위해서 설교자는 설득과 지혜가 조화

35) 박희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배우는 설교 교훈 33가지(2)”, 『그말씀』, 2월호(서울: 두란노출판사, 2015), 248.

36) Augustine, 성엄 역, 『그리스도교 교양』(서울: 분도출판사, 2015), 308-309.

37) Ronald S. Wallace, Ronald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Eugene: Wipf & Stock Pub, 1997); 정장복 역,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136-7; Ralph Cunnington, *PREACHING WITH SPIRITUAL POWER*(Glasgow: Bell and Bain, 2015), 27.

38) Augustine, *DDC*, X I X.

39) T.H.L. Parker, *Calvin's Preaching*(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김남준 역, 『칼빈과 설교』(서울: 솔로몬, 1993), 64. 칼빈에게 성경의 지식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이다.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⁴⁰⁾ 둘째, 바울과 아모스의 문장을 수사학 본보기로 사용하지만, 그 언어적인 능력과 식견은 수사학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놀라고 있는 부분은 성경저자들이 자신들만의 기교를 통해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잘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⁴¹⁾ 셋째로, 설교자는 의도를 분명히 표현해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진리(어휘와 발음까지)를 청중 앞으로 가져오지 말 것을 권면한다. 넷째, 효과적인 설교 전달을 위해 문체에 있어서 수사학적 원칙(가르치려는 열정, 목적에 이르는 설득, 진리가 회중에게 경험되는 재료)을 강조한다. 다섯째, 설교자는 언어전달을 위해 명료함과 설득력을 가져야 하고, 진정한 성공은 언어보다는 설교자와 메시지의 근접성, 설교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근접하여 있느냐(하나님의 도구)가 설교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기도해야함을 권면하고 있다.⁴²⁾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은 설교자가 청중에게 나아갈 때, 이해가 된 원리는 경험적이었다. 곧 하나님을 탄복해 하고, 본문 속에서 발견된 진리로 열정을 가지며, 하나님과 근접하여, 사랑하게 된 원리를 발견하였을 때, 설교해야하며, 그 내용을 회중에게 “경험”되도록 전하는 데에 그의 설교 해석학(Hermeneutics)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거스틴은 이 내용이 수사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서로 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De doctrina christiana』에 나오는 그의 문체론이다. 그의 문체론은 “진실체, 완만체, 장엄체”로 구성되어,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로 구성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진술체를 사용한다. 그는 ‘회중을 설득하기 원한다면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가르침을 통해 당연히 할 일에 대해 깨닫는다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화려한 표현으로 회중을 움직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⁴³⁾ 그에게 진술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 토대와 같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가르침이 설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청중을 감동시킬 때는 완만체를 사용한다. 완만체는 문학적인 표현에 가깝고, 수사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청중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설교의 지루함을 설교자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청중이 듣지

40) 박건택, 『칼빈의 설교학』(서울: 성서연구사, 1990), 79. 어거스틴의 해석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성’과 ‘마음’이, 각각 ‘조명’되고 ‘감동’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해석학과 같은 기류이다.

41) Augustine, *DDC*, IV, VI,10.

42) 박희춘,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훈”, <<https://groups.google.com/forum/#!topic/augustineandpreaching/IYkui-Vwk3s>>, accessed 29 September. 2018.

43) Augustine, *DDC*, IV, XII,27,28.

44) Augustine, *DDC*, IV, XXVI,56.

않으려고 하는 설교는 빨리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았고 자기 경험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었다. 다만 완만체가 요구하는 수사문학적 표현 때문에 진리의 깊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더하고 있다. “이것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지 말고, 청중을 매혹시키고, 자기의 만족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문체는 설득하려는 그 대상을 선으로 인도하는데 사용되도록 힘써야 한다.”⁴⁵⁾

어거스틴은 청중을 설득할 때는 장엄체를 사용했다. 장엄체는 청중을 설득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설교의 목표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마음을 움직여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엄체는 호소력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했는데,⁴⁶⁾ 어거스틴에게 설교의 목적은 청중이 행동하여, 진리를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었다. 그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당위를 이제는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⁷⁾ 결국 어거스틴은 ‘가르치고’, ‘매료한 다음에는’, ‘마음으로 설복되어 실천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⁴⁸⁾ 이처럼 그에게 설교라는 것은 설득하고, 승리하게 하는 “경험적”인 것이었다.⁴⁹⁾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문체론을 다룬 『De doctrina christiana』는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장복은 어거스틴은 가르침에는 명료함을, 매료시킴에는 유창함과 아름다운 수식을(삶과 진실도 있어야 한다),⁵⁰⁾ 실천에는 감정을 수반해야 함을 권면하였다고 말한다.⁵¹⁾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그의 의도가 의도한 방향성이 ‘마음의 회심’과 관련되어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마음을 인격체의 중심으로 보았고, 회심의 마음만이 인격체를 드러내고,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마음이 세상 욕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영원한 삶의

45) Augustine, *DDC*, IV, XXV, 55.

46) 정장복, “최고의 설교신학자 어거스틴의 설교이론에 대한 고찰”, <<http://wpa.or.kr/EZ/board/view.asp?seq=23&page=7&BoardModule=Board&tbcode=data01>>, accessed 31 September. 2018.

47) Augustine, *DDC*, IV, XII, 27.

48) 문영식, “아우구스티누스와 기독교 수사학,” 126.

49) Augustine, *DDC*, IV, X I I I, 29.

50) 정장복, “최초의 설교신학자 Augustine의 설교이론에 관한 고찰(2),” 「장신논단」 제16집(2000): 476-77.

51) Augustine, *DDC*, IV, XXVI, 40.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원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었다.⁵²⁾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설교학은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설교였다. 그 근거는 『De doctrina christiana』에 있다. 그는 ‘사랑’의 경험을 강조했다.⁵³⁾ 그는 ‘성경을 이해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지 않는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⁵⁴⁾이라고 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는 설교자는 비록 원저자가 의도한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도 해도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해석자였다면, 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을 기만한 해석자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성경해석학은 “사랑의 해석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⁵⁵⁾ 어거스틴은 사랑에 바탕을 둔 경험적 해석원리를⁵⁶⁾ 통해 말씀의 의도와 더불어 ‘마음’을 잘 읽어내고, 마음을 울리는 설교의 전달을 추구했던 것이다.

2.3.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1703-1758)는 인간 이성의 능력에 회의론을 갖는 개혁주의에 서있는 칼빈주의자였다.⁵⁷⁾ 그는 언어가 인간 존재의 양상이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어떤 개념적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참된 이해로 인해 생겨난 것일 때 참 사랑이며 온전한 지식이 생기는 경험적인 것이다.⁵⁸⁾ 곧 언어가 인간 실존이고, 경험적으로 인식되는 감각적 지식(sensible knowledge)으로 본 것이다.⁵⁹⁾ 이런 경향성은 당시 에드워드가 산업혁명과 초기 자본주의로 인해 개인주의 흐름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는 정통주의자들의 교리를

52) 유지항, “마음의 신학: 성 어거스틴 『고백록』의 분석적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제13호(2003): 281-82.

53) Augustine, *DDC*, I, XXXIX, 40.

54) Earnest L. Fortin, “Augustine and the Hermeneutics of Love: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 48.

55) 한국해석학회, 『고전 해석학의 역사』(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19-23. 1부 고대해석학의 역사에 신국원이 쓴 “두 문화의 연결과 변혁을 위한 사랑의 해석학: De Doctrina Christiana를 중심으로 살핀 아우구스티누스 연구”를 참고하라.

56) Augustine, *DDC*, I, XXVI, 27

57) 정부흥,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9), 19-26.

58) Lee Sang Hyun, *The Philosoph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이용중 역,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209-10.

59)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드의 철학적 신학』(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18-9; Conrad Cherry,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Indianapolis: Indian University Press, 1990), 14.

중시하는 풍토와, 부흥주의자들의 인격적이고 영적 체험을 중시하자는 주장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는 양편의 주장을 듣고, 균형잡힌 부흥 신학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설교의 목적이 감정적 반응만 불러일으키는 것도, 정보만 전달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한 것이었다.⁶⁰⁾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1949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저서를 통해 에드워드가 전통적 칼빈주의보다 존 뉴턴(John Newton)의 과학과 존 로크(John Locke)의 경험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반대로 콘라드 체리(Conrad Cherry)는 1966년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을 재평가하며 충실한 칼빈주의자임을 주장하며, 에드워드는 로크의 경험철학을 빌렸을 뿐이고, 개신교 사교 흐름에 맞게 수정하였다고 말했다. 로크의 경험론은 인간의 이성의 인지 능력을 강조했는데 에드워드처럼 마음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우선하였다. 이러한 로크의 주장은 사람이 가진 언어가 가진 감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이성으로 냉엄하게 컨트롤되지 않는 종교의 모습을 가치절하였다. 이처럼 에드워드와 로크와의 차이는 언어에 있어 마음의 영역이나 이성으로 제한하느냐의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콘라드 체리는 에드워드의 견해가 로크의 견해를 빌렸을 뿐 칼빈주의 전통을 따랐다고 본 것이다. 로크는 언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언어현상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에드워드는 언어가 사람을 드러내는 실존적인 것으로 보았고, 실존적인 사건으로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언어라는 것은 인간 존재를 분명하게 만드는 실존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험적인 사건을 의미했다. 에드워드는 이것을 가리켜 ‘감각적 지식’(sensible knowledge)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지식은 이성의 작용에서 시작되기보다 마음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적인 이해를 했다. 왜냐하면 종교는 감정을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에드워드는 사물에 대한 수용과 깨달음을 지성적인 결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감정적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물론 객관적 사실과 논리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음을 말했지만 더불어서 인간의 준비된 마음의 영역과 온전한 영적인 모습이 믿음에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어떤 의지가 생기거나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영적 감각에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감정적 차원을 배제하고 보여지는 객관적 현상에만 의존하는 이성적 해석만으로는 영적인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⁶¹⁾ 이것이 그의 마음의 인식론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그는 앞서간 청교도 선구자들과 같이 마음이나 의지의 경향성을 강

60) 이진락,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적 감정 연구』, 20-35; 이진락,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적 정서'에 대한 연구”(박사학위,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96-117.

61) 박완철,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와 그의 ‘마음의 감각’신학,” 212-20.

조하였던 것이다. 그의 설교의 목적은 진리를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생생하고 실감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의 설교의 목표는 청중들로 하여금 ‘마음에서 발생하는 감각(sense of heart)’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진리의 영적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를 염두에 둔다면, 설교자의 의무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지성적 설교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열광주의가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감각하도록 불을 붙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²⁾

에드워드는 결코 지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마음이 작동하기 전에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⁶³⁾ 지식이 없이 사랑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만이 아닌 것이다. 더불어 성령을 통해 인간의 이성이 작용하여 마음에 이르도록 한다고 보았다.⁶⁴⁾ 그러므로 에드워드는 영적 실재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경험적인 차원을 강조했고, 이를 자신의 전체 신학체계에서 핵심적으로 부각시켰다. 어트(T. Erdt)는 에드워드의 마음의 감각을 칼빈의 달콤함(suavitas)의 감각과 같게 보았다. 칼빈은 달콤함을 믿음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다.⁶⁵⁾ 마음으로 감각하여 맛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의 달콤함은 에드워드가 주장한 ‘마음의 감각’, 즉 거둬나지 못한 자연적 인간으로서의 가질 수 없는 새로운 감각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감’이나 ‘육감’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마음’(heart)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감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바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경험⁶⁶⁾하게 하며, 확신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은 디모데 전서 1장17절에 대한 표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이런 영적인 감각의 경험을 통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매우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넓게 퍼졌다.” 에드워드는 이 구절을 통해 영적 감각의 세계를 경험한 것이다. 이처럼 성령을 통한 마음의 감각의 경험

62) 팀 켈러, “READING 11.1.그리스도 중심 강해설교의 기본원리 강의안”(안산, 리더머 세미나 인큐베이터 과정, 2016), 3.(미간행)

63) Jonathan Edward, “The Importance and Advantage of Thorough Knowledge of Divine Truth,” in W.H.Kimnach, K.P.Minkema, and D.A. Sweeney(eds.),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A Reader*(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30-1.

64) Michael A.G. Haykin, *Jonathan Edwards*(North Darington: Evangelical Press, 2005), 8-9.

65) T. Erdt, “The Calvinist Psychology of the Heart and the ‘Sense’ of Jonathan Edwards,” *Early American Literature*, Vol.13, No.2(Fall,1978): 171. <https://www.jstor.org/stable/25070880?read-now=1&seq=7#metadata_info_tab_contents>, accessed 15 September. 2018.

66) Ridley Melbourne, “The Gospel of Justification and Edwards’s Social Vision”, <https://www.ridley.edu.au/wp-content/uploads/2014/04/The_Gospel_of_Justification_and_Edwardss_Social_Vision_Bezzant.pdf>, accessed 10 October. 2018.

은 에드워드에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었다. 이런 경험의 결과 에드워드에게 설교는 새로운 것이 되었고 성경은 새로운 책이 되었다.⁶⁷⁾

이상으로 이러한 이해는 그가 당시 청교도들의 사변적인 이해와 영적 이해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었고, 감각에 대해서는 성령을 통해 마음의 경험성을 향하고 있는 칼빈주의적인 흐름을 잇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칼빈은 회중이 말씀을 음성으로만 들을 때는 작은 영향을 수납하지만, 성령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면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고, 이렇게 될 때 청중은 “거룩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⁶⁸⁾ 칼빈의 은유적 묘사를 통한 마음의 경험은 에드워드에게 그대로 발견된다. 그는 경험적 지식의 내적 감각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보통 은유적으로 묘사했다. 예를 들어 ‘열기를 느끼는’, ‘꿀을 맛보는’, ‘달콤함의 향기’ 등과 같은 감각적인 표현들이다.⁶⁹⁾

2.3.1. 신앙과 감정

에드워드는 마음의 신앙감정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신앙감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따라가든지 거리를 두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영혼의 경향성을 말한다. 그는 이런 감정을 우리 “영혼의 성향과 의지보다 힘있고 감각적인 활동들”이라고 정의했다.⁷⁰⁾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인간의 바른 기능인 지성과 정서 속에서, 또 그 밑에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전 인격이 사물들의 본성에 바로 규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참된 은총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행동의 경향성과 관계가 같다.’⁷¹⁾

에드워드에 따르면, 마음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인식한다. 그 대상을 심미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대상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목상할 때, 그 대상은 그 사람

67) Jonathan Edwards, “A Faithful Narrative of the Suprising Work of God,” in Goen(ed.), *The Great Awakening*(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181, <<http://jamiebrummitt.com/jonathan-edwards-a-faithful-narrative-of-the-surprising-work-of-god-1737/>>, <<http://www.ccel.org/e/edwards/works1.viii.html>>, accessed 11 October. 2018.

68)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50-51.

69) N. Ferring, *Johnathan Edwards's Moral Thought and Its British Context*(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1981), 124-26; 박완철,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와 그의 ‘마음의 감각’ 신학,” 217에서 각주 재인용.

70) Jonathan Edwards, *The Religious Affections*(Carlisle: Banner of Truth, 1986), 72, 95-6, 206, 398. 1976년도 발간된 Banner of Truth의 *The Religious Affections* 은 편역상 ‘1976’을 붙인다.

71)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 72, 191.

에게 다가오며 감각하게 된다.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해 마음(heart)을 드렸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관찰하는 사물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을 매번 경험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감정적 유익을 누렸다. 그러므로 의지는 그 대상을 향한 행동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의지는 왜 그 대상이 좋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만한 이유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마음에 자리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생각, 행동, 그리고 감정은 모두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갖는 특징이 감정과 동행하기 때문에 마음의 요소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인상은 감정과 늘 함께 하기 때문이다. 물건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정으로 확실히 표현되는 것이다. 잠언 4장23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 생명의 힘이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는 감정에 있어서, 신앙감정이 가장 열정적이고 민감한 마음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진정한 신앙감정은 사랑, 기쁨, 열정, 겸손 같은 성령의 열매인데, 그는 이런 신앙감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보았고,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보았다.⁷²⁾

참된 덕이나 거룩은 본질적으로 머리보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은, 참된 덕이나 거룩은 주로 거룩한 감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속한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참된 신앙과 거룩은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영혼 속에서 높은 차원의 일들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⁷³⁾

이 글에서 보듯이, 에드워드는 지성과 감정의 역할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인식과 신앙감정 사이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보다,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받는 신앙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감정주의와 지성주의의 한쪽만을 원하지 않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두렵고 힘든 삶

72) J.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in C.C.Goen(ed.),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4: The Great Awakening(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3

88: 조나단 에드워즈, 백금산 역, 『신적이며 영적인 빛』(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18-9.

73) Lloyd-Jones, 『청교도 신앙-그 기원과 계승자들』, 168.

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에드워드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 이 당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이 깨달았다 면, 당신 안에서 희망과 자신감의 신앙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⁷⁴⁾

그러므로 마음은 어떤 기분에 취해있거나, 강압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며, 자아도취적이 며, 어떤 느낌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인 것이다. 이것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성이 감정과 어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감정만을 부추기는 선동꾼이 아니라 힘 있는 지성과 논증으로 설교했고, 어려운 교리들을 풀어내되 감정적 호소는 항상 치밀한 논증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지식과 열망, 논리와 따스함, 지성과 강함이 결합되어 “경험적 믿음(experiential faith)”을 보여주었다.⁷⁵⁾ 그러므로 이성과 감정은 배척되는 것이 아니고 밀접하며 통합적인 것이다.⁷⁶⁾ 이해라는 문을 온전히 통과할 때, 어떤 것도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는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 다.⁷⁷⁾ 예를 들어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부요와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세속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감정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때, 이것은 쟁론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방 향을 가져야 한다. 명목상의 성도가 되어 예수님을 사용하며, 사용자가 되어, 자신의 마음만 위로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진 아름다움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미래의 형벌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형벌이 실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⁷⁸⁾ 에드워즈의 입장에서 이는 주요한 영적 문제이고, 이것 을 다루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크게 자극을 받았고, 자신들의 죄와 현재 처한 위험에 대한 압도적인 확신으로 바닥에 엎드리게 되었다. 비탄으로 인한 탄식소리와 흐느 껴 우는 소리가 가득해지자 급기야는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도록 그래서 설교가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⁷⁹⁾

그는 성도를 향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마음에 구원이 자리잡도록 설교하는 설교자였

74) 팀 켈러, “READING 12.1 폐부에 와닿게 복음을 설교하기 강의안, ‘설교시 그리스도를 회중의 가슴에 적용하기’(스티븐 엄)”(안산, 리더머 세미나 인큐베이터 과정, 2016), 8-13.(미간행)

75) R.G.Turnbull, *Jonathan Edwards the Preacher*(Grand Rapids: Baker Books, 1958), 83.89.

76) Jonathan Edwards, *The Religious Affections*, 1976, 237.

77)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219.

78) 스티븐 엄, “설교시 그리스도를 회중의 가슴에 적용하기”(안산, 리더머 세미나, 2016).

79) S. E. Dwight(ed), *The Life of President Edwards vol.1*(New York: G & C.&H. Carvill., 1830), 605;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217에서 재인용.

던 것이다. 단순히 마음에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던 에드워드에게 설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감각을 생기 있게 만들었고, 마음 깊이 영향을 주어 감각과 행동을 일깨우는 설교자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현대 청중들은 생각보다 영적 감각에 있어 무딘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너무 둔감해서,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리어 감정의 남용이나 오용부터 생각할 만큼, 경험적인 부분을 놓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이전에 내가 감각했던 어떤 것보다 다른 새로운 감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 경험적 설교의 맥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진리를 감각하여 영적인 실재가 되는 일은 성령께서 위대한 감각을 주실 때 일어나는 효과이며, 이 은혜를 맛보는 일은 필수적인 경험이었다.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유능하게 만드신 이유에는 두 단면의 선한 지식이 있다. 첫째, 그것은 단지 사색으로서의 이해 또는 머리로서의 이해이다. 둘째는, 마음이 지식의 존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sense of heart)이다. 전자는 영혼이 배제되어 구분된 이성으로 단지 혼란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견해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은혜의 아름다움의 감각과 사랑의 감각을 가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⁸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꿀이 달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콤함의 감각을 가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드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그의 설교는 지식전달이 아니라, 신앙감정을 다루는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설교를 통해 진리를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움직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목표가 분명했던 설교자였다. 그는 분석한 후에 병이 있음을 알고, 진통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독제를 주어 자유롭게 만들기 원했던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방식임이 분명하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리를 “마음의 본향”에 머무르게 하고, 신앙정서를 깨워 하나님 뜻을 구현하며 살도록 쓰여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교회에 나가기조차 망설이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에드워드의 마음의 감각을 깨우는 설교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80) J. Edwards, Misc. 782, “Idea. Sense of the Heart. Spiritual Knowledge or Conviction. Faith,” in A. Chamberlain(ed.),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8: The “Miscellanies,” 501-832(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459.

이상과 같이 에드워드는 ‘마음의 요소’를 잘 이해하였고, 믿음을 실천하게 한 탁월한 설교자였다. 그는 설교를 통해 그 당시 청중의 마음에 호소하였고, 영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생명의 감각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⁸¹⁾

2.3.2. 에드워드의 상상력

에드워드는 상상력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마음의 힘으로서 외형적이거나 외적인 본성을 가진(외적 감각 대상이 되는 물체) 존재들에 대해 감각에 의해 지각되지 않을 때라도 개념이나 관념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말한다.⁸²⁾ 다시 말해서 상상력은 현재적인 시각을 넘어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세계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인 것이다. 사실 당시에는 데카르트의 영향력 아래에서 감정은 “마음의 동요”로 이해했고, “분명하고 명료한 관념”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에, 마음, 감정과 연결된 상상력은 인식과정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었다.⁸³⁾ 상상력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이것을 살려내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의 감각은 이성의 작동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상력은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 박영재는 청중의 마음을 여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교가 힘이 있고 설득적이라고 하였고,⁸⁴⁾ 크래독은(Fred Craddock)은 청중들은 지난 이야기를 새로운 형식으로 듣기 원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⁸⁵⁾ 정리해보면 상상력의 사용은 청중으로 하여금 본문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고 에드워드는 이것을 구현해 낸 것이다. 예수님은 청중의 상상력을 잘 자극하셨다. 씨와 밭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비유, 그물비유 등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상상력을 통해 열어주셨다. 상상력이 생동감을 주기 때문이다.

에드워드는 마음을 움직임에 있어서 상상력을 가장 탁월하게 사용한 설교자였다. 그의 연설은 생생한 색깔으로 가득해서 오감 모두를 자극했다. 그는 청자들이 그저 진리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도왔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처참한 지옥이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거미줄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지

81) J. Edwards, *The Religious Affections*, 1976, 240.

82) J. Edwards, *The Religious Affections*, 210-11;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 183에서 재인용.

83)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 170.

84) 박영재,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서울: 규장, 1998), 26.

85) Fred Craddock, *Preaching*(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이우제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서울: 대서, 2007), 141.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⁸⁶⁾ 이처럼 지옥과 거미줄에 관한 이야기는 설교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를 생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청취자(unmover)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움직이는 자(mover)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청중이 설교를 통해 얼마나 느끼는지를 가장 중시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단순한 예화나열을 피했던 것이다.

콘라드 체리는 에드워드가 가슴을 울리는 설교를 하려고 힘썼음을 강조했다.⁸⁷⁾ 에드워드는 마지막 설교에서 “여러분들을 설복하기 위해 나의 전부의 노력을 모두 쏟았습니다.”⁸⁸⁾라고 했다. 그는 설교에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까지 다 드러서 설교를 통해 청중의 마음에 은혜가 경험되도록 상상력을 부여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였던 것이다. 이 일은 로이드 존스에게도 같은 무게였다. 로이드 존스는 “진리를 전파할 때 상상력은 진정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진리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⁸⁹⁾

2.3.3.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의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드러난 아름다움을 어쩌다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근원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에드워드는 아름다움에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 것이다.⁹⁰⁾ 에드워드는 이것을 감각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제는 이것을 설교에서 논리적인 허점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의견을 가진 것과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가진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⁹¹⁾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86) 조나단 에드워즈, 안보현 역,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을 보라.

87) Conrad Cherry,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A Reappraisal*(Garden City: Doubleday, 1966), 53.

88) Jonathan Edward,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A Reader*, 232.

89) Tony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The Preaching of Dr. Martyn Lloyd-Jones*(Wheaton: Crossway Books, 1994); 황여열 역,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218-9.

90) Douglas Allen Sweeney and Owen Strachan, *On Beauty*(Chicago: Moody Publishers, 2010); 김찬양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24.

91) 팀 켈러, “READING 12.1 폐부에 와 닿게 복음을 설교하기 강의안”(안산, 리더머 세미나 인큐베이터 과정, 2016), 12.(미간행)

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묘사했다.

하나님이 지구 표면에 장식해 놓은 나무, 풀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이란 정말 사랑스럽다. 몸의 아름다운 구조, 특히 몸의 완벽한 조화도 경이롭다. 달과 별의 아름다움은 실로 놀랍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천사와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탁월함이란 극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이를 만드신 창조주의 지극히 밝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비교해보면 암흑이나 흉물에 지나지 않는다.⁹²⁾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이다. 사람은 이처럼 경험적인 지식없이 인식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에 관하여 설교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설교자는 ‘의지’로 바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에드워드는 더 깊은 심층을 생각한다. 사람들이 세속적이라면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성도가 가진 부요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들의 신앙감정은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⁹³⁾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물질에 대한 몰입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고,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려서, 예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할 일은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감각을 깨워주는 것이다. 물론 죄가 원인이 되어 모든 것을 깨트린 것이다. 그러나 청중이 변화되지 못하는 문제는 진리를 마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설교 때문이라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에드워드는 죄인의 마음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혼에 비취시기 전에는 사람의 영혼은 깊이 잠들어 죽어 있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만히 누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혼에 해같이 솟아오르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의지와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혼의 모든 기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한다. ...태양이 꽃들을 비출 때 꽃이 피어 향내를 풍기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도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⁹⁴⁾

에드워드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신앙감정을 흔드는 접근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물질주의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변증적인 소모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에드

92) Douglas Allen Sweeney and Owen Strachan,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37-8.

93) 스티븐 엄,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안산, 리더머 세미나 인큐베이터 과정, 2016).

94) Douglas Allen Sweeney and Owen Strachan,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91-2.

워드는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왕과 군주가 흑벌레와 같고, 모든 나라가 물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 위의 가벼운 먼지와 같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시다.” 그는 변증법적 소모전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⁹⁵⁾

에드워드는 이처럼 은유를 통해 영혼의 잠을 깨우고, 그리스도를 인간의 무게를 결정하는 분으로 마음속에 와닿게 한다. 그러므로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소유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공허한 겉모습이며 사람을 속이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스티븐 엄은 에드워드에게 설교는 진리의 통일성, 대칭성, 적절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에드워드는 이것을 위해 끊임없는 묵상을 정진하여,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에 대해 탁월한 논리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⁹⁶⁾ 이것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중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분명히 경험적이며, 오늘날 청중들에게도 효과적인 모습이 된다고 생각된다.

2.4. 조지 휘필드

경험적 설교를 한 대표적인 개혁주의자는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이다.⁹⁷⁾ 휘필드는 영국의 존 웨슬리와 미국의 대각성 운동(1739-1742)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당시에 더 뛰어난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에 속해 보인다. 그렇지만 영국 국교회의 부흥과 미국 교회 대각성 운동에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의 설교가 어떤 맥락을 가졌는가?를 볼 때, 그는 설교를 경험적 설교와 사변적 설교로 분류하였다. 사변적 설교란 십자가의 원수이며 사단의 왕국을 증진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경험적 설교는 마음의 변화를 바라보는 복음설교를 의미하고 있다.

그에게 설교란, 단지 귀에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마음을 터치하는 설교를 말한다. 휘필드는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설교해야 한다

95) Douglas Allen Sweeney and Owen Strachan,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102.

96) 팀 켈러, “Reading 6.2. 마음의 우상 강의안”(안산, 리더미 세미나, 2016), 16.(미간행)

97) 권 호,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설교학적 힘-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의 새 생명 설교와 그 설교학적 임팩에 관한 연구-,” 『생명과 말씀』제8권(2013): 23.

고 강조한다. 설교는 항상 목표를 가진다. 그에게 설교는 스펀전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향하여 총을 장전하는 것”이었다.⁹⁸⁾ 윗필드는 설교자가 아무리 값없는 은혜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청중에게 느껴지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면 경험적 설교가 아니었다. 이처럼 윗필드에게 경험적 설교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성, 감정, 의지로 통합된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경험적 설교를 참된 설교로 생각하였다.⁹⁹⁾

2.4.1. 윗필드의 설교관

윗필드는 설교란 첫째, 언제나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청중들을 그리스도께 회심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이 메시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적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전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연극적 기법을 설교에서 사용하였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것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수사학을 지혜롭게 사용한 것처럼, 신학적 요소와 종교 문화적 요소가 성경적 사역의 도구가 되었다고 본다.¹⁰⁰⁾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설교하기 원했다. 그의 중심주제는 항상,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였다. 당시 설교자들은 옛 성경의 교리를 소홀히 여겼지만, 그가 대표적으로 붙든 것은 “값없는 은혜”(Free Grace)였다.¹⁰¹⁾ 그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전파했다.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끝없는 사랑의 수혜자이며, 이 은혜를 경험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했다.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교의 위대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은혜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의 방식으로 청교도적 설교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이는 윌리엄 퍼킨스(W. Perkins, 1558-1602)의 『설교의 기술』(The Arte of prophesying, 1606)의 방식이다. 윗필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주시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경험적이었다. 그의 ‘경험적’(experimental) 설교 스타일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했다. 그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의지해야만 함을 강조

98)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149.

99) 박태현, “조오지 윗필드의 설교관: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성경과 신학』제72권(2014): 165, 170-71.

100) 박태현, “조오지 윗필드의 설교관: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159-60.

101) 유창형, “웨슬리와 윗필드의 칭의론 연구,” 『한국개혁신학』제32호(2011): 135-169를 참고하라.

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 누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말씀과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는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¹⁰²⁾

윗필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여 전달하는 경험적 설교자가 되기 원했던 것이다. 그는 설교자가 육신의 귀에 전하는 사역자와 영혼의 귀에 전하는 두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했고, 성령의 사역은 역동적 설교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가운데 증거되는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력한 현존, 혹은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⁰³⁾ 그러므로 그는 회심의 경험을 통해, 사람의 지식에 중점을 두는 사변적 설교가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통합된 마음을 겨냥한 ‘경험적 설교’(experimental preaching)를 했고, 성령의 조명 아래 지나친 열광주의를 조심하면서도, 그리스도만을 설교했으며, 회심의 저자로 오직 성령을 주장한 하나님의 도구였다.¹⁰⁴⁾

2.5. 개혁주의가 잃어버린 가치 “마음”(Heart)

이상으로 개혁주의 설교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마음(heart)은 개혁주의가 추구했던 방향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음”은 개혁주의 설교강단이 잃어버린 가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는 감정(affection)을 살리는 방향, 마음(heart)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경험적 요소의 부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개혁주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부각되는 문제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중들에게 가장 알맞은 설교라고 보여진다.

브라이언 채플은 설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브라이언 채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성경이 사용하는 힘은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화학적 반응, 즉 사랑이다”¹⁰⁵⁾라고 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2) L. Tyerman, *The Life of The Reverend George Whitefield*, II(Azle: Need of The Times Publishers, 1995). 459; 박태현, “조오지 윗필드의 설교관: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167에서 재 인용.

103) 박태현, “조오지 윗필드의 설교관: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164-68.

104) 이성호, “생명력있는 신자의 삶을 위한 윗필드의 투구,” 「한국개혁신학」 제32호(2011): 104-5.

105) Bryan Chapell, *Unlimited Grace: The Heart Chemistry That Frees from Sin and Fuels t*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였다. 사랑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능력인 것이다. 바울에게 사랑은 성령을 통한 영적 감각으로서의 열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마음을 변화시킬 때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변화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된다. 은혜가 사랑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로 다가오게 되고, 행동은 변하게 되어 있다. 온전한 사랑은 유혹을 떼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은혜가 죄의 유혹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브라이언 채플은 이렇게 말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의 결과를 증오하고 자기의 가족을 매우 사랑할 수 있지만 취했을 때는 술이 더 강하다. 일 중독자는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일이 주는 보상을 더 사랑하기에 자녀로부터 멀어진다. 간음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정을 저지를 때는 욕정을 배우자보다 더 사랑한다. 마찬가지로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정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과 거역의 순간에는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¹⁰⁶⁾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감정적인 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설교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도록 청중에 선포하고, 그것이 청중의 마음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질 때, 변화는 찾아오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진리에 대해 회의하고(Skeptic), 주관주의와 감정주의로 나아가는 세대에서는 더더욱 마음의 감각을 다루는 설교는 필요할 것이다.¹⁰⁷⁾ 브라이언 채플의 말처럼, 청중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될 때,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 때 청중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가장 깊은 즐거움이 되고, 최고의 목적이 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만들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설교는 듣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 결심이 일어나서 영혼을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이고, 인격을 바꾸는 것이다.¹⁰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것은 단순히 의무나

he Christian Life(Nottingham: Crossway, 2016); 황을호 역, 『은혜가 이끄는 삶』(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19.

106) Chapell, 『은혜가 이끄는 삶』, 23.

107) 박현신, “포스트 에브리팅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Timothy Keller 모델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29권(2014): 376.

108)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197.

결심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만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인격으로의 대변환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설교는 경험적 요소,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¹⁰⁹⁾ 특별히 청중을 너무 고려하여 설교 감흥 전달에만 힘을 기울여서 본문의 마음을 놓치고, 설교의 주제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지성주의가 심화되어, 청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개혁주의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자로서의 모습은 갖추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마음을 살피는 것은 설교자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동일한 패턴을 갖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search the heart)”라고 말씀하셨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의 마음을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마음을 살피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은 개혁주의 설교자의 원리요, 성경의 중요한 지침으로 볼 수 있다. 마음(heart)은 개혁주의가 잃어버렸던 가치였다.

III. 팀 켈러의 경험적 설교

마음(heart)을 움직이는 설교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살펴본 것 처럼 개혁주의 노선에 서있는 ‘경험적 설교’이며, 개혁주의 전통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켈러의 설교는 과연 개혁주의 전통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켈러는 이미 자신의 설교를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임을 말하고 있으며,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켈러는 “이 시대에도 복음부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개인적인 복음부흥은 죄와 은혜의 복음 교리를 지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¹¹⁰⁾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로 발생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닫고, 마음 속 깊이 있는 죄를 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써, 우리는 용서와 은혜를 더 선명하게, 더 새롭게, 더 크게 경험하고,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면서, 인간 안에 ‘공로’라는 틀이, 복음을 “마음” 깊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천천히 죽어가는 경험”을 개인과

109) Chapell, 『은혜가 이끄는 삶』, 19-22.

110) Timothy Keller,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2); 오종향 역, 『센터처치』(서울: 두란노, 2016), 114.

교회가 하고 있다고 하였다.¹¹¹⁾ 이처럼, 켈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경험을 중시한 설교 자임을 알 수 있고, 경험적 영역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신앙은 죽어가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주장하고 있다.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개혁주의적인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감정 사용에 대해 명확히 정리했던 에드워드의 말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켈러는 스스로 자신이 에드워드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는 인간의 영혼이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지성(understanding)이고, 다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의향, 그리고 행동과 연결되어서는 의지라고 불렀고, 이런 기능을 발휘하는 정신의 부분은 마음(heart)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향, 의지, 마음은 감정(affection)과 관련이 있다.

이진락은 에드워드의 감정(affection)을 정리하면서, “의향이 행동과 관련될 때는 의지이고, 정신과 관련될 때는 마음인데, 마음이 생생하고 뚜렷하게 움직일 때는 감정”이라고 하였다.¹¹²⁾ 그러므로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고, 의지는 감정만큼 생기는 영역이며, 짐승처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만 뿜어나오는 격정과 다른 차원이 다른 것이다. 에드워드가 말하는 감정은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졌다면, 상대방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게 만드는 힘인 것이다.¹¹³⁾ 그렇지만 이 감정은 결코 지성이 없는 본능적이 것이 아니다. 콘라드 체리는 ‘신앙적인 사람은 이성의 법칙에 열정을 종속시키지 않고, 이성이 열정적이고, 감정이 지성적인 사람이며, 에드워드는 신앙에 있어서 열과 빛, 즉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주장했다, 신앙행동에 있어서는 인식과 의지가 상호 침투(internal dynamic)한다고 주장’하였다.¹¹⁴⁾ 이처럼 인간의 지성과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 속에 있던 견해였고, 켈러는 이러한 역사적, 신학적 바탕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하는 켈러의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해석학적인 연구 결과이다.

3.1. 팀 켈러의 설교

111) Keller, 『센터처치』, 115-16.

112) 이진락,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적 감정 연구』(서울: CLC, 2010), 31.

113) 이진락,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적 감정 연구』, 32-8.

114) Conrad Cherry,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A Reappraisal*, 17-18.

켈러의 설교의 목적은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삶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켈러의 설교는 에드워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에드워드를 통해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 이르기를 원한다. 켈러는 에드워드의 견해가 설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켈러는 설교의 목적은 진리를 명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진리를 실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와도 맥이 닿는다. 로이드존스는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명히 구분했다. 진리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현대 설교자들이 회심하는 성도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가 흥미(entertainment)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참된 설교자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했다.¹¹⁵⁾ 켈러는 이러한 로이드존스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설교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목표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에드워드가 말했듯이, 감동을 주는 것이다. 설교를 듣는 그 순간의 감동인 동시에, 설교를 듣고 난 후에도 기억에 남는 것 이상의 감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1.1. 마음을 움직이는 팀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의 세가지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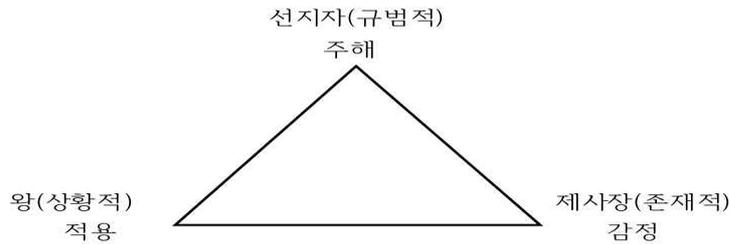
팀 켈러는 존 프레임(John Frame)의 관점에 맞추어 본문을 해석한다. 규범에 대한 것(성경적이며 분명한가?), 상황에 대한 것(실제적이며 통찰력이 있는가?), 실존적인 것(따뜻하고 힘이 있는가?)의 삼중적인 관점의 해석을 하고 있다.¹¹⁶⁾ 그는 자신의 설교와 복음강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삼중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3중직(선지자, 제사장, 왕)을 수행하셨기 때문이다.¹¹⁷⁾

115) John Peters, *Martyn Lloyd-Jones, Preacher*(Pymont: Paternoster, 1986); 서문강 역, 『마틴 로이드 존스 평전』(서울: 지평서원, 2007), 82, 119-20.

116) Keller, “Uninternational Preaching Models,” Audio Lecture from the Ockenga Institute and Paster’s Forum: Preaching to the Hear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South Hamilton, MA, 2006)을 참고하라.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33. 존 프레임의 『신지식의 교리』(*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Phi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7)에서 규범적(선지자), 실존적(왕), 상황적(제사장) 측면의 세 가지 신학적 틀을 확립하였다. 팀 켈러는 프레임의 삼중적 관점으로 설교의 틀을 형성하였다.

117) 임원택, “한국교회와 청교도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28권 (2013): 72.

<그림1. 팀 켈러의 삼중적 관점>¹¹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규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제사장으로서는 마음을 다루는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왕으로서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규범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그 의도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모든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마음에까지 전달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마음을 향한 그의 설교에 있어서, 켈러는 이런 부분을 주의한다. 설교가 텍스트의 해설에 치중하고, 다른 부분을 도외시할 때는 지성만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강의형 설교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였다. 그리고 적용을 중시하며, 감정을 도외시할 때는 청중의 의지만 건드리고, 청중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설교가 될 것이고, 또한 감정만 터치하려다가는 청중의 마음을 놓치고, 감정 그 자체만 건드리는 설교가 되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경계하였다.¹¹⁹⁾ 그의 설교의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다.

3.1.1.1. 그리스도 중심의 강해¹²⁰⁾

설교의 첫째 목적은 선지자적(Prophetic), 규범적인(Normative) 관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선지자처럼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켈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에 그리스도를 모든 구절에서 전하는 것이며, 모든 성경에 맞물린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

118) 스티븐 엄, “팀 켈러, 센터처치 목회자 컨퍼런스: 그리스도 중심 설교(1)강의안”(수원, 더 사랑의 교회, 2018), 6.

119) 스티븐 엄, “팀 켈러, 센터처치 목회자 컨퍼런스: 그리스도 중심 설교(1)강의안”, 7. 스티븐 엄은 고든 콘웰(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교수이다.

120) 팀 켈러, “READING 11.1 그리스도 중심 강해설교의 기본원리 강의안”(안산, 리더머 세미나 인큐베이터과정, 2016), 5-6.(미간행)

다.¹²¹⁾ 설교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본문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성경은 이것을 자증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예수님은 스스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하였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하였다. 고전 2장 1절-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가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은 “본문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성경적 행동만을 가르친다면, …사람들에게 상처만 입히는 것”¹²²⁾이라고 하였다. 설교자는 작은 성경의 원리적인 면들만 가르치는 것이 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교하되, 성경전체의 핵심으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본문의 특정한 메시지 속에 성경 계시의 최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본문을 제대로 강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강해에서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하여, ‘당대의 청중에게 인간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원저자의 의도를 보고, 인간저자의 의도를 살펴야한다. 특별히 인간저자가 원래 의도한 의미를 가능한 한 많이 발견해야 한다. 켈러는 모든 장르에서, 모든 테마에서, 모든 인물에서, 모든 이미지와 스토리 라인에서, 본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한다.¹²³⁾ 단지, 설교자가 좋아하는 ‘관심’, ‘주제’나 ‘방향’으로 넘어가지 말고, 본문을 넘어서는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적용을 과도하게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서 알아야 할 것은 ‘구속사적’ 맥락으로도 본문을 너무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핵심 메시지를 본문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속사적으로 본문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구속사의 틀에 얽매인 나머지 본문이 주는 핵심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 스티븐 엄은 강조한다.

설교에 있어서 핵심 메시지는 정확해야 한다. 속이 시원하도록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

121) Timothy Keller, *Preaching*(New York: Viking Books, 2015), 56-7.

122)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4); 김기제 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서울: 은성, 1999), 359-68.

123) Timothy Keller, *Preaching*, 71-90.

은 주된 내용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본문 안에는 설교자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조심히 선별하고, 핵심내용들은 서로 일관되도록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청중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방향을 알아듣도록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¹²⁴⁾

설교개요가 정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제시해야한다. 항상 ‘본문을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격, 사역, 가르침을 통해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의 목표는 성경의 거시맥락 속에서 본문을 바라보며 설명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본문을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틀 안에 넣어서 바라보고, 본문이 성경전체의 스토리 라인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켈러는 설교를 위하여 규범적인 관점(Normative aspect)¹²⁵⁾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강해(Christo-centric exposition)’라고 부른다.¹²⁶⁾ 켈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본문을 설교하기 때문에, 항상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피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에 빠지고 말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목적을 가져야 한다. 먼저 본문을 토대로 질문해야 한다. “저자의 의도” 찾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향해야 한다. 본문의 위치를 보면서, “왜 본문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 본문을 여기에 두셨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가르침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본문을 통해 청중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3.1.1.2. 그리스도 중심의 적용

설교의 두 번째 목적은 왕적(Kingly), 상황적인(Situational) 관점에 속한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닦아가도록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을 닦도록 본문을 통해 청중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 1

124) 팀 켈러, “READING 11.1 그리스도 중심 강해설교의 기본원리 강의안”, 6-7.

125) Timothy J. Keller, “Preaching the Gospel in a Post-Modern World”(Unpublished Classroom Lectures, Doctor of Ministry Progra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Orlando, Jan, 2002), 16.

126)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16.

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으며, 골로새서 1장 28-29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하였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켈러는 청중의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과 능력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접근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한다.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와 종교는 다른 것이다.¹²⁷⁾ 종교는 신을 경배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선행과 나의 만족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종교이다. 켈러는 설교는 이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가 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설교한다. 이런 변화된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본문의 의도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대부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적용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밝히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구속사적 설교는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 때 설교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복음 앞에서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¹²⁸⁾이다.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은 변화를 강조한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예화, 이미지 등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여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 오늘날 강단이 무미건조해져가는 이유가 있다면, 명제적 설교와 신앙원리만 제시하는 패턴화된 설교에 지루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생동감이 없는 건조한 원리와 명제로 차있다면 그 설교는 너무 딱딱해서 청중이 배부르기 어려운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

팀 켈러는 이런 생생함을 위해 ‘상황화’(contextualized)를 강조한다. 스티븐 엄은 청중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경은 어떤 인물을 통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모델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now and here)에 있는 삶의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되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용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청중들이 고민하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

127)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223.

128) 팀 켈러, “READING 11.1 그리스도 중심 강해설교의 기본원리 강의안”, 8.

3가지 상황화가 필요하다. 마크 스트라우스(Mark L. Strauss)는 3단계를 제시한다. ‘1) 원래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찾고, 2)성경의 특유한 가르침이나 명령 이면에 존재하는 신적 윤리, 윤리적 이상, 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고 3)이런 윤리적 이상이 현대의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¹²⁹⁾이라고 했다. 이 부분은 상황화에 있어서, 본문 주해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는 것에 반해, 켈러는 청중 쪽으로 균형을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켈러는 먼저 본문을 통해 오늘날의 지성들이 가져야할 참된 교리와 거짓된 견해를 비교하게 하고, 본문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할지를 고민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말한다.¹³⁰⁾

특히 본문을 통해 설교자가 고심해야 할 것은 복음전도이다. 설교자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고심해야 한다. 켈러는 설교하는 매순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본문을 우리에게 복음의 필요를 보여주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은혜와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¹⁾ 본문은 항상 왜 구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달해야하고, 어떤 결실이 있는지를 말해야 하는 복음 부담을 주고 있다. 오종향은 켈러의 설교에 대해서 ‘전도설교’에 가깝다고 이야기한다.¹³²⁾ 그의 설교는 선교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성경해석의 틀은 하나님의 선교와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이야기”¹³³⁾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본래적으로 선교적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청중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은 분명히 배려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켈러는 설교를 위하여 상황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적용(Christo-centric application)’이라고 말한다.¹³⁴⁾ 이 관점의 목적은 본문에 발견한 진리를 적용하되 윤리적이고 도덕지향적인, 종교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다. 도덕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설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 관점은 청중의 변화는 윤리적이고,

129) Mark L. Strauss, *Four Views on Moving beyond the Bible to Theology (Counterpoints: Bible and Theology)*(Grand Rapids: Zondervan, 2009); 윤석인 역,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426.

130) 팀 켈러, “READING 11.1 그리스도 중심 강해설교의 기본원리 강의안”, 7.

131) Timothy keller, *Preaching*, 51. 따뜻하게 설교가 전달되었는가?가 중요하다.

132) 오종향은 팀 켈러의 CTC 네트워크의 트레이너로 한국 CTCK에서 활동하고 있다.

133) Strauss,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98.

134)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16-7.

도덕주의적인 사람으로서의 탄생이 아니라 진정한 덕(true virtue)¹³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한 덕이란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과 신적인 조명에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과 인격의 변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사로잡혀있는 동기와 정체성 변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켈러의 설교는 기존 설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의 변화에 두며, 개인이 성취하면 뿌듯함을 느끼는 인간의 만족감을 자극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자녀로서의 감격을 전하며, 켈러의 설교에 있어서 도덕주의는 율법주의이며, 설교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배격함을 볼 수 있다. 이런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켈러는 청중의 코드에 맞도록 그리스도를 해결책으로서 제시한다. 그는 설교가 청중이 진부함을 느끼고, 헛다리 잡는 듯한 설교보다는 내게 말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이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담과 같고, 방향을 바꾸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켈러는 칭의를 바탕으로 하되, 성화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에 초점을 둔 설교인 것이다.¹³⁶⁾

3.1.1.3. 그리스도 중심의 경배

켈러의 설교의 세 번째 목적은 제사장적(Priestly), 존재적(Existential)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생명력이 있게 전하는 것이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7절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했다. 설교는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5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하였다. 설교자는 평안을 전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켈러는 설교를 위한 존재론적(실존론적) 관점¹³⁷⁾을 ‘감각(Sensation)’으로 부르고, 이 관점을 통해 목표하는 바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는 것이다.

135) Timothy Keller, “Preaching the Gospel in a Post-Modern World,” 12-4.

136) Timothy Keller, “Preaching the Gospel in a Post-Modern World,” 15-6.

137) Timothy Keller, “Preaching the Gospel in a Post-Modern World,” 17.

이 관점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God)’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의도는 분명하다. 청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각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 청중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청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놀라우실만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으로, 마음이 감각하게 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다.

켈러는 이 부분에서 상상력을 통해 감각하게 만들고 있다.¹³⁸⁾ 내 삶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삶이 어떤지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피터잭슨(Peter Jackson) 감독의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에서 반지원정대가 악마 사우론이 탐내는 “절대반지”를 파괴하고, 왕의 대관식을 올리는 것처럼, 상상력을 통해, 진정한 왕의 승리와 환희의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을 감각하게 되면서, 청중은 존재론적(실존적인)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¹³⁹⁾ 이것은 예배 안에서 청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실재하심을 직접 마음에 깨닫도록 이끌고, 느끼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마음에 와 닿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켈러는 설교에 있어서, “빛과 열기”를 중시하는데, “빛”이 진리에 관한 부분이라면, “열기”는 마음의 변화에 관한 부분이다. “상상력”은 “마음”을 움직여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감각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특별히 켈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다. ‘하나님을 느끼도록’ 설교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포인트이다. 그는 진리는 명백할 뿐 아니라 청중에게 실재가 되어야 한다.¹⁴⁰⁾ 본문을 통해 청중을 그리스도에게 실재로 이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본문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켈러와 일반적인 설교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대부분 설교자들은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을 집중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더 풍성히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켈러는 다양하게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다. 본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루어진 구원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는 분이심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켈러는 청중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적용을 통해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참여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이다. 그에게 이러한 감정(affection)의 변화는 사

138)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18.

139) Timothy Keller, “Preaching the Gospel in a Post-Modern World,” 17.

140) Timothy keller, *Preaching*, 157.

물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각할 때 사람에게 생기는 경향성이다.¹⁴¹⁾ 그러므로 그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설교자는 청중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청중을 설교를 통해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교자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감흥(feel)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흥(affection)을 주기 위해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설교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력과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이 시대의 문화적인 토양 위에 청중의 마음을 상황화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통하고, 청중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르도록 진정한 감정(affection)을 불러일으키고, 경탄하게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면서,¹⁴²⁾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더불어 우상을 다루는 문제는 성경전체를 관통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return) 적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¹⁴³⁾ 켈러에게 이 부분은 잃어버렸던 마음(heart)을 되살려내는 것이다. 그는 인간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설교한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켈러는 우상을 제거하여, 신앙의 기쁨을 되찾게 한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상을 다루는 설교는 단순히 행동에 대한 교훈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부터 그리스도로 장악되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의지를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다. 청중으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칭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임을 통해, 청중으로 하여금 감동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칭의”는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는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켈러의 설교는 이처럼 복음을 항상 포괄하고 있다. 이것은 청교도와 맥락이 달고 있다. 존 오웬은 복음을 선포할 때 다음의 몇 가지를 증거했다. 1)아낌없고 자비로운 섭리들 2)하

141) Timothy keller, *Preaching*, 160.

142) Timothy keller, *Preaching*, 175-77.

143) 팀 켈러, “READING 12.1 폐부에 와닿게 복음을 설교하기 강의안”(안산, 리더머 세미나 인큐베이터 과정, 2016), 10-2; 스티븐 엄, “팀 켈러, 센터처치 목회자 컨퍼런스: 그리스도 중심 설교(1)강의안”, 18.

나눔의 선하신 뜻과 사랑의 전개들 3)그 선하신 뜻과 사랑은 죄들에게 대한 것이고 4)그리스도를 통하여 5) 은혜의 언약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6)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미쁘심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한다.¹⁴⁴⁾ 중요한 점은 설득력이다. 감정(feel)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시켜주어야 한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불붙는 논리’와도 닿는 부분인데, 분명한 논증이 힘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청중이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감동하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마음(affection)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적용은, 명제적 설교를 통해 설교자가 받은 ‘영감’을 전달하여 청중에게 감성 터치를 하거나, 청중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 적절한 예화를 전달하는 설교의 적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2. 팀 켈러의 설교의 경험적 해석과 이해의 강조점

켈러가 추구하는 설교의 목적은 청중의 가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켈러는 본문을 증거하고(preaching the text) 복음을 전파하고(preaching the Gospel), 마음을 울리는 증언(preaching to the heart)을 하라고 말한다.¹⁴⁵⁾ 그는 이러한 설교의 확신에 근거하여 청중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의 경험적 해석의 신학적 배경은 조나단 에드워드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를 통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켈러는 ‘진리’와 ‘체험’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시대라고 본다. 그는 에드워드의 주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마음을 전율시키고, 감동시키고, 녹아지게 하고, 짜릿하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진리를 참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는 설교자의 폐단을 이것으로 본다. 설교를 위해 감정을 건드릴 예화나 이야기를 찾아나서는 것이 설교자의 설교준비가 아니라, 진리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느끼게 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켈러가 강조하는 상상력이다. 그는 마음에 상상력을 연결함으로써 이미로 받는 터치보다 더한 감성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¹⁴⁶⁾

144) J. I. Packer, *Among God's Giants: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Wheaton: Kingsway Publications, 1991); 박영호 역, 『청교도 사상』(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1), 232.

145) Timothy Keller, “Preaching to the Collective Heart,” <<http://www.timothykeller.com/blog/2013/1/30/preaching-to-the-collective-heart>>, accessed 15 December, 2018.

146) Timothy keller, *Preaching*, 169.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설교적 사건은 새로운 상상력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설교자는 불균형과 탐욕때문에 설교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순종’으로 청중을 인도하라고 말한다. 폴 리콰르는 ‘상상력’ 이후 ‘순종’이 온다고 말했다.¹⁴⁷⁾ 이처럼 켈러의 설교는 상상력을 통해 경험으로 연결되고 있다. 켈러의 설교의 방법은 단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감동을 넘어서 진리의 상상력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설교자의 능력은 상상력과 예화를 통해 청중의 마음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칭의’라는 단어를 말할 때, 청중에게는 마음에 떠오르는 특정한 형상이나 그림은 없기 때문에, 자극이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심판대’라는 말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법정’에서 누군가를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중재사역’으로 상상’하게 만든다면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이미지’를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상상력이다.

우리가 왜 상상력을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성경 안에 이미 상상력과 예화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예화의 사용에 탁월하셨다. 예수님의 예화와 강화에는 그림처럼 머리에 인상으로 남게 하는 상상력이 풍부하셨다.

예화의 난입은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사용은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디(D.D.Moody)는 신학적 지식이나 교육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예화를 통해 마음을 움직였다.¹⁴⁸⁾ 이처럼 청중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화는 성육신한 성경적 진리를 제대로 진술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티븐 엄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바울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해 주기를 원한다.¹⁴⁹⁾ 그러나 바울은 이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싶지 않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연보가 단지 바울의 요구에 대한 지시적 반응이 될 것 같아서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사도이고, 성도들의 의무는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를 말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지도 않았다. 대신 가난한 그들에 비해 고린도 교인이 얼마나 더 풍성한지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이미지를 동원해서 말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

147) Walter Brueggemann, *Finally Comes The Poet*(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주승중 역,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서울: 겨자씨, 2007), 137-149.

148) Daniel Baumann,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2); 정장복 역, 『현대 설교학 입문』(서울: 엠마오, 2001), 243.

149) 스티븐 엄,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강의”(안산, 복음전도교회개혁 컨퍼런스 인큐베이터 과정, 2016).

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난함”이 고린도 교인의 “부요함”을 가져온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난해짐”을 통해 예루살렘의 “부요함”을 위해 쓰임받을 기회라는 것을 유비적으로 상상하게 해주는 장면인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을 ‘돈’과 ‘부요함과 가난함’에 대비시켜서, 이미지를 통해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¹⁵⁰⁾ 바울은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얼마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하면서, 진정한 부요함을 나누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은혜받은 자로서 물질을 베푸는 영적 기회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정을 통해 마음이 준비될 때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력은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¹⁵¹⁾

마음으로 아는 지식이 좋은 이유는 진리를 맛보게 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다. 마음으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의 신앙은 한계가 있다. 마음으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때 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못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⁵²⁾ 특별히 설교자가 청중에게 오감을 자극하는 설교를 할 때, 청중은 그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기억하게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¹⁵³⁾ 이상을 통해 켈러는 상상력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경험적 설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개혁주의 전통 위에 서있는지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타당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하는 경험적 설교가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와 어떤 맥이 닿아있는지를 해석학적으로 이하에 살펴보고자 한다.

3.2.1. 경험적 설교와 팀 켈러의 설교의 해석학적 타당성

150) Keller, 『센터처치』, 142-43.

151) 스티븐 엄,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강의”(수원, CTC KOREA 트레이너 모임, 2017).

152) 서창원, “개혁교회의 경험적 설교의 능력,” 『진리의 깃발』 제57호(2014): 25.

153) 스티븐 엄,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강의”(수원, CTC KOREA 트레이너 모임, 2017).

3.2.1.1 경험적 설교의 성경적 해석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으며, 노래하고 있다. 이런 감정의 부분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기초하고 있다.¹⁵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에 대한 경탄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즐거워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감격과 마음을 다한 감사, 겸손하고 열렬한 사랑, 다윗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한 비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적대시하는 원수들에 대한 끓는 마음’과 같은 감정의 세세함이 표현되어져 있다.¹⁵⁵⁾ 그것은 저자의 감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감정보다 더한 것이 발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정이기도 하다. 켈러는 시편에 탄성, 불만, 논쟁, 호소, 외침, 고백 등의 진술을 통해 인간이 낼 수 있는 감정의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한다.¹⁵⁶⁾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예레미야는 사무치는 답답함(렘20:9), 다니엘은 번민함(단7:15), 하박국은 기쁨(합3:18),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욘4:1)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셨고(요11:35), 바울은 떨었다(고전2:3).

이처럼 성경은 감정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성경에는 신적 감정과 인간의 감정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강해설교에 있어서 감정 사용에 대해 무관심이 심해지면서, 강해설교는 어느새 가르치려고만 하는 설교로 포스트모던 청중¹⁵⁷⁾과는 거리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로 보인다.¹⁵⁸⁾ 그러나 경험적 설교의 특징은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등장인물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다시 표현해내는 설교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켈러는 청중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물의 감정, 상황의 문제를 적절히 표현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날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설교로 되살려내는 최적의 설교라고 볼 수 있다. 켈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다.

154) Phillip J Swihart, *How to live with your feelings*(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

6); IVP 역,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서울: IVP, 2000), 14.

155) C. Samuel Storms, *The Signs of the Spirit*(Wheaton: Crossway, 2007); 장호준 역, 『우리 세대를 위한』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서울: 복있는 사람, 2011), 51-54.

156) 팀 켈러, 최종훈 역, 『기도』(서울: 두란도, 2015), 93.

157) 박현신, “포스트모던 청중을 위한 적용이 살아있는 강해적 교리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30권 (2014): 171-74.

158)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 (2015): 42.

주님이 무덤에 다가가는 장면을 대부분 성경 역본들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라든지 “비통한 심정에 잠겨”(38절)라고 옮겼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약한 해석이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화가 나서 고향을 지르다’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 헬라어를 사용했다. 워필드(B.B.Warfield)는 이렇게 말했다. “요한은 사실상 예수님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가 아니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상태로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갔다고 이야기했다.” …칼뱅의 말을 빌리자면, “한바탕 싸움을 벌일 준비를 갖추는 챔피언처럼” 무덤으로 다가갔었다. …예수님은 악과 죽음, 고난에 맹렬히 노여워하셨으나, 이 세상을 지으신 자신에게는 분노하지 않으셨다. 이는 악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계의 적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원수임을 의미한다. …인간은 어차피 깊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우리의 고난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진실이 있다. …일반적인 고난은 정당하다는 진리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더 나아가 그분의 존재까지 격렬하게 거부하는 자만심과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만다. 개별적으로 닥쳐오는 고난은 부당하기 십상이라는 진리를 소홀히 대하면 지나친 죄책감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에 발목을 잡힌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미워요!” 식의 반응과 “내가 싫다!” 식의 반응에 빠지게 된다.¹⁵⁹⁾

이처럼 켈러는 본문에서 시작된 감정(affection)을 경험하고, 거기서 시작하여, 청중의 감정으로 넘어가며 경험적으로 설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성경 안에 있는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경험적 설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2.1.2. 경험적 설교의 역사적 해석

어거스틴 이후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문법적 역사적 연구를 했던 안디옥 학파의 성경해석을 따랐는데, 교훈적이며, 치유, 경험적 설교자였다. 그의 설교를 통해 “청중들은 자신들의 도시의 아픔을 묘사할 때에 마음이 내리눅아서 눈가에 눈물이 흘렀고, 그의 격려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평안을 얻으라는 그의 메시지에 영적인 활력을 다시 찾게 되었다.”¹⁶⁰⁾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여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루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에게 선행은 공로를 강조한 카톨릭의 반성경적인 태도를 반박한 것이지, 실제로는 설교에 있어서 죄인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다.¹⁶¹⁾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는 말씀과 경험을 통합시킨 설교자였으며, 조지

159) Timothy Keller, *Making Sense of God: An Invitation to the Skeptical*(New York: Viking, 2016); 최종훈 역, 『답이 되는 기독교』(서울: 두란노, 2018), 216-20.

160) E. C.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4), 88.

161)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설교신학 이해,” 『대학과 선교』 제17호 (2009): 39-67을 참고하라.

횃필드(George Whitefield)도 경험을 강조하였다.

여러분은 스스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범죄를 깨닫고, 느끼고, 통회하며 슬퍼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로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¹⁶²⁾

찰스 스펀전(Charles Haddon Spurgeon)은 이렇게 증거했다.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영예를 얻기 위해서, 또는 사소한 일에 성공을 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여러분의 영혼에 합당한 자랑거리를 찾으셔야 합니다.¹⁶³⁾

이처럼 그는 청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향해 설교하였다. 이상과 같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설교자들은 감정 사용을 설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들의 설교 속에 효과적으로 사용한 자취가 남아있다. 문제는 이런 경험적 설교를 오늘날 설교자들은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혁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한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감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어도, 설교를 할 때는 감정적 요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감정이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 때문이다.¹⁶⁴⁾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감정사용을 잘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가령 본문 속에 자기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본문이 원하지 않는 감정까지 드러냄으로써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경의 표면적 지식과 설교자의 감흥에 민감하게 하고, 본문의 소리에는 둔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성도에게 진정한 “신앙감정”(affection)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feeling)만 주고 끝날 수 있는 것이다. 일직이 루터는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에 ‘본문을 떠나서 설교하는 이는 시장에 가려다가 아는 여인을 만나 수다를 떨다가 시장에 늦게 도착하는 여인처럼,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지껄이는” 설교자’¹⁶⁵⁾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설교자에게 이런 평판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핏 왓슨(Ian Pitt-Watson)도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 설교가 “도덕적 설교”라고 판단받는 것은 수용할 수

162) Jerry Falwell, *Twenty-Five of the Greatest Sermons Ever Preached*(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정창영 역, 『가장 훌륭한 25편의 명설교』(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30-1,

163) Falwell, 『가장 훌륭한 25편의 명설교』, 96-7.

164)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52.

165) Hugh T. Kerr, 김영한 편역, 『루터신학개요』(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205;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설교신학 이해,” 47에서 재인용.

있어도 “순전히 감성적 설교”라고 판단을 받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¹⁶⁶⁾ 결국 감정은 설교자가 유도하는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해 잘못 전달될 수 있고, 청중을 감화(affecti on)하여 들려지기보다, 불편한 감정(feel)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있어서 감정을 빼놓고 설교한다는 것은 거대한 오아시스에 파이프를 대놓고, 수문을 열지 않아서 추수할 오곡을 말라죽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성경이 담고 있는 본래적인 감정의 풍성함과 능력이 위축되게 하는 것은 청중을 영적으로 아사하게 하고, 설교자로서도 본문에 대한 왜곡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저자의 원래적 “감정적 디자인”이 있기 때문이다.¹⁶⁷⁾ 로이드 존스는 빌립보서 3장 18절을 언급하며 바울이 진리를 언급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을 위해 울었던 모습을 말하면서, 감정을 침묵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임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설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메시저가 정말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진리의 의도 때문입니다. 과거에 위대한 설교를 결정지었던 설교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왜 현대의 메시저들은 예전의 훌륭했던 메시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감동하여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도취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요? 진리 때문에 겸허해지고 경이로움 속에 애정과 찬미로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취되어 있는지요?¹⁶⁸⁾

이처럼 청중의 감성(emotion)과 신앙 감정(heart)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정(feel)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정(affection)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일찍이 1970년대에 등장한 신설교학도 청중의 지성만 강조하고, 청중의 감성과 감정을 무시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나온 반동현상이었다. 신설교학자들은 머리만을 움직였던 전통적 설교자들과는 반대로, 감정적 요소와 체험적 요소를 통해 청중의 가슴을 움직였다. 그런 면에서 로이드 존스는 신설교학이 크게 주목받기도 전에 이미 감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주었던 설교자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도 전통주의 설교자들에게는 감정(Pathos)를 중시하고 내용(Logos)로부터 멀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166) Ian Pitt-Watson, *Preaching: A Kind of Folly*(Edinburgh, Scotland: The Saint Andrew Press, 1976), 44-45;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52에서 재인용.

167) Steven W. Smith, *Recapturing the Voice of God: Shaping Sermons Like Scripture*(Nashville: B&H Academic, 2015); 김대혁·임도균 역,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서울: 아가페북스, 2016), 15.

168) D.M. Lloyd-Jones, “What is Preaching,” in *Knowing the Times: Address Delivered on Various Occasions 1942-1977*(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9), 90;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237에서 재인용.

말씀을 전할 때 깊은 감정(affection)을 담아 설교하는 사람은 드물어 찾기가 쉽지 않다.

로이드 존스도 자신의 설교에서 파토스(Pathos), 곧 감정사용이 가장 부족한 면이었다고 고백했을 정도이다. 그는 감정에 있어서 설교는 사랑하지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설교자의 문제(pathos)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filled with compassion)는 말씀을 강조하며 감정사용을 배려했던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¹⁶⁹⁾ 물론 그가 촘촘한 논리를 가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사역을 시작한 때에 웨일즈 설교의 특징이 ‘열정이 휘몰아치는 설교’로 청중의 혼을 잃게 만들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촘촘한 논리를 갖추고 중심 주제를 면밀히 분석해 나갔던 것이었다.¹⁷⁰⁾

비록 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동작용의 설교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개혁주의적 전통 속에 있는 설교자들이 점점 감정 사용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해졌던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균형을 잃고 지적인 방향으로 치우친 나머지 느낌이나 감정의 요소는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많이 배워서 진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고(over-intellectual) 때문에,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온 것이다.” 물론 감정의 위험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본위의 시도를 주의했을 뿐이며 결코 감성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Note that I say emotion not emotionalism”)¹⁷¹⁾

이런 면에 대해서 존 스토틀(John Stott)는 말씀을 예비하고 전달만을 바라는 설교자의 태도는 “죽은 말”을 만들고, 그러한 설교 연구실은 “사형집행실”이라는 데이빗 리드의 말을 인용하며 성경과 인간의 감정을 잘 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성적이며 똑부러진 메신저가 되는 것이 설교자의 꿈이 된 나머지, 설교할 때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임을 진단하였다.¹⁷²⁾ 그러므로 오늘날 개신교 설교 안에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이원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성중심으로 가야할 것인지, 경험중심으로 가야할 것인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결국 지성과 경험은 떨어져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한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특징은 ‘사변적 이해’(notional understanding)와 ‘심정적 이해’(heart understanding)를 통합하여 ‘말씀 중심적인 경험설교’(Word-centered experiential preaching)를 구현했다. 그에게 말씀과 경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169)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1971), 92.

170) Iain H. Murray, *David Martin Lloyd-Jones*(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2013); 오현

미 역, 『Martin Lloyd-Jones』(서울: 복있는 사람, 2016), 183-87.

171)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93-4.

172) John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Challenge of Preaching Today*(Grand Rapids: Eerdmans, 1982); 정성구 역, 『현대교회와 설교』(서울: 생명의 샘, 1992), 294.

존 파이프(John Piper)는 ‘설교자가 전달하고 있는 말씀에 공적으로 기뻐함(exultation)이 있는 것이 온전한 설교이며, 이러한 설교는 냉정하거나 감정의 변화없이 무관심하거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전달될 수 없고, 오히려 청중들까지 흥분하게 될 만큼 눈에 도드라지게 열정적으로 증거 되어야 한다’¹⁷³⁾고 말했다. 더불어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감정 사용은 시대적 요청으로 볼 수도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감정이 개념보다 앞서고, 이미지가 말보다 중요하고, 직관적인 경향이 이성과 논리보다 더 강조되기 때문에¹⁷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을 대하는 설교자에게 효과적인 감정 사용은 필수적인 설교적 전략으로 보여진다. 특별히 이 시대에 대해 김운용은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전달”¹⁷⁵⁾하는 시대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마음을 고려하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근대와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지, 상상력과 감정”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되지 않을 수 없다.¹⁷⁶⁾

팀 켈러는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접근법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루터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지에 부담을 주기보다, 복음을 마음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의 공로주의와 행위에 입각한 구원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고 고발하고 반대하고, 의지로의 구원이 아닌, 바른 복음을 재현하고, 청중의 마음에 호소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경험적인 방식으로 설득되기를 원하는 포스트모던시대에 경험적 설교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의미가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역사성은 오늘까지 이어져야 할 해석학적 흐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켈러의 설교가 뉴욕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2.1.3. 경험적 설교의 신학적 해석

3.2.1.3.1 감정 사용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¹⁷⁷⁾

173) John Piper, *Supremacy of God in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s, 2004); 박혜영 역, 『하나님을 설교하라』(서울: 복 있는 사람, 2012), 11-2.

174) Roy Clements, "Expository Preaching in a Postmodern World.", <<http://www.courage.org.uk/articles/article.asp?id=148>>, accessed 27 June. 2018.

175)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42.

176) Jeffrey Arthurs, "Place of Pathos in Preaching", *Preaching today*, <<https://www.preachingtoday.com/skills/themes/preachingwithpassion/200102.27.html>>, accessed 1 June. 2018.

177)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46.

이상에서 마음은 변화의 핵심이며,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의하게 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존재의 통제소가 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신학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요소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셨다.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 기드온의 감정을 격려하고 계신 장면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사용하시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감정(affection)은 성령의 역사와 어긋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바울은 고백하였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약함보다 뛰어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약할 때 강함”(고후 12:10)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이 가장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그러한 감정의 바탕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설교자의 인간적인 연약한 감정까지 가장 잘 사용하신다. 설교자가 자신의 감정의 오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본문에서 맛보는 감정을 숨긴 채 지나치게 차분하게 설교하는 것은 도리어 성령의 역사를 잠재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본문의 감정은 성령에 의해 영감된 매개체이다. 설교자가 본문이 살려내려고 하는 본문에 드리워진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 갈증을 가진 청중을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설교자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의 기록자가 자기 의도를 심어놓은 내용이 아니다. 본문은 오직 성령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heart)을 저자의 감정 속에 집어넣으시고,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본문 속에 설교자가 청중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각 낱말과 각 문장의 위치와 표현묘사라는 장치로 심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러한 성령 저자의 의도를 외면하고 본문에 실린 성경의 감정의 현관 문손잡이들을 잠근 채 닫고 있다면 본문을 통해 설교자 자신뿐만 아니라 청중마저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는 실패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문이 품고 있는 감정적인 요소를 해석하지 않는 일은 성령의 의도를 밀어내며 본문의 내용과 열기까지 밀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¹⁷⁸⁾

178)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47-51.

켈러는 마음을 움직이는 자신의 설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감정(affectio n)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다. 그는 ‘결혼생활은 자기중심성(self-centered)때문에 절망의 구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지만, 성령은 그런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말한다. 그는 ‘결혼이 주는 깊은 행복은 성령께 의지해서 섬기는 삶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⁹⁾ 부부간의 감정도 성령과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부요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죄라는 자기중심성이 사람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어 사람의 자기중심성으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에 있어서 감정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비록 본문을 통해 감정을 찾는 부분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김대혁은 이런 정황에 대해 성경본문에 나온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청중 앞에서 이중조작이라고 말한다.¹⁸⁰⁾ 우리는 흔히 개혁주의 원리에 따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서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의 감정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의 본문의 감정이 멈추는데서 멈추어야 한다.

성경 본문은 그냥 적혀있는 텍스트의 집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청중들의 마음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의 감정은 설교자가 온전히 사랑으로 다루어서 해석하고 청중을 살려내기 위해 전해야 할 사명의 대상이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출발은 본문에 담긴 저자의 감정에 있다. 본문의 감정에서 경험적 설교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해석학적 근거가 충분하다. 그럴 때 청중은 마음이 움직여지는 설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원하는 방향성임을 알 수 있다.

3.2.2. 경험적 설교의 해석학적 충실성

본문의 감정을 찾고 분석하는 것은 본문의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본문의 효과(effect)와 임팩트(impact)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 충실한 성경해석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단순히 교리와 규례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러티브, 족보, 연대기, 각종 법령과 시기, 잠언, 수수께끼, 비유, 설

179) Timo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Facing the Complexities of Commitment with the Wisdom of God*(London: Penguin Books, 2013); 최중훈 역, 『결혼을 말하다』(서울: 두란노, 2014), 72-3.

180)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54.

교, 묵시 등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소통방식을 사용하셨기 때문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어휘로 표현되었고, 그 시대 문화와 상황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¹⁸¹⁾

그러므로 본문은 딱딱한 경구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새겨진 곳이다. 본문의 감정을 해석하는 부분이 긴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학자들도 ‘성경해석은 감정적 각도(the emotive angle of interpretation)를 가지고, 본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본문에서 뽑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본문이 가진 효과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때,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해석하고, 본문 안에 고정된 감정적 요구(the emotional dimension)로 움직이고, 본문의 효과(original impact)로 움직여야 하며, 상황화되어 오늘날의 표현으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¹⁸²⁾

그러므로 본문을 해석할 때, 저자가 의도한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면서, 감정에 대한 해석을 지혜롭게 한다면, 성경본문 주해자는 보다 올바른 해석자의 맵(map)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엘리엇 존슨(Elliott E. Johnson)은 전통적으로 해석학에서 본문의 의미를 다룰 때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는 인지적 요소만이 아니라 그의 감정적, 의지적 요소들도 함께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디자인되어 치명적으로 설득하거나 하나님께 응답하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말한다.¹⁸³⁾ 간단히 말해 성경본문에는 성경저자가 의도한 감정컬러(emotive color)가 있다는 뜻이다. 모든 그림에 색깔이 있는 것처럼, 성경본문에는 저자가 의도한 다양한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본문 주해를 할 때, 인지적 요소 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소도 반드시 섬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해석학적 과정인 것이다.

김대혁은 “설교자는 말씀 요리사”라고 하였다. 요리사로서 좋은 재료는 중요한 축복인데, 항상 재료가 좋다고 좋은 요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료의 특징과 상관없이 한가지 레시피만으로 천상의 재료의 맛을 제한하지 말 것을 주의하였다.¹⁸⁴⁾ 그렇게 볼 때 본문을 요리할 때 설교자들이 감정적인 영역은 분명 요리해야 할 천상의 재료로 본문 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레시피로 어느새 간과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그랜드 오스본(Grand Osborne)도 ‘진정한 의미’(the true meani

181) Gordon D. Fee,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A Guided Tour* (Grand Rapids: Zondervan, 2014); 오광만·박대영 역,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 1998), 28-9.

182) William W. Klein, Craig L. Blomberg, and Robert L. Hubbard,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allas: Word Publishing, 1993), 315-317.

183) Elliott E. Johnson, *Expository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Academic Books, 1990), 110.

184) 권호, 임도균, 김대혁, 박현신, 『새강해설교』(경기: NEP, 2016), 115-16.

ng)를 잡기 위해서는 본문이 해석자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감정을 저버리지 말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원저자가 본문에 새겨넣은 색감을 차분히 분석하여, 감정적 강도를 살려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감정요소(sense: the mental response), 상징적 요소(symbol: the term), 자료적인 요소(reference)의 삼각구도를 가지고, 단어와 문장이 가진 원래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효과를 상상하고, 집중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랑”의 감각은 친절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주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왜(why?)라는 질문 속에서 저자의 감정을 살려내야 한다.¹⁸⁵⁾ 일직이 어거스틴의 설교는 청중들이 듣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다고 한다.¹⁸⁶⁾ 그 이유는 그의 설교가 해석학적으로 감정을 해석해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설교에 있어서 감정(affection)을 다루는 것은 결국 청중의 마음(heart)을 움직이는 것과 직결된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성경 저자의 내적 정서과 체험을 그대로 재체험(re-experience)하여 설교자가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 감정이라해도 본문의 내용보다 앞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며, 본문의 내용파악이 감정을 제외한 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본문 안의 어휘와 지시를 보며(정보, 표현, 방향) 저자의 의도를 제한할 수 있고,¹⁸⁷⁾ 스타인의 말처럼 해석자가 자신의 자리와 경험으로 해석하여 성경저자의 내적 움직임(mental acts)을 간과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C.S.Lewis가 말한 것처럼 ‘해석은 저자의 자리와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해석자가 주체가 되는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¹⁸⁸⁾ 그러므로 감정을 ‘뺄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성경에 감정을 위험요소로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장치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라고 할 때, 본문 자체의 힘을 주목해야 한다. 본문은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본문 주해하는 적절한 주해자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Text-Driven Preaching)¹⁸⁹⁾ 이처럼 본문에는 감정이 있고, 감정을 찾아내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며, 감정을 찾아내서 설교화하는 것은 해석학적, 설교학적 정당성

185) Grant R.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6), 94-96, 111.

186) Edwards, 『교부들의 설교』, 141.

187) Elliot E. Johnson, *Expository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100.

188) Robert H. Stein, *Playing by the Rules: A Basic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47-49.

189) 김대혁, “원리화, 신학과 과정에서의 장르적 고려와 설교학적 함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통합,” 『성경과 신학』 제79권(2016): 196.

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정(heart)을 다루는 것은 본문이 가진 문학적인 장르와 그 속에 담긴 의도와 내용적인 의미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석자가 본문을 청중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본문이 가진 생생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건강한 해석학적 과정을 통해 구현되고, 드러나야 할 해석학적, 설교학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2.3. 경험적 설교의 설교학적 효과

청교도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그 결과 그들의 설교는 경험적이 되었고, 설득력과 권위가 임하였다.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 “느껴지는 믿음”(feeling faith)을 추구하고, 청중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사모하였다.¹⁹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지금도 오늘 시대에 도전을 주고 있다.

경험적 설교의 설교학적 효과는 단순히 감정(feel)에 호소하는 설교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방향성을 가지면서, 감정만이 아니라 지성에 동의가 되는 설교이다. 그래서 설교에서 깨달은 지성적 내용은 감정과 연결되어, 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설교학적인 효과가 강할 수밖에 없다. 즉 마음에 호소(sense appeal)를 통해 청중들에게 가르친 것이 감각(experience)되어 진리가 실재(reality to truth)되게 하는 설교인 것이다. 경험적 설교는 청중에게 경험 또는 사건으로 살아나게 하거나, 다시 회복되게(live or relive) 해야 하는 설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경험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설교이며,¹⁹¹⁾ 성경적인 내용으로부터 출발하여 성경적인 변화로까지 청중으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는 설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이해와 감정적 교감(religious affection)이 어떻게 결합(combined)되어 있는가에 따라 경험적 설교의 설교학적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번연(John Bunyan)은 ‘우리 인격의 가장 안쪽에 자리잡은 마음에 강력히 호소하여 두려움이나 놀라움이나 사랑과 같은 감정들’을 일깨워 설교학적 효과를 거두기 원했다. 그는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지식과 내용이 통제되어 감정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느꼈던 것, 정말로 강하게 느꼈던 바를 설교했다. 심지어 나의 연약한 영혼이

190)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86-8.

191) Jay E. Adams, *Preaching with Purpose* (Grand Rapids: Baker, 1982), 86.

탄식하며 놀라 떨고 있을 때에도 그리했다. 나는 내 자신이 사슬에 묶인 채 묶여있는 자들에게 설교했는데 그들이 주목하도록 설득하여 내 마음에 있는 불을 전달했다.¹⁹²⁾

허셸 요크(Hershael York)의 말처럼 청중을 움직이는 설교에는 감정이 필수적인 것이다.¹⁹³⁾ 이러한 경험적 설교의 추구하고 설교적 효과는 정보와 감정의 연합을 통해 변연의 말처럼, “불”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학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온 상황과 동일시 경험(identification)을 통해 청중에게 메시지가 들리게 할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칼빈도 청중들의 실제 감정에 호소하기를 원했고,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 열성에 불을 붙이고 싶어했다.¹⁹⁴⁾ 그리고 그 설교의 효과는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그러므로 마음의 감각을 살리는 설교는 청중을 설교를 듣기 이전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신앙의 대변화로 기울게 만든다. 이것도 켈러의 설교를 통한 맨하탄의 청중의 변화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경험적 설교를 추구하는 설교자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 경험적 지식과 은혜를 품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부여잡고 청중에게 “하늘의 소리”로 선포한다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설교 효과로는 분명히 증명된 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켈러의 설교와 경험적 설교의 연관성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서, 그리고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으며, 해석학적으로도, 설교학적 효과로도 타당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켈러의 설교는 개혁주의 라인에 서있는 경험적 설교이며, 경험적 설교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설교학적 방향성인 것이다. 이것이 켈러가 우리에게 기여하는 설교학적인 공헌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지향하는 켈러의 설교가 과연 우리의 문화적 상황에 맞는 설교인지를 분석하여, 한계를 파악하여,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 변용을 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켈러와 우리의 문화적 상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2)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98.

193) Hershael W. York and Bert Decker,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A Solid and Enduring Approach to Engaging Exposition* (Nashville: B&H, 2003), 17.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감정적 요소(교훈, 책망, 바르게 함, 3개의 emotion)가 있기에, 청중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반해야할 것이 감정(emotion)과 정보(의로 교육함, information)라고 말한다.

194)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58-9.

IV.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목회적 변용: 팀 켈러의 설교비평

개혁주의 설교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적 설교임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감정의 영역을 중요한 설교의 관심사로 다시 자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파스칼(Pascal)은 “이성은 알 수 없는 이유가 마음에 있다”고 했다. 인간은 정서를 가진 존재이고, 지성보다 마음에 그 중심이 있다.¹⁹⁵⁾ 팀 켈러는 경험적 해석과 경험적 설교를 통해 포스트모던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성공하였고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합한 적용점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미국의 정황과 문화코드에 맞는 팀켈러의 설교를 우리의 목회적 상황 속으로 적용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설교의 한계점 분석을 통해 우리의 목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목회적 변용(變用)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목회적인 변용에 앞서, 그의 한계로 지적하는 부분이 그의 설교에서 정말 드러나는 부분인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켈러의 강점과 약점을 우리시대의 목회적 상황에 변용하고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장은 켈러의 설교의 한계점을 살피고, 그의 한계점을 토대로 켈러의 설교를 분석하여, 어떻게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 변용하여 사용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4.1. 팀 켈러의 경험적 설교의 한계

켈러는 포스트모던시대에 적합한 훌륭한 설교자이지만, 설교학적, 해석학적으로 바라볼 때, 몇 가지 약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본문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때로 본문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다. 김창훈은 구속사적 설교의 문제를 배타성으로 지적하였다. 이미 모범적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는 이미 본문의 의미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로 설교사적으로 갈등을 겪었었다. 모범적 설교가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문을 풀면,

195) James K. A. Smith,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Taking Derrida, Lyotard, and Foucault to Church(The Church and Postmodern Culture)*(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박삼종·배성민 역,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서울: 살림, 2009), 202.

성경이 곳곳에서 모범을 제시하고 삶의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성경은 모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거울’로 ‘바알브올 사건’을 경계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을 본으로 제시하며,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의 기도를 본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문을 설교자가 해석할 때, 역사적 본문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¹⁹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문을 풀어서 설교할 때 설교자들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살려내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현실을 사는 성도들의 삶과는 이질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켈러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청중에게 잘 적용하는 설교자이다. 그렇지 않다면 뉴욕시에 사는 그 많은 지식인들, 문화예술종사자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구속사적 설교가 성경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도보다는 구속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집중하면서, 원래 청중이 깨달아야 할 의미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둘째, 켈러가 사용하는 존 프레임의 해석학과 인식론을 설교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다. 프레임은 본문의 의미와 적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곧 적용이다. 그래서 켈러도 본문의 의미와 적용을 따로 분리하여 설교를 하지 않고, 의미와 적용간의 구분이 섞여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다.¹⁹⁷⁾ 이 점은 본문을 이해하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본문의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주해와 적용은 그의 해석학적 틀 아래에서 바른 이해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 있다.

가령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면서, 성경의 지성적, 의지적, 정서적 요소를 주해하는 과정을 가진 후에, 본문에서 나온 의미를 토대로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는 보다 효과적인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문은 간결하게 다루고, 본문의 의미만을 가지고서 적용하거나, 혹은 본문의 결과만을 가지고 재적용하면, 그것이 설교 전반의 주도적인 흐름이 되어 본문의 흐름을 놓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¹⁹⁸⁾ 결국 본문의 의미를 따라가며 고찰하기 보다는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도와 뉘앙스

196) 김창훈, “‘구속사적 설교(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의 평가,” 『복음과 실천신학』 제 15권(2008, 봄): 38.

197) Daniel M. Doriani,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2001); 정옥배 역,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1), 35-45.

198)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40.

를 충분히 맛보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목회적 상황을 관찰해볼 때 상당수의 성도들은 본문의 의미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음을 잘 파악하여 이 부분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켈러의 유형화된 설교적용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켈러는 의미와 적용을 설교화 할 때, 구속사의 틀 안에서 본문이 가진 한계를 복음으로 연결하여 해결하고(감동을 주기), 다양한 적용(도시, 문화, 사회정의, 가정문제, 신앙 등등)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 그의 설교는 복음중심이며, 복음설교라도 해도 무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화 되어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정한 룰이 되어서 이 설교방법론을 고정적인 메뉴얼로 사용한다면, 한편으로 유익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적용지향적인 면에서 설교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지만, 적용이 패턴화되어 본문의 의도와 별리된 적용의 룰을 가지고 본문을 현실에 적용하려 한다면, 본문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켈러리즘으로 이어져서 본문이 가진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 특별히 그의 사회적 적용이나, 정의적 입장, 그리고 뉴욕의 정황에서 적용되는 문제들이 자신의 설교방향으로 메뉴얼화되어 설교를 준비한다면, 본문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청중에게는 본문이 위축되는 적용 설교를 들을 우려가 있고, 설교자도 본문이 위축되어 설교를 주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¹⁹⁹⁾

더욱이 우리의 목회적인 상황 아래에서 그의 적용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기치 아래에 있는 미국의 포스트모던의 뉴욕 맨하탄을 기반으로 하여, 상황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동양적 세계관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토양에 그대로 상황화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이고, 서양은 “이성과 논리”의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켈러의 설교의 틀을 놓고 적용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청중에게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들의 정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우월하고, 우리의 정서에는 서로 푸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기 때문이다.²⁰⁰⁾ 이것은 기본토대가 일정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고, 청중이 그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수준이 떨어진

199) Timothy F. Kauffman, “Getting Sanctification Done: The Prime of Narrative in Tim Keller’s Exegetical Method,” *The Trinity Review*(May-June, 2013): 1-12를 참고하라.

200) 이동근,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정서 연구: 한국인의 정서를 중심으로”(박사학위,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7), 115-19.

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설교를 받아들이는 목회적 상황과 문화토대가 다른 설교의 방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적 상황이 그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목회현장의 재상황화(recontextualization), 목회자의 설교스타일의 재상황화, 이 시대의 청중 상황으로의 재상황화가 필요해 보인다.²⁰¹⁾

넷째, 켈러의 해석은 본문의 역동성(dynamic)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문은 본문마다 가지고 있는 장르적인 흐름이 있고,²⁰²⁾ 무드가 있다. 지·정·의의 요소로 본문에 흐름을 가지고 있다. 김대혁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켈러는 자신의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흐름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성경의 장르를 표출하는 설교(genre-sensitive preaching)를 강조하며, 본문의 원저자의 마음을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문성에 맞게 설교를 통해서 청중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쉽게도 켈러의 설교는 이런 장르의 흐름보다는 적용을 위해 본문이 활용되어서 주제설교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일 때가 있다. 물론 이것을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의 문제를 성경으로 풀어갈 때 생기는 설교자의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용을 위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놓치다보면, 성경의 장르의 특징,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반영되지 않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저자의 흐름과 무드와 의도를 적용을 위해 놓치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섯째, 켈러의 청중을 고려한 설교는 청중을 고려했기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요구에 난해함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켈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을 살아가는 청중 중심의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신학적 용어들을 그 시대에 걸맞는 언어로 재상황화하여 청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가 시대의 언어로 청중 친화적으로 가는 것은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청중에게는 어려운 말인 “칭의, 성화, 속죄 등등”을 시각화하거나, 쉬운 단어로 바꾸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청중이 받아들이기 쉽게 접근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켈러의 탁월한 점은 이런 청중을 고려한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며 청중들에게

201) 박현신, “포스트 에브리팅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Timothy Keller 모델을 중심으로,” 379.

202) 문학적 장르를 고려하는 것은 성경본문의 감정적 의도를 바르게 해독하는 일에 필수적인 것이다. 김대혁, “장르적 성격이 살아나는 설교 방법론 제안: 비탄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제 30권 (2014): 42-88를 참고하라.

강한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이다. 켈러는 설교 후에 청중들과 따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이러한 청중중심의 복음접근은 우리나라 목회자들에게 의미있는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가져오는 우려가 있다. 그것은 청중 중심으로 하다보면, 청중을 위해 본문이 매몰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위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도전적인 원의도를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청중의 사고에 입각한 설교로 본문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켈러는 이 한계를 잘 넘어갔다고 보여지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강력한 요청 앞에 항상 잘 반응을 했는지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특히 이 시대의 목회적 상황에서 포스트모던의 상황 아래에 있는 청중들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죄를 수술하여 낮게 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강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임스 스미스는 이러한 포스트모던 세대가 도리어 복음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성경은 분명히 청중에게 성경이 가야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성경은 청중이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과감없이 말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 설교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관대하기보다 본문의 의도를 분명히 그대로 전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심을 주는 부분은 설교자가 청중을 고려하는 설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포스트모더니즘을 향한 변증설교의 한계를 조심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의 권력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교회가 왜 권력이 아닌지를 증명하고, 바른 교회로서의 논리를 정립하고, 반박하는 등의 변증의 과정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맨하탄에서 켈러는 기독교세계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기독교 변증적인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돌이켰다.

그렇지만 변증적인 설교에도 한계는 동반된다. 왜냐하면 변증적인 설교는 이성의 부패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 옳은 이야기에 반발할 수 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죄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변증을 처음에는 듣지만 계속 귀기울여 듣지 못할 수 있다. 문제는 변증이 설교에 경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서 지나치게 설교가 변증 중심으로 되고, 변증 자체가 가진 논리에 매료되어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감각해지고, 청중의 감정을 놓쳐버릴 수 있다. 이러한 변증의 약점은 설교를 딱딱하게 만들고, 졸음에 빠져들게 만들 여

지가 충분하다. 특별히 변증적 설교는 우리나라 청중들에게는 설교의 전개 자체가 지리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변증을 목적화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자에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과연 변증에 청중이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 논리에 침착하다보면 설교자부터 설교하면서 지치게 되고, 청중도 그 논리에 질리게 된다. 결국 청중들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변증적인 설교를 시도하는 것은 긴요하지만, 설교의 건조함을 고조시키고 청중의 감정 흐름을 간과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된다고 변화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변증을 하는 사람도 타락한 사람이기에 변증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강직에 빠져서 오히려 청중과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다.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변증의 틀 안에 다 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물론 변증의 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에게 바른 교리를 알려주고, 바른 신학기반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켈러가 변증을 통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은 지혜로운 변용이 필요해 보인다. 본문의 상황, 목회자적 상황, 청중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변증설교는 목회자와 강단, 청중을 동시에 불모지로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4.2.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 실례: 한계증명

4.2.1 팀 켈러의 설교분석1

설교1의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에서 켈러는 “레아가 그리스도(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으나 거부당한 사람)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인물인 동시에 자신의 진실한 신랑으로서 예수님을 대망”²⁰³⁾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이 설교를 작성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결혼에 실패한 레아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가정을 통해 절망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레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청중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겪는 다양한 고난 앞에 어

203) Dennis E. Johnson, *Heralds of the King: Christ-Centered Sermons in the Tradition of Edmund P. Clowney*(Wheaton: Crossway, 2009); 윤석인 역,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81.

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켈러는 레아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에게 평생 그늘에 가려진 존재로 다른 여인의 품속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가슴에 비수를 꽂은 채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불행한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의 신랑이기보다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임을 알아야 함을 전하고 있다. 이 세상에 결혼생활로 고통당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을 때 진정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4.2.1.1. <설교1: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분석>

제목: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

본문: 창 29:15-35

<결혼에 대한 균형적 사고를 제시: 청중의 마음을 고려함>

성경은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실적인지 말해준다. 성경은 결혼해서 지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아주 현실적이다. 세상은 결혼을 기대하지 않고 회피하든가 동거를 도피처로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는 결혼해서 가족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⁰⁴⁾

<균형적 사고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시>

정말 바른 성취감, 바른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²⁰⁵⁾

<마음에 와닿는 내러티브: 인간의 노력과 진실한 사랑의 약함>

야곱의 결혼이야기를 서술하는 해설자는 여인을 향한 감정적이고 성적인 열망에 사로잡힌 남성을 보여주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만난 라헬은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일이었을 것이다.²⁰⁶⁾

204)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83. 설교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하 각주를 달아둔다.

205)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84.

206)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87-8.

<신에 대한 신학적 접근: 문학으로 유도, 문화가 주는 무신론>

어니스트 베커는 무신론자이지만,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1970년대에 그는 현세적인 문화에서 신의 공백을 다루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종말론적인 성과 연애라고 말한다. 현세적인 문화는 초월에 대한 욕구를 연애와 사랑으로 무마시킨다.²⁰⁷⁾

<연애와 사랑으로 대체된 하나님: 포스트모던의 현실의 딜레마>

야곱처럼 사람들은 안위, 초월을 향한 요구를 모두 연애와 사랑으로 무마시킨다. 진실한 사랑을 찾는 욕구로 마무리시킨다. 이러면 형편없는 내 인생을 바로잡을거야!!! 뉴욕시민들은 연애와 사랑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²⁰⁸⁾

<내러티브 요소인 갈등을 표출: 가정에 찾아오는 환멸을 감정이입>

야곱이 진실한 사랑을 찾는 중 동반되는 환멸과 절망을 보라. 레아의 가슴에는 구멍이 났다. 야곱만큼이나 말이다. 갈망하는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레아다.²⁰⁹⁾

<성경에 대한 오해를 제거: 결혼에 대한 교리적인 접근>

창세기를 읽으면서 장자 상속제, 일부다처제, 신부 매매를 허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읽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것이다. 버클리대학 교수이며 히브리문학자는 로버트 엘터 박사는 창세기는 이런 관계를 부추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례는 늘 분란이 있고, 성공적이지 못했고, 불행만을 목격시켜준다.²¹⁰⁾

<문화에 대한 도전(외모지상주의): 경건한 삶을 접근>

성경시대는 여성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은 오해이다. 우리 문화는 그때보다 더 고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점 외에도 성경이 사람의 마음에 관한 말씀은 항상 옳다.²¹¹⁾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도전(윤리적 교과서가 아님): 구속사적 접근>

207)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88-9.

208)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89.

209)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93.

210)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95.

211)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95-6.

성경은 사람들의 업적과 윤리적인 공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내용이라기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실패하고 은혜를 남용하지만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²¹²⁾

<교훈1: 결혼이 가진 모순과 난제: 모든 삶에 낙심이 지배함>

야곱은 라헬을 얻으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보니 레아였다. 켈러는 청중의 심리적 기대를 깨트리며, 실존적인 삶의 문제가 결혼 속에서도 없음을 들여다보게 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결혼할 상대방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²¹³⁾

<교훈2: 연애, 성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방식과 보수적 사고방식의 잘못>

야곱은 성관계를 지향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레아는 아내가 되는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거야” 어니스트 베커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끌어올리지 말아야 함을 지적합니다.²¹⁴⁾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과 복음제시>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레아의 내면에서 하는 일과 레아를 위해 하는 일을 깨달아야 한다. 레아는 내면적으로 남편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레아는 당시 신을 가리키는 일반어인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녀를 두면 둘수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외면적인 일은 먼저는 레아를 위해 메시아 혈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두신다. “나는 레아의 남편이 될 것이다”²¹⁵⁾

하나님이 하시는 외면적인 일(라헬을 선택하지 않고 레아를 선택하는 이유)은 약자를 편애하기 때문에 레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할 만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신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구원은 자기의 힘으로 끌어들이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연약해서 하나님 구원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

212)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97.

213)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99.

214)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100-1.

215)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101-5.

람이 되셨기에 구원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부유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권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결코 자랑하지 않으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다.²¹⁶⁾

<현실적용: 복음을 힘입어 변화를 요구>

라반같은 사람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당신이 레아라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결혼 생활이 여러분을 좌절하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차선책에 매달리지 말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차선책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가라. 다시 시작하라.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다짐하라.²¹⁷⁾

4.2.1.2. 팀 켈러의 설교의 한계와 일반적 분석

<표1.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 설교 분석>

켈러의 설교의 한계점 질문	창29:15-35절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	일반적인 해석
1.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인해 본문에서 요구하는 삶의 지향점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1)레아: 예수님을 대망하는 인물 2)야곱: 자기 욕망의 우상에 사로잡힌 인물	1)야곱의 절망과 고난: 복을 내 힘으로 얻으려는 사람에게 임하는 절망 2)레아의 고난: 고난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익이 있었음

216)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105-7.

217) Johnson,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107-9.

<p>2. 본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의미의 속고가 있는가? 해석학적 방법에 우선권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p>	<p>1)뉴욕의 사랑의 욕망과 갈망사이에서 오는 절망을 복음적 관점에서 야곱의 절망과 레아의 절망을 연결하여 다룸. 2)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복음적 관점에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는 절망을 다룸.</p>	<p>1)라반의 속임수 속에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행동을 보여줌. 2)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보다 레아를 통해 복을 주시기 원하셨음.</p>
<p>3. 이성과 논리가 강한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 걸맞는가?</p>	<p>1)지성적인 흐름이 많음. 예)논지 전개 중 C.S. 루이스의 긴 글을 그대로 인용함. 2)직선적인 전개보다 우아하고 간결하기 보다는 구체적이며 감흥적이기 보다는 설득적임.</p>	<p>1)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야곱은 칠일을 채우고, 칠 년을 더 섬기게 된다. 2)고난 중에 찬송으로 이겨내는 레아를 보여준다. 찬송을 부른다. 3)본론으로 진입이 더디지 않음.</p>
<p>4. 본문에 있는 지적인 요소, 의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가 설교 흐름 안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가?</p>	<p>1)지성적 요소: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며, 본문의 흐름과 성경 자체 스토리에 대한 해설은 약함. 2)의지적 요소: 라반과 야곱의 죄를 다루기보다 결혼과 사랑이 타락한 인간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없음을 지적함. 3)정서적 요소: 레아의 불행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한”의 모습은 드러나지 못함.</p>	<p>1)지성적 요소: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는 야곱, 속이는 라반, 야곱의 자녀생산. 2)의지적 요소: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 결혼하여 중혼을 하여 살게 되나 라헬을 더 사랑하며, 7년을 견뎌냄. 3)정서적 요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축복하셨음. 슬픔과 설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p>

<p>5. 청중에게 강력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가?</p>	<p>1)결혼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음을 증거.</p> <p>2)여호와(‘엘로힘’)을 부르며 찬송한 레아를 통해 예수가 오셨다.</p> <p>3)하나님은 레아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셨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마음 중심에서 내려놓아야 한다.</p> <p>4)연약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p>	<p>1)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축복이 보여도 내가 가로채려고 하지 말라.</p> <p>2)라반 같은 속임수를 베푸는 사람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야곱을 변화시켰다.</p> <p>3)고난 앞에서 레아는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p>
<p>6. 변증의 건조함에 빠져들 위험성은 있지 않은가?</p>	<p>1)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끌어올리지 말라.</p> <p>2)레아도 처음에는 나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다. 이런 스스로의 노력이 자기를 소통스럽게 한다. “아침마다 레아(의 상황)를 보게 된다.”</p> <p>3)포스트모던시대 속에서 쾌락으로 무너지는 개인과 가정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임을 전한다.</p> <p>4)가정은 그리스도를 배우자로 삼을 때 죄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p>	<p>1)레아를 중심으로 풀어갈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구속사적 흐름으로 가고, 변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p> <p>2)전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와 적용까지 가기 위해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서, 일반적인 설교자들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p> <p>3)구속사적 설교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우상에 대한 변증적 설교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식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p>

4.2.2. 팀 켈러의 설교분석2

설교2의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노한 판사가 아닐까?”는 지옥에 대한 설교이다. 켈러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 따뜻한 기독교 변증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쉽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종교화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현상에 빠져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삶 자체가 지옥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C.S. 루이스의 말처럼 “지옥은 안으로 잠겨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자신의 선택이 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켈러는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구에서 그나마 선을 행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한다. 또한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변증한다. 절망적인 그곳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이다. 나사로가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도 형제들은 변화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마음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자기 삶을 재조종하지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이다. 갚을 수 없는 “빛”(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유를 통해 예수님의 지옥대신 갚아주신 은혜가 지옥 앞에 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려준다. 그의 설교는 지옥을 설교하면서도, 따뜻하게 마음을 다독이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4.2.2.1 <설교2: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노한 판사가 아닐까?” 분석>

본문: 눅16:19-31

제목: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노한 판사가 아닐까?

<지옥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양립할 수 있는가: 변증적 접근>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개념과 양립하는가?”를 질문한다. “아마도 성경이 표현하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은 비유일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개념은 훨씬 더 무섭고 소름끼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옥을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 교리적 접근>

여러분의 최고선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최고선은 지위와 부가 기초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리새인의 정체성은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것입니다.(바리새인의 정체성은 선하게 살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종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중독을 일으킵니다. 중독은 붕괴시키고, 고립시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영혼이 오래가는 것이 맞는다면, 이렇게 사는 자체가 점점 불행해지고, 지옥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자는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지옥의 문은 안으로 잠겨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지옥은 착한 사람도 가는 곳인가?: 실천적 접근>

지옥의 교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다. 지옥은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부자에게 “애야(son)”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연민과 슬픔이 묻어있다. 비극적 마음도 묻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이는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보복을 막게 하는 하나님의 처벌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구가 그나마 행복하다는 것이다. 만약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지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지옥이 있다는 것이 지구에게 행복을 제공한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정서적 접근>

사람들이 지옥을 믿는 이유는 지옥만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악을 도덕적 삶에 맞춰 재조종하는 것이다. 부자의 형제들은 나사로를 보아도 변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다. 만약 친구가 내 대신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면 옆드려 절할 만큼 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 길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셨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이다. 무시무시한 지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당화시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옥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선택이셨던 것이다. 지옥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준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²¹⁸⁾

218) 팀 켈러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노한 판사가 아닐까?”, <<https://blog.naver.com/osm4709/221231218509>>, “Hell: Isn't God of christianity an angry judge”, <<https://www.youtube.com/watch?v=kMRCjvUXVEo>>, accessed 15 September. 2018.

4.2.2.2 팀 켈러 설교의 한계와 일반적 해석

<표2.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노한 판사가 아닐까? 설교분석>

켈러의 설교의 한계점 질문	눅 16:19-31<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노한 판사가 아닐까?>	일반적인 해석
<p>1.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인해 본문에서 요구하는 삶의 지향점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p>	<p>1)지옥은 끔찍한 곳이다. 2)지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준다.</p>	<p>1)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한다. 2)지옥의 실제적 불행을 묘사한다. 3)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가 온다고 변화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라.</p>
<p>2. 본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의미의 숙고가 있는가? 해석학적 방법에 우선권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p>	<p>1)복음적 관점에서 자신의 선을 누리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고, 2)변증적으로 심판이 있기에 지구에 그나마 사람들이 위안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간다. 3)지옥을 피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이기심을 대변한다. 상상할 수 없는 빛깔을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지옥을 피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다.</p>	<p>1)우리의 상황에서는 본문은 지옥에 대한 실재를 말하고 있기에 지옥 자체에 대한 묘사가 필요하다. 2)천국의 묘사를 통해 이 땅의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전달된다. 천국으로 마음을 위로한다. 3)지옥에 온 부자의 소원은 형제들의 구원이었다. 우리의 상황은 구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p>

<p>3. 이성과 논리가 강한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 걸맞는가?</p>	<p>1)키에르케고르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세우는 위험을 경고한다.</p> <p>2)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에도 심판이 있어야할 이유를 인간의 보복을 막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p> <p>3)지옥에 가기 않기 위해 착하게 산다고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자체가 악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p>	<p>1)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부자가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간 사건은 선을 행하지 않은 악인에게 하늘이 내린 벌로 '인과응보'적으로 통쾌한 이야기다.</p> <p>2)아브라함의 품에 따뜻함과 지옥의 뜨거움을 대비할 수 있다.</p> <p>3)천국의 위로에 대해 전할 때 한스러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p>
<p>4. 본문에 있는 지적인 요소, 의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가 설교 흐름 안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가?</p>	<p>1)지적인 요소: 부자가 바리새인이고, 잘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던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다. 지옥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곳이다.</p> <p>2)의지적 요소: 중독으로 벗어나야 하는데, C.S. 루이스 말처럼 안으로 잠겨있는 곳이 지옥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p> <p>3)정서적 요소: 예수 그리스도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해주셨기에 사랑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지옥은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 존재한다.</p>	<p>1)지적인 요소: 부자의 행태와 나사로의 행태.</p> <p>2)의지적 요소: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다.</p> <p>불쌍한 나사로가 복을 받고, 불쌍한 나사로 앞에서 잔치만 하던 부자가 지옥에 간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할지를 생각한다.</p> <p>3)정서적 요소: 부자의 지옥에서의 울부짖음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비통할 것인가.</p>
<p>5. 청중에게 강력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가?</p>	<p>1)지옥을 벗어나는 것은 행위로 되지 않는다.</p> <p>2)지옥을 벗어날 방법도 없다.</p> <p>3)지옥은 대신 빚을 청산하신 그리스도로 해결된다.</p>	<p>1)죽음이후 세계는 알 수 없다.</p> <p>2)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p> <p>3)여러분은 어디에 갈 수 있는가?</p>

<p>6. 변증의 건조함에 빠져들 위험성은 있지 않은가?</p>	<p>1)지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양립은 가능한가?</p> <p>2)인간에게 선은 없다. 중독으로 망해간다.</p> <p>3)심판이 있어야만 인간의 악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은 필요하다.</p> <p>4)지옥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하다. 인간은 지옥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엄청난 죄의 빛을 갹으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p>	<p>1)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구속사적 설교에서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다)</p> <p>2)성경에 기록대로 지옥은 있는 것이다.(일반적으로 기독교 변증까지 잘 나아가지 못한다)</p> <p>3)16장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부자의 심판은 당연하다.</p> <p>4)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p> <p>5)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은 누구인가?</p> <p>6)복음을 전하여 지옥에서 벗어나자.</p>
-------------------------------------	---	---

4.2.3 팀 켈러의 설교분석3

설교 3의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은 ‘정의’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힘을 가진 사람이나,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켈러는 ‘정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 마음에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힘이라고 증거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선한데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C. 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부패거리’를 만들어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기 원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결코 약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정의’를 구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지도자로서, 율법으로 당시 사회를 장악한 ‘내부 패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마음이 변했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을 장사지낼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켈러는 제임스 에드워드의 주석 내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마가복음 14장에 성찬식에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내 몸을 받으라)고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부탁

하신 성찬을 제일 처음으로 실행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것이다. ‘몸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움켜쥐고,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이다. 몸을 움켜쥐은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저장할 뿐 아니라 자신의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루면서, 그 몸을 받아, 당시 비천하게 여겨지던, 정의 측면에서 소외된 여인들이나 해야 할 일을 대신 하여 시신을 수습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내부 패거리’였던 그는 이제 은혜의 수령자가 되었고, 완전히 ‘내부 패거리’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이다. 은혜의 수령자가 되었을 때, 그는 정의의 대리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켈러는 ‘정의’에 대해 말하면서, ‘정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사랑의 행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4.2.3.1 <설교3: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 분석>

본문: 막15:39-47

제목: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²¹⁹⁾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은 전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을 함께 있게 만들었다. 이 세계는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의 사건에 유일하게 따르던 존재들이었고, 그것을 증언할 유일한 제자가 되었다. 멋진 모습이다.

<내부 패거리로 망가지는 세상: 변증적으로 정의를 이루는 길 보여주기>

C. S. 루이스는 ‘내부패거리’라는 말로, 인간의 본연의 갈망, 곧 힘에 대한 욕망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사람은 ‘내부패거리’가 되어, 자신을 숭배하고, 과시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고, 세상을 망가뜨린다.

219) Timothy Keller, “‘Women, Pagans, and Pharisees’, King’s Cross: The Gospel of Mark, Part 2: The Journey to the Cross—April 1, 2007”, The Timothy Keller Sermon Archive(New York: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2013).

<우리가 원하는 세상: 내부패거리의 변화>

힘을 가진 이들이 힘을 공유하고, 마음을 열고 반기는 것이 정의이다. 사람은 내부패거리이면서도, 마음을 열고 힘과 특권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두 가지 갈망은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 여성을 사용한 힘의 공유>

하나님은 힘이 없는 여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유하시기 원하셨다. 그들을 소외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부패거리를 반대하신다. 정의를 실행하기 원하신다. 사람의 힘으로는 정의를 작동하게 할 수 없다. 물질의 재분배를 꿈꾸었던 소련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말한다.

<어떻게 정의를 세울 것인가?>

성경은 이 힘을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찾는다. 그는 '존귀한 공회원'으로서 부유했고, 바리새인으로서 내부패거리였다. 하지만, 그는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청하고, 장례를 치른다. 그 이유는 비밀히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소름끼치게 자신의 지위, 명성, 재산,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일이지만 실행하고 있다. 내부패거리에서 벗어나 힘을 올바른 데에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고대 근동에서 피를 닦는 더러운 일을 하는 종과 여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품위와 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섹스, 약물, 폭력을 통해 힘을 영망으로 사용한다.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다. 도덕규칙을 지킴으로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삶이 있다.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삶이다.

<정의는 은혜가 세운다: 마음을 어루만지며 행동지향적>

요셉은 다시 태어났다. 예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의 몸을 받았다. 성찬식에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내 몸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그의 장례를 통해, 그의 몸을 받음을 통해, 이제는 마음으로 예수를 더욱 사랑하여 내부패거리를 벗어나서 은혜를 힘입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정의의 대리인이 된 것이다.

4.2.3.2 팀 켈러 설교의 한계와 일반적 분석

<표3.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 설교분석>

켈러의 설교의 한계점 질문	막 15:39-47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	일반적인 해석
1.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인해 본문에서 요구하는 삶의 지향점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1)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여인과 이방인과 바리새인(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2)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사함으로써 성찬을 받은 것입니다.	1)여인들은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2)아리마데 요셉과 같은 당돌한 믿음이 필요하다. 3)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죽음을 더해줄 뿐이었다.

<p>2. 본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의미의 숙고가 있는가? 해석학적 방법에 우선권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p>	<p>1)복음적 관점에서 여인들이 당시 사회에서 하대받는 위치에서 존귀한 위치로의 탈바꿈이 일어나고 있다.</p> <p>2)'내부패거리(권력 안에 머무름을 즐기는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 로마인)'가 지배하는 부당한 사회가 당시 고대근동이었다.</p> <p>3)내부패거리에 있어야할 요셉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사지내고 있다.</p> <p>4)정의를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다.</p> <p>5)내부패거리를 벗어나 예수의 몸을 받아들여 성찬에 참여한 요셉은 은혜를 수용했기에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p>	<p>1)본문은 깊은 슬픔 속에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p> <p>2)장례와중에 믿음있는 사람과 믿음없는 사람이 철저히 대비되고 있다.</p> <p>3)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보다 더 소중한 선택을 하게 된다.</p>
<p>3. 이성과 논리가 강한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 걸맞는가?</p>	<p>1)인간세상은 항상 정의에 대한 갈망과 내부패거리의 욕망이 존재한다.</p> <p>2)변증법적으로, 세상에 있는 내부 패거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지도자가 그 역할을 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공적을 쌓아 힘을 소유했다.</p> <p>3)여성, 이방인, 바리새인은 모두 내부패거리라는 관점에서, 각기 불행한 존재로, 자기 힘을 드러내고 싶은 존재였음을 말한다.</p> <p>4)요셉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여성이 할 일임에도 대신 장례를 진행한다.</p> <p>5)마음의 변화가 내부패거리를 벗어나게 했다. 마음에 은혜가 정의를 세우게 한다.</p>	<p>1)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목하고, 무덤을 주목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p> <p>2)자신의 지위를 걸고, 인생을 걸고, 재산을 걸고, 돌무덤에 장사지내는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p> <p>3)여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여 둔 곳을 보고 있지만, 주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땅의 고난과 슬픔은 주님의 은혜 안에 역전된다.</p>

<p>4. 본문에 있는 지적인 요소, 의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가 설교 흐름 안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가?</p>	<p>1)지적인 요소: 여인은 내부패거리의 외곽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요셉은 내부패거리에 있지만,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p> <p>2)의지적 요소: 내부패거리에서 벗어나 요셉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가족묘에 수습하는 일이었다. 사랑의 행동을 마음으로부터 표현하였다. 이처럼, 은혜를 받고,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p> <p>3)정서적 요소: 예수님의 몸을 수습하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였던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 누려야 한다.</p>	<p>1)지적인 요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 백부장은 이야기했지만, 여인들과 요셉은 장례에 집중하고 있다.</p> <p>2)의지적 요소: 여인들은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고, 요셉도 떠나지 않았다.</p> <p>3)정서적 요소: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고 완전히 죽음 속에 들어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다.</p>
<p>5. 청중에게 강력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가?</p>	<p>1)정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내부패거리로 망가진다.</p> <p>2)사람의 마음은 내부패거리로 가게 되어 있다.</p> <p>3)내부패거리를 바꾸는 은혜가 마음에 임할 때,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p>	<p>1)죽음 앞에 떨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한다.</p> <p>2)세상에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p> <p>3)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걸 것인가?</p>

<p>6. 변증의 건조함에 빠져들 위험성은 있지 않은가?</p>	<p>1)비천한 여인들이 복음에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p> <p>2)인간본연에는 스스로 중요해지고, 구원자가 되고, 신이 되고자하는 마음이 있다.</p> <p>2)C.S.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부패거리이다. 자신을 중심에 두는 방법이다.</p> <p>3)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내부패거리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 없다.</p> <p>4)종교적인 사람도 일종의 내부패거리인데, 요셉은 내부패거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들였다. 그는 예수님의 몸을 잡음으로써 은혜 안에 거했다.</p> <p>5)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은혜로 정의에 서게 되었다.</p>	<p>1)본문에서는 변화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인, 백부장, 요셉</p> <p>2)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p> <p>3)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말로, 태도로,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p> <p>4)하나님이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지 보여줄 수 있다.</p> <p>5)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앞에 사함들의 심정은 처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p> <p>6)무덤 문은 닫혀버렸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변화된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p>
-------------------------------------	--	--

4.2.4 팀 켈러의 설교분석 결과

이상에서 켈러의 설교를 분석했을 때,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우리의 목회적 상황과 문화에 적용하기에는 미비점이 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본문에서 요구하는 삶의 지향점을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서는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켈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하며 한계를 극복하며 나아가지만, 그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적, 윤리적 설교를 멀리하기 때문에, 삶에 직접적 적용을 원하는 우리 목회적 정황에 완벽히 대입되기를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본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의미보다는 해석학적 방법론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목회적 문화에서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주해하면서 강해하여 본문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켈러의 설교는 본문의 맛을 충분히 못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

다.

또한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성과 논리의 흐름이 강점인 그의 설교는 “감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청중들에게 딱들어 맞는 옷은 아닐 수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의 감성의 문화, 한의 문화, 정의 문화, 신명나는 문화가 그들과 같을 수는 없다. 켈러의 설교에서는 청중들의 웃음이 곧잘 눈에 띈다. 하지만 그가 청중에게 주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청중들은 서양과 다른 눈물과 웃음이 있는 해학적 요소가 있으며, 마음을 다독여주는 목회자 의존적인 면도 강함을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본문에 있는 본문 자체의 힘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적이며, 의지적이며, 정서적인 요소의 흐름이 설교 안에서 구현된다고 보기도 어렵게 보인다. 하지만 청중에게 도전을 할 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부분은 상당한 강점이 되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면이 탁월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리의 목회적인 상황에서의 감각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의 따뜻한 지성과 감성이 우리 마음까지 몽클하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변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켈러의 설교가 가진 변증적인 구조는 잘못하면 우리의 청중들에게는 건조해질 수 있고, 본문의 강한 요구를 앞에 두고서, 청중에게 강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 완곡하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시원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적 정황 속에서 변증적인 접근과 감성적인 호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는 답을 찾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켈러의 설교는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하고 있으며, 설교를 통해 그가 얼마나 청중을 고려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본질적인 신앙 정서 (religious affection)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향한 마음은 몇 가지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다. 문제는 켈러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로 만들어내는가에 있다고 보여진다.

4.3.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변용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개혁주의 라인을 따르고 있음과 더불어 그의

설교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하에 있는 이 시대의 세속성의 문제와 반 기독교적인 흐름 앞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조국교회에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였던, “마음(heart)”을 움직이는 설교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가 분명하다. 하지만 감정(affection)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필요성을 알아도 어떻게 설교에 적용해야 할지는 모르기 때문이다.²²⁰⁾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인 “감정주의”가 강한 목회적 상황 안에서, 켈러의 강점을 배우고, 그의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주는 설교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브라이언 채플이 말한 것처럼 훌륭한 설교는 ‘지적 어필’만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²²¹⁾ 그러므로 본 장을 통해서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의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 설교학적 변용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4.3.1. 성령의 조명 안에 있는 설교자

켈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복음 갱신을 위한 사역을 추구하며, 설교가 지적 이해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세속도시 뉴욕의 청중의 문화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리한 논증보다 ‘비유, 메타포,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바울 서신의 명제들보다 예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 사회적 정의’를 향하고 있다.²²²⁾ 그렇다면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살펴보면, 그의 전반적인 설교의 지향이 마음(heart)에 있음을 다시 주목하게 된다. 이처럼 신앙 감정을 살려내는 것은 그의 큰 공헌인데, 그의 감정을 살려내는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앙감정을 살려내며 마음을 이끄는 설교의 변용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가장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다. 말씀증거는 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성령의 역사이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변화와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 설교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양심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정

220)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46.

221) Bryan Chapell,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Grand Rapids: Zondervan, 1992), 36-38.

222) Timothy Keller, *Center Church*(Grand Rapids: Zondervan, 2012), 73-74, 77-78, 123, 327.

신을 배부르게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청명하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열게 하며,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의지를 바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²²³⁾ 그러므로 설교의 첫 단추는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의 조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으로 최홍석은 “신율적 상호성”을 설교의 원리로 두고 있다. 신율(Theonoom)이란, “성령에 의해 의지가 작동되고 이끌리며 의지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다.²²⁴⁾ 설교자는 성령에 의해 이끌릴 때, 자유함 속에서 상호성(reciprociteit)을 통하여 감정의 영역에서 가장 풍성하게 설교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제프리 크로츠(Jeffrey Crotts)는 설교자는 본문해석과 메시지의 풍성한 전달에만 주목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설교의 목적은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청중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설교자는 청중의 변화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²⁵⁾

그러므로 메신저가 본문을 설교하려고 할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이 시작이다.²²⁶⁾ 그럴 때 설교준비부터 설교의 적용까지 효과가 생기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설교자는 단순한 설교 전달자(communicator)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청중의 영혼에 불을 지피고, 마음에 빛을 비추고, 흑암에 가려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창조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확증하게끔 인도하시기 때문이다.²²⁷⁾ 그 뿐만 아니라 메신저에게 본문과 청중해석의 전체 설교 준비 과정에 결정적인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²²⁸⁾ 특별히 성령께서는 설교자의 아프고 상한 감정을 정리하셔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은 구원 받기 이전의 이성적 차원의 조명과 구원 받은 이후의 영적인 차원의 조명이 있는데,²²⁹⁾ 비그리스도인들의

223) Piper, 『하나님을 설교하라』, 30-31.

224) 박태현, “최홍석 교수의 성령론적 설교학-선포와 성령,” 『신학지남』 82권 3호(2004): 159-60.

225) Jeffrey Crotts, *Illuminated Preaching: The Holy Spirit's Vital Role in Unveiling His Word, the Bible*(Leominster: Day One Publications, 2010); 이승진 역,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13), 18.

226) “우리의 이 신앙과 신앙의 확신은 혈과 육 즉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중생 이전이든 혹은 이후이든 간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아무런 공로없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중생시켰음을 고백한다” (The Scots Confession Faith, 제 12조).

227)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박문재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22

228) 박태현, “William Perkins의 설교론,” 『복음과 실천신학』 32 (2014): 157.

229) 존 오웬, 이근수 역, 『개혁주의 성령론』 (서울: 여수론, 1988), 203-205; 류호영, “성경해석에 있

마음에 빛을 조명하셔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빛을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시고, 성도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비추어 주신다.

이처럼 성령의 조명은 설교자의 마음(heart)을 무장시키고, 깊은 내면의 본성까지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만든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은 설교자들에게 뼈아프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표들, 수수께끼들과 비유, 풍유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도 그 마음속에 영적인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신적인 일들에 대해 거룩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으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 예표, 풍유, 수수께끼들과 다른 부분들에 담겨져 있는 영광스러움을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³⁰⁾

설교자의 최고의 위기는 영적인 은혜의 빛이 없이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은 단순한 해석과 본문에 대한 인식 차원과 다른 것이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수술대 위에 서있는 의사의 메스와 같다.²³¹⁾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청중에게 나아가는 전 과정에 성령의 조명을 요청해야 한다. 청중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본문에서 발견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청중을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성령을 힘입어 얼마나 잘 발견하고, 온전히 선포했느냐와 관계있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람의 신앙 감정은 진정으로 어떤 지성과 교훈에 의해 주어진 빛으로부터 일어나지만… 그 감정을 일으킨 빛이 영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 감정은 결코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했다.²³²⁾ 설교자는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 없이 감정을 유도할 수 있고, 영적인 빛을 잃어버린 채 청중을 감동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모른다. 설교자의 인간적인 이해능력의 결핍과 순종의 부실함이 생각보다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설교자는 반드시 성령의 조

어서 믿음과 성령 조명의 역할과 순수 이성 중심의 역사,” 『성경과 신학』 제67권(2013): 377.

230)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Volume 2: Religious Affections*(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정성욱 역, 『Religious Affection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the WORKS,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제 1권, 신앙감정론』(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397-98. 이 책의 제목은 이후 『신앙감정론』으로 한다.

231) Crotts,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 26-43.

232) Edwards, 『신앙감정론』, 263-65.

명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말씀을 듣게 되는 청중 안에서 성령의 조명은 필요하다.²³³⁾ 이러한 성령의 조명이 일어날 때 어떤 화끈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은 다만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며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다.²³⁴⁾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을 통한 “하늘의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이해력과 청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만 하는 설교를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적당한 감흥을 주고, 청중의 영혼을 수필정도의 감동 수준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면, 설교자의 지위는 직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구원의 동아줄을 붙들고 싶어 하는 성도들에게는 불행이 될 것이다. 특별히 성령의 조명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설교자에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설교자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프리 크로츠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기독교인이 성령으로 조명을 받으면 사탄의 노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에게 마음을 여는 양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열의와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죽이겠노라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각인된 성령의 조명에 의한 확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은 자신의 고행만으로 거룩에 이르러자 하다가 율법주의자나 도덕주의자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²³⁵⁾

켈러의 설교의 강점은 설교내용에 있기 보다는 꾸준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다. 그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숨이 막히도록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고백했다.²³⁶⁾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설교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의 능력이 설교자의 약함을 가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이 최고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²³⁷⁾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역자는 영광스럽다.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

233)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서울: clc, 2017), 435.

234) Crotts,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 38-9.

235) Crotts,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 149.

236) Timothy Keller, *Prayer: Experiencing Awe and Intimacy with God*(London: Penguin Books, 2016); 최종훈 역, 『기도』(서울: 두란노, 2015), 32-4.

237) Edwards, 『신앙감정론』, 390-91.

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를 향한 그의 간절함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그 풍성함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령의 조명은 반드시 청중의 마음에 은혜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3.2. 본문의 감정을 반영하는 설교

로이드 존스(Martyn Lloyd Jones)는 설교를 설명하면서 감정사용(the Use of Emotion)에 대해서, 설교자는 의사처럼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만, 설교자들이 지나치게 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감정과 느낌을 경멸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다.²³⁸⁾ 이미 살펴본 대로 현대강해설교자들은 이제는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 설교에 있어 감정을 표현하여 청중을 설득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²³⁹⁾

가장 큰 이유는 본문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를 웃음과 울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본문이 이끌어가는(text-driven approach) 감정에 사로잡힐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본문의 아이디어만을 뽑아내는 뽑기식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 저자가 기록한 본문의 감정(affection)에 붙들려서, 청중을 그 감정으로 어떻게 설득할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개혁주의 설교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독자들이 좋아하는 존 스토틀(John Stott)도 설교에 있어 본문 연구를 통해 펌프로 감정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샘처럼 솟아오르게 하라는 필립스 브룩스의 말을 주장하고,²⁴⁰⁾ 존 파이퍼(John Piper)도 본문의 깊은 감정에 이끌릴 것을 강조했다.²⁴¹⁾ 이렇듯 감정사용은 정당하며, 어떻게 실행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미 지식적 설교에 대한 반향으로 청중을 고려한 신설교학의 태동으로 유진 라우리(Eugene L. Lowry)는 청중의 감정과 경험을 일으키는 플롯 방식의 설교를 제안했고, 데이비드

238)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 Preachers*(Grand Rapids: Zondervan, 1972); 정근두 역, 『설교와 설교자』(서울: 복있는 사람, 2005), 150.

239)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71.

240)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280.

241) John Piper,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2); 전의우 역,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직업인이 아닙니다』(서울: 좋은 씨앗, 2005), 149, 171, 293.

버트릭(David Buttrick)은 대지 중심의 설교보다 청중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는 현상학적인 흐름을 주장하여,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버트릭은 청중의 의식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플롯 형식을 가지고, 통일적 구조를 추구하여 청중에게 반응을 일으키기를 원했다 (현상학적 설교). 문제는 현대강해설교자들은 안타깝게도 이들이 타겟으로 맞춘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혁주의 전통인 “경험”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도리어 이들의 약점인 본문으로부터 멀어져서, 감흥에 편승하는 문제를 낳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감정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어떻게 설교자는 본문 연구 과정을 통하여, 마음에 감각하도록 설교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는 바른 해석과정을 가져야 하는데, 먼저는 D.A.카슨(D.A.Carson)이 말한 것처럼 최대한 자기 주관적 감정을 억제하고, 본문이 주는 감정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 철저하고도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²⁴²⁾ 성경의 거대담론 안에서 그 문맥을 볼 때 본문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감정의 영적 파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 설교자는 감정의 주관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어와 인물을 통해 감정을 도출하고,²⁴³⁾ 본문이 가진 역사, 장르 안에서, 주제, 무드, 톤, 구조, 단어, 관습 등을 살펴서²⁴⁴⁾ 본문의 감정요소를 캐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설교자는 자기감정이 아닌 본문이 주는 감정에 사로잡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해를 토대로, 청중에게 필요한 변화를 위해 설득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감정의 흐름이 청중과 공감이 되도록 자신을 청중의 위치에 두고 설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²⁴⁵⁾ 또한 설교자는 본문에서 나온 핵심 무드를 표현할 단어를 상상하면서, 그 감정을 숙성시키고, 본문의 창 아래에서 그 감정을 해결하는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고, 확신 있게 설교함을 통해 본문의 감정을 청중에게 전달해야 한다.²⁴⁶⁾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 있어서 감정요소는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감정사용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려는 설교자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된다.

242) D. A. Carson, “Recent Developments in the Doctrine of Scripture”, in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ed. D. A. Carson, and John D. Woodbridge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6), 35.

243) Adam B. Dooley and Jerry Vines, “Delivering a Text-Driven Sermon”, in *Text-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ed. Daniel L. Akin, David L. Allen and Ned L. Mathews(Nashville: B&H, 2010) 255.

244) Adam B. Dooley and Jerry Vines, “Delivering a Text-Driven Sermon”, 256-57.

245)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77.

246) Hershanel W. York and Bert Decker,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A Solid and Enduring Approach to Engaging Exposition* (Nashville: B&H, 2003); 신성욱 역, 『확신 있는 설교』(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22.

4.3.3.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설교

설교는 마음을 움직여 변화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위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경험이었다. 켈러도 이러한 선상 위에 서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랑도 생기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 사랑에 모든 것은 녹아버리게 되기 때문이다.²⁴⁷⁾ 현재 한국사회는 “아름다움”에 대해 지극히 “세속화”되어, “물질중심적” 아름다움이 코어밸류(core-value)가 되어 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 사람의 변화는 단순한 지식이 생긴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마음을 움직이며, 삶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²⁴⁸⁾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설교자는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려나온 ‘달콤함과 행복’의 맛을 전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미덕’의 근원을 인간에게서 찾고, 그 안에서 이상적인 미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래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타락한 이성으로 세상을 볼 때, 고난을 보아도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낙심할 때도 내게만 가혹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미덕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진정한 달콤함과 진정한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청중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오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247)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ed. John E. Smith,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200; 이하 예일대에서 출판한 Edwards 전집은 편의상 WJE로 명명하겠다. 김지혁, “Jonathan Edwards의 마음의 감각과 그의 설교학적 미학,” 『복음과 실천신학』 제33권(2014): 43에서 각주 재인용.

248) 김지혁, “Jonathan Edwards의 마음의 감각과 그의 설교학적 미학,” 60.

있지 않을 때는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고, 실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이것도 안해주시는 저급한 하나님으로 생각되어 마음에 낙심을 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생활은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도구화하게 된다.²⁴⁹⁾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새로운 감각”을 단련하여야 한다. 어거스틴이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Tolle lege, Tolle lege)라는 음성을 듣고,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은 후, 회심하였고, 이후에는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청중들을 하나님께 이끈 것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새로운 감각”을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영적 감정을 가져야 한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거룩이 보이는 것 같았다.”²⁵⁰⁾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연습할 때, 삶을 보는 모든 가치관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고, 존재하는 모든 자연 사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설교자가 먼저 이런 눈을 가질 때, 청중도 눈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²⁵¹⁾

그러므로 설교자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도들이 마음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면, 성도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사하며 미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²⁵²⁾ 그렇게 될 때 개인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성령의 은혜가 필수적임을 말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 먼저 은혜 속으로 들어 가야할 것이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가장 큰 아름다움과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설교자부터 먼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연결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켈러는 이것을 위해 구약의 율법보다 나은 그리스도, 인간이 지은 성전보다 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간의 모형보다 나은 그리스도, 인간의 한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희생²⁵³⁾을 일반적인 아름다움과 대조하고,

249) Keller, 『센터처치』, 142.

250) Edwards, *Personal Narrative*, WJE, 16:793; 김지혁, “Jonathan Edwards의 마음의 감각과 그의 설교학적 미학,” 62에서 재인용.

251) Douglas Allen Sweeney and Owen Strachan,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34-37.

252) 김지혁, “Jonathan Edwards의 마음의 감각과 그의 설교학적 미학,” 64.

253) 스티븐 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수원: 더 사랑의 교회, 2017).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에서 반전을 가져오는 요소들이다.

본문에 나온 인물과 사건의 형클어진 모습과 비교, 대조하여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해결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복음의 발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건조하고, 표면적으로 들리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와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영원성안에 거하시는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기도, 그의 제물되심, 그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청중에게 드러내고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설교를 통해 신앙 정서에 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4.3.4.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는 경건한 삶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이 시대 속에 변용할 때, 실천적인 삶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삶이 설교자의 설교보다 중요한 설득이 되기 때문이다.²⁵⁴⁾ 잉글랜드의 청교도와 동시대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항상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뵈는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도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경건한 삶을 강조하였다.²⁵⁵⁾ 안타깝게도 경건은 오늘날 잊혀진 단어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와 신앙의 균형을 잃고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 없이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건”(piet)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였으며, 미국 교회사에 영적 1차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도 중요한 삶의 과제였다.²⁵⁶⁾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일 신학대학원 재학 중의 회심 이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묵상,²⁵⁷⁾ 찬송, 기도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기도는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갔다고 한다.

특히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다. 토마스 왓슨은 묵상을 ‘마음의 행동으로서, 진리를 생각하고, 진지하게 기억하며,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에드먼드 칼라미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불붙도록 그리스도를 생각

254) Augustine, *DDC*, IV.XXVII. 59.

255) W.Guthrie, *Christian's Great Interest*, Free Presbyterian Publications, 1969(orig, 1658), 82; 서창원, “17세기 언약도들의 생활윤리,” 「신학지남」 제328호(2016): 152-53에서 재인용.

256) Jonathan Edwards, “WORKS”, <<http://edwards.yale.edu/archive/?path=aHR0cDovL2Vkd2FyZHMueWFsZS5lZHUvY2dpLWJpbj9uZXZwaGlsby9uYXZpZ2F0ZS5wbD93amVvLjI0>>, accessed 16 October. 2018.

257) 조엘 비키, “묵상의 정의와 본질과 종류”, <<http://bsmilal.tistory.com/1160>>, accessed 17 October. 2018.

하는 것이며, 진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삶에 선행을 수행하게 만드는 묵상에는 '이해, 마음과 정서, 행함의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묵상에 있어서 마음의 기능을 중시했고 그것은 반드시 행동과 결속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추구했던 것이다.²⁵⁸⁾ 위와 같은 청교도 신앙의 영향아래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기쁨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경건을 위한 결심을 하나씩 늘려가며 70가지 결심문(Resolution)을 만들며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다.²⁵⁹⁾ 왜냐하면 그에게 “경건”은 “신실함”(godliness)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의 근거를 찾았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경건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맞는 행동양식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경건을 통해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런 거룩한 교제가 마음(heart)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밀접해지며, 하나님을 닮아가기(conformed) 때문이었다.²⁶⁰⁾ 그의 행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원리대로 사는 것이었고, 결국 그의 경건은 성도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놓았다. 그가 경건한 삶을 주장했던 근거는 성화가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척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며, 경건을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을 통해 주어진 은혜와 공훈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순식간에 외식과 공로주의로 흐를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경건”은 필수적이었다.²⁶¹⁾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단지 도둑이 아니고, 포악자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술주정뱅이가 아니고
 ...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순종적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진지하고, 신앙적이며, 헌신적이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용서를 잘하며, 화평하고, 존경하며, 잘 이해하며,

258) 용환규, “Jonathan Edwards의 실천적 경건의 토대,” 『복음과 실천신학』 제31권(2014): 92.

259) 에스라 성경연구,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 결심문”, <<https://www.ezrabible.net/35>>, accessed 10 October. 2018.

260)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 ed. Edward Hickman(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4), 101.

261) 용환규, “Jonathan Edwards의 실천적 경건의 토대,” 95-96.

자애로우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으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²⁶²⁾

경건을 주의 깊게 볼 이유가 여기 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문제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세상은 악할 수록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세상의 요청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증명(요일2:4) 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숭배하는 것이 우리를 설득하고(이성과 합리성), 그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들며(의지),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여(감정) 추구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신앙감정(affection)이라고 했는데, 스미스는 인간을 신앙감정을 지닌 존재(affective animal)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 이런 열망을 가진 예전적 존재이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욕망”하고, 본질적인 욕망의 방향도 바꿀 뿐 아니라, 기독교가 만남과 사랑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실천중심의 삶을 구현하라고 권면한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얼마나 방향성을 돌려놓느냐의 싸움판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스미스 말처럼, 기독교는 형성(formation)보다는 반복해서 정보(information)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는 정보(information)를 맨틀로 해서, 이제는 형성(formation)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오늘 날 교회는 세속주의 강해지면서, 실천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도 성공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혀 목회가 숫자놀음이 되고, 담임목사 지위가 매매가 되고, 교회 건축 중에 탈루가 생기고, 목회자의 성추문이 끊임없이 터지는 기가막힌 상황이 한국기독교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기독교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적체계”를 갖추는 것만, “실천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경건은 이 시대를 깨울 영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찍이 경건주의운동(Pietism)의 태동이 되었던, 필립 야콥 스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를 시작으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 H. Francke, 1663-1727)의 경건주의,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Graf von Zinzendorf, 1700-1760)의 헤른후트 공동체는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년-1791)의 부흥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경건을 토대로 하였던 청교도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발화되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경건”에서 도출되는 강력한 운동성이 있다.

262) Edwards, 『신앙감정론』, 545.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려는 설교자에게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은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켈러도 경건을 강조하고 있다.²⁶³⁾ 윗필드는 설교자는 ‘학자보다 성인’(saints more than scholars)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truth through personality)이 설교자에게 있어야 할 모범이라고 주장했다.²⁶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은 메신저의 실천과 우선적인 말씀 순종을 토대로 해야 한다. 이런 경건은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열망”하는 경향성을 만들고, 이 시대의 잠자는 공룡과 같은 교회의 야성을 다시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센터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개혁주의의 원리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팀 켈러의 설교는 “복음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삶의 토대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먼저 “경건”을 통해 삶의 토대를 형성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3.5. 드라마로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는 성경의 명사적 의도를 찾는데 너무 익숙하다. 인물, 단어, 사건으로 단순하게 ‘족집게식’ 설교준비를 기계적으로 수행할 때가 많다. 문제는 설교자가 해석에 치중하면서 본문 안에 담긴 성경저자가 기록한 언어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좋은 설교를 만드는 데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려고 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효과를 성경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의 틀 안에서 찾아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실행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만약 설교자가 하나님의 실행의도를 찾고, 청중들이 그 실행의도에 반응하여 움직인다면, 목회자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성령의 동사적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케빈 벤후저는 “성경의 해석이 지향하는 일차 목적은 성스러운 책장(sacra pagina)에서 성스러운 가르침(sacra doctrina)으로 넘어가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263) Keller, 『기도』, 339.

264) 이현웅, “설교,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과 실천』 Vol.53(2017): 91-92.

의미하는 것은 설교자가 성경의 역사적 사실만을 파헤치다가 정작 성도들에게 영적양식을 주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는 지적일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벤후저는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해석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방향성을 가져야지, 얼마나 설교자 자신이 청중 앞에서 지성적인지를 밝혀내는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설교자는 학자의 실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청중의 신앙을 키워야할 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학문적인 과제로 정체되지 않고, 말씀의 의도를 실행하게 하는 일을 사역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신저의 역할은 청중을 움직이기 원하시는 성령의 동사적 의도에 순응하는 것이다. 단순히 신학 사상 체계를 잘 세워진 성스러운 책장을 가진 목회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중 속에 성스러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²⁶⁵⁾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부여하신 성령의 의도를 살려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설교를 지향해야 한다. 만약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머리만 채워지고,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설교의 반쪽 성공일 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립스 브룩스의 말처럼 ‘설교는 효력과 의식 확산’까지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²⁶⁶⁾ 벤후저는 설교는 구원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데, 설교자로서 모든 본문을 언어수행(speech act theory)으로 본다면, 모든 본문은 어느 정도 드라마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성경에 담긴 이야기들이 드라마적이며, 구원으로서의 초대형식이기 때문이다. 성경자체가 화자와 청자를 만들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담화자이며 생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것을 청중들에게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설교학적인 변용점이 된다고 생각된다. 말씀은 듣기에 그치지 않고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수행하도록 전달하는 충실한 배우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²⁶⁷⁾

안타깝게도 현대시대 속에서 설교와 일반 뮤지컬, 연극, TV드라마를 비교해 볼 때, 설교가 생동감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 세대는 읽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 영상시대이다. 이전에는 광고의 한 장면이 3초정도 머물렀지만, 지금은 그 이하로 빠르게 전개되어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성경도 행함을

265) Strauss,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24-26.

266) Phillips Brooks, *Lectures on Preaching: Delivered Before the Divinity School of Yale College in January and February, 1877*(New York: Dutton, 1882); 서문강 역, 『설교론 특강』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187.

267) Strauss,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32-34.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눈을 떴지 못할 숨이 가쁜 공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동감을 이해하고 설교 전에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직접 연극 공연을 시연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 바탕은 성경본문이 공동체와 조우하면서, 어떤 극적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해석해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폴 리콴트가 말한 것처럼 텍스트는 ‘담화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통해 느끼는 감각이 지시로, 지시에서 대상으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텍스트는 냉동창고가 아니라 무한한 어족자원이 있는 대륙붕과 같다.²⁶⁸⁾ 우리는 정경의 틀 안에서, “상상력”을 통해, 성경이 암시하는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여주고, 그 효과가 설교를 통해, 드라마의 형식 속에서 잘 구현한다면 놀라운 설교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드라마로서의 설교를 얼마나 청중에게 울림이 있게 만드는가에 있다. 설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Loquendum ut multi, sapiendum ut pauci, 말이 많더라도 사상은 적은 법이라)²⁶⁹⁾ 설교는 본문이 가진 울림이 설교자에게 나타나고, 그 울림이 청중에게 나타나도록 되어야 한다. 드라마가 시청자의 마음을 훔쳐내는 것처럼, 드라마로서의 설교를 통해 청중의 마음속에 분명한 울림을 준다면 좋은 설교를 구현했다고 생각된다.²⁷⁰⁾

특히 포스트모던세대는 드라마적인 요소에 아주 민감하다. 그들은 매체에 길들여져 있다.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고, 도전받고, 나누고, 변화된다. “설교자의 메시지는 얼마나 그런 드라마적인 반응이 있는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본문의 언어의 동사적 의도가 수행되어 나타날 때, 본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청중 속에 분명히 잘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설교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본문 안에 들어있는 드라마적 요소, 본문의 동사적 의도를 찾아서, 성경저자의 마음을 가지고 연기자로서 성령에 이끌리어 강단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라마로 전달한다면 얼마나 감동있는 설교가 되겠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4.3.6.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화 설교

268) Strauss,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41.

269) Brooks, 『설교론 특강』, 197-201.

270) Strauss,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36-87.

“상황화”(contextualization)와 청중의 마음은 맞물려 있다. “상황화”라는 말은 1972년 WCC의 신학교육기금의 디렉터였던 대만의 쇼키 코(Shoki Coe)가 사용한 말이다. 선교적 전망에 대해 이전에는 “토착화”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보다 신학적으로 적합한 “상황화”라는 말을 제시했다. 이후 “상황화” 개념은 선교학적인 부분만 아니라, 해석학과 신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오게 되었다.

설교에 있어서도 “상황화”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설교는 과거의 마음을 오늘의 청중의 마음에 연결하는 “상황화” 작업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과거에 주어진 본문을 오늘의 신앙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역사적 단층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⁷¹⁾ 그런데 이 “역사적 단층을 어떻게 청중에게 상황화했는가?”는 설교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 속에 존재할 때 의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청중과의 상황화에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정창균의 말처럼, 설교자는 청중이해와 분석을 통해 1)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2)교회와 회중의 정치, 경제, 사회의 관계, 3)특정 본문과 특정 청중의 관계를 살펴서, 청중에게 본문의 의도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²⁷²⁾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맨하탄에서 켈러가 많은 비그리스도인과 회의주의자들을 그리스도께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설교가 청중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이다. 청중은 결코 관객석에 앉은 목각인형이 아니다. 독자반응이론이 말하는 것만 보아도,²⁷³⁾ 텍스트의 해석에서 독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텍스트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은 저자가 아니라 독자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저자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하지만, 텍스트를 청중이 자신에게 전유할 수 있도록 할 때, 텍스트의 의도는 비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C.S.루이스의 말처럼 ‘문학작품의 성공은 저자보다 독자의 반응’이 중요하다.²⁷⁴⁾

그러므로 청중은 목각인형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기여하는 존재인 것이다. 결국 성경본문이 청중의 세계로 넘어가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설교자는 청중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청중도 그 본문 안에 있던 “원청중”과 그 본문을 보던 “그 시대의 청중”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시대의 청중”에 대한 해석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271) Jay E. Adams, *Preaching with Purpose*, 21-41.

272)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9-24.

273) Anthony C.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Grand Rapids: Zondervan, 2009);

김동규 역, 『성경해석학 개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464.

274) Thiselton, 『성경해석학 개론』, 466.

될 때 설교자는 청중을 경험하게 되고,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재상황화, re-contextualization)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과녁없는 타겟을 맞출 수 있는 활은 없는 법이다. 설교의 목적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청중의 변화에 있다.²⁷⁵⁾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중을 파악하는 상황화가 필요한 것이다.²⁷⁶⁾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 복음화를 5%²⁷⁷⁾, 청소년 복음화를 3.8%²⁷⁸⁾인 이 상황에서 올바른 상황화는 절실했다. 그러므로 상황화라고 할 때 설교자는 첫째, 청중의 표면관심(felt need)과 실제관심(real need)의 차이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물질을 모르면 노를 저을 수록 힘이 빠지는 법이다. 세상 문화가 세속적이라고 해서 세속을 모르면, 세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청중의 삶의 애환을 이해할 때 청중의 마음은 열릴 것이다.

둘째,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복음의 공공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성도는 ‘자유’로 부름을 입었지만,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공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을(엡4:13) 살도록 주지시켜야 한다.²⁷⁹⁾ 그러기 위해 설교자는 끊임없는 세상과의 상황화가 필요하다.²⁸⁰⁾ 세째, 자신의 영역을 축복해야 한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하였다. 상황화는 도시자체를 세속도시의 모습으로 보고 적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도시가 번성하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곳이어야 한다. 바울도 선교사역을 하면서 항상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적대적이지 않고, 따뜻한 위로와 환영으로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황화를 해야 할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상황화되어 오셨다는 사실이다. 성육신하셨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삶을 영위하셨다. 그리스도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강단에서 상황화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화는 단지 본문해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청중의 삶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적용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화

275) 정창균 “설교의 상황화와 청중의 설교참여”, <<http://preachershouse.org/%ec%84%a4%ea%b5%90%ed%95%99%ea%b0%95%ec%a2%8c/?mod=document&uid=175>>, accessed 9 October. 2018.

276) Keller, 『센터처치』, 482-485.

277) “청년 복음화를 5%…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674>>, accessed 15 september.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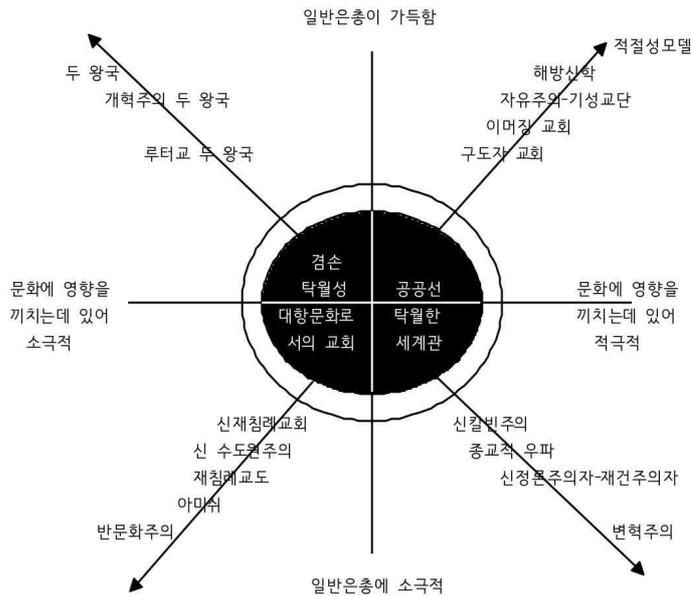
278) “복음화를 3.8%… 우리나라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5195>>, accessed 15 september. 2018.

279) 주정관, “기독교 대학 신앙공동체 실천 연구,” 『성경과 신학』 제 61권(2012): 90, 100.

280) Keller, 『센터처치』, 275-76.

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2. 도시 문화의 상황화>281)



4.3.7.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적용설교

설교에 있어서 설교의 전 과정은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²⁸²⁾ 최홍석은 “도구주의”를 말한다. 설교자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마음을 울리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면, 설교작성에 앞서, 성령에 사로잡힌 도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⁸³⁾ 요한복음 15장 26-27절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라고 말씀하였고, 로마서 8 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281) Keller, 『센터처치』, 484.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에 대한 상황화 4가지 모델이다.

282)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30-33.

283) 박태현, “최홍석 교수의 성령론적 설교학 -‘선포와 성령’(Verkondiging en de Heilige Geest)을 중심으로-,” 165.

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메신저가 성령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증거하기 원하신다.

문제는 “불의 혀(tongues as of fire, 행2:3)”가 있느냐이다.²⁸⁴⁾ 설교자는 레코드판 없이 돌고만 있는 ‘축음기 판’(grammofoonplaat)이²⁸⁵⁾ 되어서는 안 된다. 축음기 판에 레코드가 올라오고, 센서가 닿는 순간,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설교자는 말씀이 올라오고, 위로부터 성령에 사로잡혀 웅장한 소리를 내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 약속한 성령의 권능(막1:10, 골1:28-29, 벧1:12)을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을 원어로 분석하여 보면, “받으라”(πληρωσθε)는 “πληρω”의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다. 성경은 설교자는 반드시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최근 미국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놀랍다. 미국의 칼빈주의(New Calvinist) 부흥 운동을 하는 설교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같이 성령의 면밀하고 치밀하신 주도성에 있다.²⁸⁶⁾ 현재 미국은 복음주의권 청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개신교 십대의 삼 분의 일 정도가 점쟁이, 환생, 점성술을 믿고, 기독교외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48%이며, 개신교도의 64%가 신자들이 종교적이 되거나 영적이 되기 위해 종교 집회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²⁸⁷⁾ 그렇지만 이런 청년들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인 TULIP(Total Depravity(인간의 전적 부패),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제한속죄), Irresistible Grace(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Saints(성도의 견인))²⁸⁸⁾을 믿고 예배자로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이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²⁸⁹⁾ 성령이 임할 때, 황무지가 사론의 평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84) 김지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라: 한국 교회의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성경과 신학」 제61권(2011): 314.

285) 박태현, “최홍석 교수의 성령론적 설교학 -‘선포와 성령’(Verkondiging en de Heilige Geest)을 중심으로-,” 163-65.

286) 박현신, “현대 미국 개혁주의 부흥에 대한 소고: 설교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통권 제325호, 2015): 284-85.

287) Collin Hansen, *Young, Restless, Reformed: A Journalist's Journey with the New Calvinists*(Wheaton: Crossway, 2008); 조현학 역, 『현대미국 개혁주의 부활』(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31.

288) John Calvin,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https://reformed.org/calvinism/index.html>>, accessed 5 september. 2018. Hansen, 『현대미국 개혁주의 부활』, 52-3.

28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3.1.3, 3.1.4, <<https://reformed.org/calvinism/index.html>>. accessed 5 september. 2018.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성령은 환경과 언어와 사람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시19편3절, 4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고 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불사조와 같다. 전적으로 주권적이며, 설교자의 약함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며, 언어의 차원도 넘어서는 것이다.²⁹⁰⁾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님과 한 몸이 되어 사역에 임해야 한다. 설교자가 성령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목적과도 가까워지고, 반대로 성령과 멀어질 때, 로덤나무 그늘에 누운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할 정도로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오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사역을 위해 새로운 기름부음이 필요하고, 설교원고를 다 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가 되도록 기름부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일하심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고전 2장 4절)을 뛰어넘어, 진정한 설득(πειθω)²⁹¹⁾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듯 설교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²⁹²⁾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²⁹³⁾ 그러므로 설교는 단순히 수사학적인 뛰어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존 낙스의 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인 것이기 때문에,²⁹⁴⁾ 철저한 성령의존행위가 설교인 것이다.²⁹⁵⁾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그리로 갔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설교자에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은 성령의 임재 속으로 다가가서 불의 혀를 가지고 강단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약속(행1:8)하셨기 때문이다.

4.3.8. 마음의 우상을 다루는 설교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앙감정론』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물어본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²⁹⁶⁾ 그 이유는

290) Sargent,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79-87; 박현신, “청중을 변혁시키는 설교를 위한 성령의 다차원적 역할,” 『개혁논총』vol.42(2017): 201-246을 참고하라.

291)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425-7.

292) 박현신,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적용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통권 제315호 (2013): 174, 179.

293) 윤종훈, “존 칼빈의 구원 확신론에 관한 고찰,” 『성경과신학』 Vol.80 (2016): 171-72.

294) John Knox, *The Integrity of Preaching*(Nashville: Abingdon Press, 1957), 89; J. 다니엘 바우만, 『현대 설교학 입문』, 394에서 재인용.

295) Hansen, 『현대미국 개혁주의 부활』, 71-101. 에드워즈는 하루 13시간동안 공부하여 1천 4백편의 글을 남겼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하였다. 그는 “종교의 씨”를 “우상숭배의 시작이요, 원천”(initium et fons idolatriae)이라고 하였다.²⁹⁷⁾ 켈러의 ‘우상’에 대한 논지는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루터는 로마카톨릭의 우상행위와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으로 보았다.²⁹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입증 받으려는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사실 이것이 자신이 옳다는 “자기의”의 모습이다. 루터는 이런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영적이며 세련된” 우상숭배라고 하였다.²⁹⁹⁾ 중세수도사들은 자신의 수도원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Nos ipsi fecimus nos, et non Deus fecit nos)³⁰⁰⁾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의 무서움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는 욕구가 있다. 하지만 그 배후의 마음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반역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숭배행위가 되는 것이다.³⁰¹⁾ 그러므로 자신이 옳바르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열성을 가지고 공덕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달랠 수 있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우하고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다. 마음에 의지하고, 신뢰를 두는 곳은 우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감아 먹고, 죄를 쉽게 짓게 만들며, 신앙을 종교행위로 변질시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부터 청중까지 ‘종교의 달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을 쏟고 있는 일을 우상으로 삼아서, 영적인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환영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설교자부터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요목이라고 생각된다.

296) Hansen, 『현대미국 개혁주의 부활』, 74.

297) 강경림, 『칼빈과 니고데모주의』(서울: CLC, 1997), 244-45.

298) Martin Luther, *The Table Talk of Martin Luther*(New York: Dover Publications, 2005);

이길상 역, 『탁상담화』(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124.

299) 강경림, “마르틴 루터의 반우상숭배론,” 『신학지평』 제26집(2013년 12월): 15,24.

300) 강경림, “마르틴 루터의 반우상숭배론,” 16.

301)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구영철

역, 『마르틴 루터의 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94), 181; 이재하, 『루터의 요한신학』(서울: 한들출

판사, 2012), 76; 강경림, “마르틴 루터의 반우상숭배론,” 8-14.

그러므로 우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 보다 훨씬 깊은 ‘죄 아래의 죄’이다. 내면 속 깊이 들어와서 나를 지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영적 우상일 수 있다. 우상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종교인으로 살게 만들고, 내 욕망에 절대 의존감을 가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인 것이다. 우상은 결코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찬탈해버린다.

팀 켈러는 “우상은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⁰²⁾ 특별히 포스트모던시대에 우상은 대중매체와 세속주의 아래에서 더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는 설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켈러는 이러한 우상성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구속사적 설교, 복음설교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우상을 해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을 바꾸고, 존중하는 대상을 바꾸기 때문이다.³⁰³⁾

그렇다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야 하는가?³⁰⁴⁾를 살펴볼 때, 첫째, 설교자는 우상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해야 한다. 둘째, 청중 속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연구해야 한다. 우상이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도 몰두하는 그것, 내 삶에 안식을 몰래 부여하고, 내 행동을 나도 깨닫지 못한 채 정당화시키는 그것, 그것을 행함으로 내게 기쁨이 되고,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결코 우상은 멀리 있는 괴물이 아니다. 우상은 우리 삶 깊숙히 들어와 있는 파괴적인 친구이며, 광명한 천사와 같다. 이것으로부터의 분리를 결정해야 한다.³⁰⁵⁾ 하나님을 삶의 뒷방 늙은이에서 안방 주인으로 우선순위를 돌려놓아야만 한다. 우상은 사람이 하나님만큼 섬기고 싶어 하고 충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상에 대해 맞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결단, 그리고 영적인 용기와 건강한 습관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매혹될 수 있는 마음과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다섯째, 우상은 중독과 같다. 영혼을 갈수록 가난하게 만드는 중독을 끊도록 예배의 프론트 라인에 서서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³⁰⁶⁾ 여섯째, 루터가 말한 것처럼,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도록 좋은 기도문을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럴 때 점점 우상에서 벗어나 마음이 그리스도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드러난 형상으로서의 우상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내면적인 우상의 해결이 중요한

302) Timothy Keller, "How to Talk About Sin in a Postmodern Age",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how-to-talk-sin-in-postmodern-age>>, accessed 28 April. 2018.

303) Keller, 『센터처치』, 148-9.

304) 팀 켈러, “READING 12.1 폐부에 와닿게 복음을 설교하기 강의안”, 16-8. 켈러의 복음주의 설교에서는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305) Keller, 『센터처치』, 155.

306) Timothy Keller, “How the Gospel Changes our Heart”, <<https://vimeo.com/24464885>>, accessed 20 september. 2018.

문제인 것이다.

목회현장에서 치명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내면의 우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 끌려 다니다가, 재산을 다 갖다 주고 나중에 버림을 받는 부모,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집안 전체가 몰락의 길을 걷는 청장년, 성중독에 빠져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통해서만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중독자, 자신의 경력을 이상삼아서 항상 더 높은 곳만 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가정과 신앙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은 신앙을 기만하고,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이상숭배 행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현실의 이상 때문에 영혼의 아픔을 겪고, 삶에 애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해체하는 설교는 크나큰 반향을 불러오고,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적극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⁰⁷⁾

<인정 우상에 대한 기도문: 이상해체구절(사43:1)을 바탕으로 기도하기>

주님 제 마음은 너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두렵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잘되고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잘될 자격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의 불안감보다 더 크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이미 저를 인정하시고, 자녀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나의 상사도, 나의 직업도, 내 월급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심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인정에 매달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주세요. 사람이 보는 눈으로 인정받을 일에만 가졌던 관심보다 이제는, 일 그 자체를 통해 복된 열매를 맺는 것을 즐거워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그릇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인정받기 위해 제 감정을 숨겼던 부분을 공허히 여겨주시고, 제가 부당하게 대접받더라도 나를 항상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고 사랑을 영원히 부여하시는 존재로 믿고, 소중하게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³⁰⁸⁾

V.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위한 목회적 제안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는 경험적 설교임을 이상의 연구를 통해 발

307) Keller, 『센터처치』, 149; 팀 켈러, “Reading 6.2. 마음의 이상 강의안”, 2, 6.

308) 기도문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성구를 바탕으로 하고, 복음적인 방향성을 통해 잊었던 복음을 기억하게 하며, 예수님이 삶에 유일한 기쁨임을 맛보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견하였다. 그의 설교는 구속사적 설교이며, 복음설교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이다. 그는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다. 그에게 설교는 단순히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중심을 맞추어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삶 전체가 그분에게 맞추어져 사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성도의 문제는 지적 이해가 마음의 실재가 되지 못한 것이었는데, 켈러는 이 문제를 주목하여, 자신의 설교에 적용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설교에 되살려 설교 현장에 재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음이 중심이 되지 못한 설교는 우리가 놓쳐버린 크나큰 무기였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말씀이 마음의 실재가 되지 못한 채 설교화가 될 때, 설교는 안개가 자욱한 산길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차에 손님을 태우고 내려가는 위험한 승합차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마음이 고장이 나 있다면 수많은 예배를 참여한다고 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 영혼의 운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없고, 은혜 안에 안식이 없다면 그 신앙은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청중들에게 단순히 지적인 충족을 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신앙적 정서 안에서 자신부터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만약 설교자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설교에 탐닉하고, 청중의 마음을 차디찬 채로 남겨둔다면 결국 청중을 마음이 굳은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³⁰⁹⁾ 설교자의 책임은 그런 의미에서 무겁고도 버거운 일이다. 청중의 운명이 설교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자의 영광과 몰락도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팀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경험적 설교를 통해 마음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으로 정리했고, 켈러의 한계를 살폈으며, 설교학적 변용을 제시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목회적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본 장의 내용은 결코 필자가 잘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려는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에 있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가 목회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 시대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현장 목회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구현할까하는 해석학적, 설교학적인 관점의 제안일 뿐이다.

309) Keller, 『센터처치』, 161-68.

그러나 만약 설교자가 진리를 마음과 통합하여 설교의 구현에 있어서 경험적인 영적 감정(affection)의 효과가 강력하게 재현된다면, 아마도 초대교회부터 말씀과 경험이 통합된 설교에서 나오는 설교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경험적 설교를 통해 설교자는 현장 목회자로서 설교의 영광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어 강단에 서게 될 것이고, 청중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세상 변화의 팡파르(fanfare)를 울릴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의 설교자와 청중은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경험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고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

본 장의 전개는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에 있어서 목회적 적용을 하기 위한 설교의 일반론적인 부분과 설교 작성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일반론적인 부분을 적용하여 설교화 과정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시연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먼저 일반론적으로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적 적용, 설교 방법론적 적용, 청중이해의 적용으로 구분하였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설교자의 준비에서 시작하여, 설교방법론에서도 적용되어야 하고, 청중을 향해서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목회자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설교 작성 과정에서 재현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교 작성과정으로 배열하여, 은혜로운 설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5.1.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위한 설교자적 적용

5.1.1. 경험적 설교를 위한 목회자의 영성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heart)을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8절)라고 하셨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헌신하였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워진 설교자로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워진 마음(heart)”을 가진 메신저로서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렇게 말한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레미야 34장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이라고 하였다. 에스겔도 이렇게 선포한다.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하였다. 그들의 사명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한 메신저였다. 놀라운 점은 그들의 선포는 그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울림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포에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도구를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자에게 우선적인 가장 급한 과제는 ‘얼마나 멋진 설교를 구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느냐’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라고 하셨다.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능력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문제는 이런 설교의 구현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실패하는 데에 있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자신이 받을 영광에 대한 헤아림이 더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한 전달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강단의 위기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단순하고 간결하고 용감하게 전해져야 한다.³¹⁰⁾

하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설교에 대한 연구의 시간과 논리적 구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설교의 전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설교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한 처사일 것이다. 설교의 진정한 시작은 청중 앞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의 마음(heart)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로 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설교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설교자의 마음이 동시에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갖

310) 박건택, 『칼빈의 설교학』, 68.

추어야 할 “영성”이다. 설교자는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은혜가 설교자를 사로잡을 때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영성은 설교자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것이다. 토마스 아켄피스(Thomas a Kempis)는 일직이 그리스도 중심을 영성생활의 뿌리로 보았다. 이처럼 설교자는 본문을 들여다보며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오직 하나님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로 마음이 가득해지는 시간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본문을 보는 눈을 주시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용기 있게 전달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첫째, 설교자의 마음(heart)이 하나님의 것으로 점령되어야 한다.³¹¹⁾ 목회자는 모든 본문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생명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영광에 앞서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영성”이 자신에게 부여해야 할 가장 큰 영광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류응렬은 “설교자의 영성이 살아야 설교가 산다. 설교자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산다. 설교자의 모습에서 영성이 흘러나와야 사람들이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³¹²⁾고 하였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힘도 아니고, 학벌의 힘도 아니고, 소유의 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영성이 임할 때 설교자의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는 청중의 마음도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설교자에게 필요한 영성은 자신과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이터치”가 있는 목회일 것이다. 2017년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해 “시민이 보는 목회자”는 어떤지를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가 말해주는 결과는 목회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의 회복을 자그마치 49.4%의 응답자가 요구하며, 목회자의 영성을 제고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³¹³⁾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상황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 반응하고 있는지는 엄청난 의문부호를 붙여도 더할 나위가 없이 된 것 같다. 물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복음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환상일 것이다.³¹⁴⁾ 하지만 아놀드 토인비는 ‘기독교는 서구적인 장식용품을 벗겨내고, 종교적

311) Augustine, *DDC*, IV. XXVII. 60. “왜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가?”

312) 류응렬, “설교자와 영성,” 『설교한국』 제2권2호 가을(2010): 125.

313) 조성돈,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도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https://cemk.org/8270/>>, accessed 9 October. 2018.

인 독선과 배타성'을 버리라는 충고를 했다. 그만큼 기독교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전부터 위험 경고등이 사회로부터 들려오고 있었고, 한국교회도 동일한 위기의 시대를 지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파고를 견딜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항상 “영성”이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도 영성은 중요한 화두였다. 영성 없이 그들은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었다. 당시는 카톨릭의 중세신비주의와 영성은 서로 연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했지만,³¹⁵⁾ 근본적으로 이 시대는 동시에 ‘영성’과 ‘경건’이라는 말은 잃어버렸고, 둘은 나눌 수 없는 본질적인 요청이다. 더불어 부흥의 환상은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 품어야 할 환상일 것이다.

둘째로, 목회자들에게 영성, 경건은 구체적으로 경험적 설교를 통해 어떻게 영성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godliness)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영성을 추구하는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다.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면,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닮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성은 목회자가 강단에 서기 전, 본문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경험하고, 청중에게 “두터운 은혜”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³¹⁶⁾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경험’은 실종되고, ‘강단의 인기’에 안절부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에게 인기는 부가적이다. 설교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마음으로 경험하여, “강단에서 드러나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강단 아래의 영성은 무시한 채 강단 위에서의 파급력만 생각하는 것은, 설교를 ‘설교 놀이’로 전락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을 향한 마음 때문에 기록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 금욕적인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두터운 신앙심”³¹⁷⁾을 자신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으며, 결국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실천들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덕으로써 표현되기를 사모했다. 칼빈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살았다. 칼빈에게 강단은 영성이 묻어나는 연장선상이었다. 그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르지 않는다면 강단에 오를 때 목이 부러지는 것이 낫다’고 읊으면서 강단을 향했다고 한다.

314) Keller, 『센터처치』, 201.

315) 원종천, “청교도 율법적 경건의 역사적 배경,” 『역사신학논총』 제10권(2005): 87.

316)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ed. Lee SangHuyn(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469-510.

317) 용환규, “Jonathan Edwards의 실천적 경건의 토대,” 94.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속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놓쳤다고 보인다.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자들은 참된 영성으로 새로운 '영성의 페이스'(pace)를 열어가는 '신조류 목회자 군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류응렬의 말처럼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인 설교자들의 영성이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³¹⁸⁾ 그렇기에 청중들이 인정할 만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강단 앞에 서기 전에 마음(heart)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본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오늘날 필요한 설교자이다. 또한 그럴 때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자가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과 따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설교자가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드러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제단이 설교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설교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제단이다. 왜냐하면 말씀과 경험이 통합되는 능력은 목회자에게 나타나야 할 분명한 표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과 경험이 통합되는 자리는 부흥의 자리였기 때문이다.³¹⁹⁾

세째로, 목회자는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 경험적 설교자로서 준비해야 할 모습은 설교자의 마음(heart)이 성령의 기름부음 속에 들어가기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본문 앞에 서고, 강단 앞에 서는 행동은 가로등 없는 길로만 가는 라이트가 꺼진 차와 같다.³²⁰⁾ 말씀은 평범한 활자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은 말씀을 빛나게 하시고 생명을 부으셔서 살아있게 하시고, 운동력을 생산해 주시기 때문이다.³²¹⁾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감추어짐과 더불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임하는 이 두 가지다.³²²⁾ 바울은 고전 2장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고 하였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은 그의 탁월한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이었다. 오늘날만큼 차가운 청중은 없어 보이고, 앞으로도 교회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는

318) 류응렬, “설교자와 영성,” 128.

319) Martyn Lloyd-Jones, *Walking with God Day by Day: 365 Daily Devotional Selections*(Wheaton: Crossway, 2013); 박혜영·정상윤 역, 『날마다 읽는 마틴 로이드 존스』(서울: 복있는사람, 2005), 6/7-/13.

320) E. M. Bounds, *POWER THROUGH PRAYER*(New Kensington: Whitaker House, 1982), 87.

321)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95. 진실한 설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God acting)

322) 임원택, “한국교회와 청교도 설교,” 81.

상황이 될 것처럼 보인다. 목회자의 신뢰도(53.7%)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³²³⁾ 이러한 때에 성령으로 감화된 목회자의 뜨거운 영성이 강단 아래로 흘러가 세상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를 공허한 소리의 울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설교 말씀은 살아있는 어떤 것이며 사람의 구석구석까지 다루실 정도로 우리가 상상치 못할 능력으로 가득 찬 것이다. 나는 설교 효과가 사람의 혀나 소리자체에 달려있기보다는 전적으로 성령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성령께서는 설교되고 있는 설교자의 말씀 안에 이런 하늘의 능력을 만들어내신다.³²⁴⁾

5.1.2. 작용자에 대한 분명한 믿음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 설교자가 되살려 놓아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은 설교를 위한 참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heart)이 담긴 생명책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설교의 근간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The preaching is the word of God)이다.³²⁵⁾ 그러므로 성경은 ‘설교거리’를 찾는 참고서가 아니라 청지기가 위임받은 ‘하나님의 설교문’이다. 성경은 청중에게 이용할 수 있는 언어집합체가 아니다. 성경본문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는 신령한 행위이다. 설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이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과 설교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은 본문과 설교를 통해 믿음을 각인시키고, 건강한 공동체가 탄생하도록 훈련하시는 탁월한 양육자이시다.

많은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것이다. 본문을 하나님의 무게로 재지 않고, 설교자의 무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거나, 설교자의 본문의 의미를 최대한 왜곡하지 않는 수준으로 따라가야 하는 여행 가이드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을 훼방하는 명료한 불손 행위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책이며, 은혜를 맛보기에는 누구나에게 더없이 가벼운 책이다. 하지만 설교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이 전능의 해석자로서 잘

323) 여론조사기관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리서치가 ‘시사저널’의 의뢰를 받은 직업별 신뢰도 조사; 류응렬, “설교자와 영성,” 128에서 각주 재인용.

324) John Calvin, Comm. on Heb, in Calvin, *Hebrews*, 51-2;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61에서 재인용.

325)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서 설교: 빌레몬서 1장 15절-16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 (2015): 89.

못 다가갈 때는 누구도 맞볼 수 없는 오아시스가 되어버릴 수 있다.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의미에 대한 불신’(incredibility toward meaning)으로 가득 차 있다.³²⁶⁾ 포스트모더니즘의 화두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준다.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는 함축된 신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식론적인 문제이며, 텍스트 내용은 독자에게 행위를 더하기 때문에 윤리학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의미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은 인식론과 윤리학적 텍스트성을 뿌리 채 해체시키게 되고, 기존의 모든 해석은 이데올로기적인 해석(권력 중심적인 해석)으로 치부되어 버린다. 예외범절이나 개인 소유의 재산도 권력으로 보아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성경을 적용해보면, ‘저자, 의미, 심지어 상황까지 다 소멸시키는 것’이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이다.³²⁷⁾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같은 역사학자도 ‘국가, 종교, 도덕 등’을 상상의 산물로 만들어 버린다.³²⁸⁾ 오늘날 인문학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철거되어야 할 ‘구시대 유물’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자를 유편가 아닌 폐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해체를 위한 권력욕뿐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해체주의적 시도가 강력해진 이 시대 속에서 설교자들이 본문을 설교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활용 가능한 텍스트로만 위치시켜 놓고 있을 뿐 아니라, 해체주의자들이 말하는 권력의 위치에 서있는 존재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 안에서 설교자는 잘못된 권위자로 보여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해체주의자들에게는 고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허무하고,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말하는 권력으로부터 나온 의미를 부인하는 해석 행위도 결국 진정한 권위를 갈망하기 때문이다.³²⁹⁾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에 대한 권위를 보다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설교를 감당해야 한다. 의미에 대한 해체주의자들의 배후에는 ‘신학의 해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³³⁰⁾ 분명한 것은 텍스트를 만든 저자보다 해석자의 위치가 높아진다고 더 창의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텍스트를 만든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할 때, 더 큰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대항 문화적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확신’에서 설교를 출발시켜야 하는 것이다.³³¹⁾

또한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을 위해서, 저자를 되살려야 한다. 목회자는 영적

326)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25.

327)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34-5, 173-4.

328) Yuval Noah Harari,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New York: Harper, 2015);

조현욱 역, 『사피엔스』(서울: 김영사, 2015), 169-77.

329)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110, 141-43.

330)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79.

331) Keller, 『센터처치』, 313.

인식론을 가지고, 이들을 면밀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기록자를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저자의 사망은 해석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저자의 부활을 통해 해석에 생명을 쏟아 부어야 한다. 특별히 저자를 되살리는 것은 작용자의 마음(heart)을 설교로 구현하는 것이며, 청중은 진정한 작용자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기 때문에 도전과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다.³³²⁾ 믿음은 믿음을 깨우고, 마음은 마음을 깨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경해석은 무신론이 바탕이 되어있음은 전제하고, 설교자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설교에 대한 준비가 믿음의 해석학이 되어야 한다. 니체의 말처럼 세상의 가치는 해석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³³³⁾

그러므로 설교자는 ‘인식론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욕망을 채우는³³⁴⁾ 이 시대 속에서 바른 해석의 길을 보여주는 사명자’가 아닐 수 없다. 해석자가 살기 위해 저자를 죽이는 현대의 탈권위적인 해석학적인 문제 앞에서 작용자에 대한 믿음, 곧 본문을 내려다보게 되는 텍스트로 바라보기 이전에, ‘텍스트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문을 올려다보며 설교에 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설교할 때 영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메시지도 신실해지며, 청중의 마음까지 효과적으로 은혜가 전달되리라고 생각된다.³³⁵⁾

그러므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설교자는 켈러의 말처럼 대항 문화적 메신저가 되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자이신 텍스트를 엄숙히 바라보며, 삼위의 활동(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속죄, 성령의 동행)과 위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³³⁶⁾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 과정 속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도구로서의 설교자³³⁷⁾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시대에 대응하는 분명한 방법은 설교자가 ‘작용자에 대한 믿음’을 마음으로 부터 분명히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선포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단순히 전달의 도구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동족을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는 고통’(행9:1)으로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의 의미는 누군가의 해석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행위 자체까지 관여하시는 작용자의 의지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중요한 설교의 근

332) Thiselton, 『성경해석학 개론』, 318-47.

333)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217.

334)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221.

335) Keller, 『센터처치』, 344.

336)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301, 729.

337) 박태현, “최홍석 교수의 성령론적 설교학 - ‘선포와 성령’(Verkondiging en de Heilige Geest)을 중심으로-,” 164-66.

거가 된다. 데리다의 저자의 부인은 결국 인식론의 문제가 되고, 이것은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도덕과 진리에 대한 상식적인 가정까지 파괴해버리기 때문이다.³³⁸⁾ 그래서 선포자로서의 설교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수행자로서, 하나님의 언어행위 속에 들어가서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여 의미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체시키는 도전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작용자와 함께 하는 선포 속에서 더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말씀의 작용자는 사라지고, 청중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만이 설교의 강조점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러한 설교의 관행은 성경본문이 가진 하나님의 의도를 잇는 하나님 소외가 생기고,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본문의 무게를 잇게 만드는 청중의 소외를 가져오게 된다. 나아가 작용자가 없는 적용 중심의 설교로 흐르면서 교회는 ‘듣기 좋은 설교’를 듣는 강연장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용자에 대한 설교자의 마음으로부터의 확신이 없을 때 설교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작용자이신 하나님”을 되살리는 것이 설교자로서 막대한 사명이며, 자신의 보호막인 것이다. 목회자는 다시 성경본문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바탕 아래, 마음으로부터 겸손하게 본문을 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영적 회생이 필요하리라고 믿는다.³³⁹⁾

목회자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자이며, 대항 문화적 해석자로서, 대항 문화적 메시지를 통해 청중의 영적 감각을 살려내야 하는 경험적 설교자이다. ‘작용자이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의 권위를 스피치같이 빨아들이고,³⁴⁰⁾ 은혜로 세상의 죄를 닦아내는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5.1.3.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의 필요성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 설교자에게 제안하는 바는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과 설

338) 서얼(John Searle)과 데리다는 이 점에서 충돌한다. 서얼은 지식, 의미, 도덕성에 토대가 언어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는 데리다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데리다에게는 저자의도를 결정할 토대가 없기 때문에 지식도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 데리다는 이런 관점 아래 회의주의를 가지면서, 절대적인 확실성과 회의주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서얼은 말하는 자의 의도는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의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341.

339)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39.

340)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41.

교”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마음(heart)을 움직이는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추방된 유배지로 여행을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I discovered a God who journeyed to my place of exile in order to bring me home)³⁴¹⁾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모든 고통을 이 땅과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는데,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유배지를 묵묵히 걸어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복음은 주님이 몸소 우리를 위해 경험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만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만큼 인간의 정체성과 목적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든다. 사람은 귀한 존재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이유가 충분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켰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재건했으며, 그 안에서 행동하고, 새로운 꿈을 상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음을 여러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전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마음(heart)으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말씀과 경험을 통합하여 은혜를 이끌어 올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곧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출발(고후5:17)을 항상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게 되고, 성도로서는 참 예배자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무수한 상처로 트라우마를 겪으며, 존재의 파괴를 경험하며 장벽을 치며 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가장 아름답게 재건하고,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성육신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 안으로 성령을 통해 들어오신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341) Alister McGrath, “Mapping the Incarnation: How the Christian Narrative Makes Sense of our World”, <<https://www.abc.net.au/religion/mapping-the-incarnation-how-the-christian-narrative-makes-sense-/10214346>>, accessed 28 November, 2018.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 우리는 비록 육체가운데 거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녀이며 단순히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돌아보아 낯선 이웃들까지 품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힘든 세상 속에서도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윤정구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들이 여러 사건을 통해 각성되면서 생기는 플롯들이 생기는데, 그 플롯들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삶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게 하고, 일정한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³⁴²⁾ 그런 프레임이 진복(정말 살아가고 이루어야 할 진정한 방향, 사명)을 향해 온전히 나아간다면, 진성 리더(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복을 추구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진정한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하고, 되고 싶어 한다.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물질, 명예, 쾌락이 아니다. 이미 포스트모던세대는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기에 벤후저의 말처럼, 의심의 거울을 들고 매일을 살아간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갈증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인생을 진복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내러티브는 예수그리스도이심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그리스도이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그리스도이고, 따라야 할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시고,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들고, 미래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뇌 화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복지수를 올리거나, 대중적인 환상에 자신을 맞추어 살거나, 불교처럼 덧없음을 깨닫고 감흥 없는 세상임을 깨달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³⁴³⁾ 그는 인간이 네안데르탈인에서 원인을 모를 인지혁명을 통해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는 혁명적 변화가 온 것처럼 앞으로는 과학을 통해 이런 혁명적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과학자들이나 인본주의 역사학자들의 미래상은 냉정하게도 철저히 인간과 과학의 혼합에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인간의 소외와 무의미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비통함은 더욱 늘어갈 것이다. 파커 J.파머(Parker J. Palmer)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삶의 비통함을 경험한 사람(brokenhearted)이 분리되어(broken apart)살기보다, 열릴 때(broken open)보다 나은 삶³⁴⁴⁾을 살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세상의 비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마음속을

342) 윤정구, 『진정성이란 무엇인가』(서울: 한언, 2012), 98.

343) Harari, 『사피엔스』, 530-60.

344) Parker J. Palmer,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New Jersey: Jossey-Bass, 2011); 김찬호 역,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서울: 글항아리, 2012), 21, 57.

향해 이 땅에 우리를 찾아 유배 행군을 떠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인생의 플롯에 진복을 가르쳐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 같기에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 문 바깥에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조각을 발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의 처음 이전부터 계셨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으며, 다시 역사 속에 돌아오실 하나님이다. 이러한 거대담론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 인생도, 죽음도, 절망도, 환희도 예수 안에서 재해석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본문 안에서 전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진정한 행복 속에 살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좌표를 바꾸어주고, 포스트모던세대가 붙잡고 들여다 보아야 할 진정한 거울이며 가장 필요한 내러티브인 것이다.

오늘날 성도는 성공과 쾌락의 사조에 흔들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자살율은 세계 1위이며, 성매매는 세계 2위이다. 통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정말 무엇을 전해야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고,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하며, 성경을 펴서 청중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분을 경험하였으며, 은혜의 말씀은 로마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작업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여행길에 올라 집으로(home) 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있기 때문이다. 켈러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다. 비록 우리의 목회적 환경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모든 설교자가 동일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자로서의 원리로 선택해야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5.1.4. 설교자의 자기 적용의 필요성

휘트필드의 경험적 설교와 부흥운동의 핵심은 은혜의 각성이었다. 그는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다. 이것은 설교자가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려준다. 그것은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다. 은혜가 설교자로부터 흘러야 한다. 단순히 강단에서, 성경 본문의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강의이지 본문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한 것은 아니다. 본문은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강단에 서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부터, 본문을 통해 은혜의 각성을 경험할 때 진정한 설교자로 탄생한다고 생각한다.³⁴⁵⁾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주해와 의미 전달이 아니라, 마음에 각성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변화는 마음의 감각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 본문에서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해돈 라빈슨(Haddon Robinson)은 설교를 정의하면서 강해설교란 본문의 문법적, 문예적,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생긴 성경적인 개념을 “먼저 설교자 자신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고 난 다음 청중에게 적용하는 것”³⁴⁶⁾이라고 했다. 먼저 설교자에게 본문이 적용되어, 설교자의 마음(heart)이 변화를 받을 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성경본문은 설교를 지배하는 능력이고, 은혜의 각성은 그 능력(성령)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증거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말씀과 함께”(cum verbo)의 원리이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해주신다는 의미이다.³⁴⁷⁾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영혼 속에 먼저 파고 들어서 청중에게 나아갈 때, ‘파고든 은혜’와 함께 나아가라는 도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강단의 문제는 설교화 과정에서 목회자의 은혜의 “생략”(skip)에 있는 것이다. 예배당에 오는 청중에 무슨 설교를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본문이 각성시키는 도전에 설교자가 영적 무감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 고갈에 빠지는 것은 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성경본문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의무감으로만 설교하면서 설교꾼으로 전락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칼빈은 ‘만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와 동시에 이해와 깨달음의 안목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일 뿐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³⁴⁸⁾고 말했다. 목회자는 본문을 자신

345) Joel R. Beeke, *Living for God's Glory*(Lake Mary: Reformation Trust, 2008); 신호섭 역, 『칼빈주의』 (서울: 지평서원, 2010), 434.

346)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5-8.

347) Hermann Bavinck,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 John Vriend, 4 vols. (Grand Rapids: Baker, 2004), 552;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4』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540-45.

에게 먼저 적용할 때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청중들의 영적인 눈을 회복하게 하는 ‘치유 받은 의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의 역사가 본문을 통해 먼저 설교자의 심령 속에 전달되는 것이다. 그 때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시작하는 것이다. 본문을 통해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각이 살아나서 내가 깨진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럴 때 은혜의 “생략”없는 설교를 통해 “생략”없는 변화가 청중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롤 허스(Erroll Hulse)의 말처럼 말씀과 은혜 안에 들어간다면 영적 침체로부터의 반작용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³⁴⁹⁾ 그러므로 강단에 설 때 설교는 심리적 압박의 결과물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영적 생명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끼쳐야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자유와 담대함이 사라지고, 청중들을 억압하고 청중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이중적인 심리적인 위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제임스 패거(J. I. Packer)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청중에게 결심하게 하는 모든 접근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헤아릴 수 없는 위해(*incalculable damage*)를 주는 행동’이라고 하였다.³⁵⁰⁾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본문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각성하여, 강단 앞에 서는 존재이지, 자신이 “만든 은혜”의 수여자가 된다면, 그것부터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는 자기 적용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청중이 “말씀과 함께”(cum verbo)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경험적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설교자의 자기 적용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야 할 영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기 적용의 영성이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설교자의 삶에 먼저 은혜가 경험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받은 은혜는 강단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것은 가르침만으로 그치면 공리가 되고, 적용자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독선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만 있으면 식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포함”(involve)하여, 먼저 겸허히 진단하고, 자기에게 해

348) John Calvin, *Comm. Ps.*, 119:18; 이승구, “은혜의 방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신학』 제80권(2016): 86에서 재인용.

349) Erroll Hulse, “The Preacher and Piety,” in *The Preacher and Preaching: Reviving th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ed.) Samuel T., Logan, Jr. (Phillipsburg: P&R, 1986), 70-79; Hershael York, “Avoiding Disappointment Distraction”,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avoiding-disappointment-distraction/>>, accessed 5 October. 2018.

350) J.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Crossway Books, 1994), 163-64.

석의 칼날을 들이대어, 자신이 먼저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설교는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인을 가지게 되고 말 것이다.

설교자는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본문에서 마음으로부터 은혜를 전달받아야 한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목회현장에서 늘 이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이 목회자를 먼저 끌어가게 해야 한다. 말씀은 설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해석에 앞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각성과 도전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목회자는 말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설교자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를 품고, 말씀과 함께(cum verbo) 은혜의 경험에 참여하리라고 생각된다.

5.1.5. 사상(idea)보다 신념체계가 바뀐 내용의 전달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시현하는 설교자에게 중요한 4가지의 원리를 위에서 살펴보았다. 영성과 작용자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설교자의 자기 적용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마음(heart)을 준비시키는 축복의 샘이다. 문제는 설교자가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청중의 감정(feeling)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affection)을 움직이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마음을 움직인다는 점에 있어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설득 요청의 요소가 있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성”에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주관주의에 입각하여 누구나 진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어느 시대보다 개인의 신념이 중요한 시대이고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싶어 한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성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지적한다고 보인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위해 설교자로서 준비해야 할 중요한 마지막 자세는 “신념체계”(belief system)에 대한 것이다. 팀 켈러는 ‘종교에서 세속주의로 옮겨가는 일은 신앙을 버린다고보다 새로운 신념체계와 새로운 신앙공동체로 갈아타는 것’이라고 했다.³⁵¹⁾ 곧 신념체계는 일종의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의 마력과 같은 형태인 것이다.

351) 기독교 변증서인 팀 켈러의 두 개의 책을 참고하라. 『답이 되는 기독교』와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London: Penguin Books, 2015); 최종훈 역, 『고통에 답하다』(서울: 두란노, 2018).

신념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신념체계는 말씀보다 우위에 선 ‘행동결정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념체계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나는 시작은 설교자부터여야 한다.

벤후저는 포스트모더니스트에게 “진리 주장이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화는 그 진리 주장의 설득 효과, 즉 존재하는 신념 체계들의 컨텍스트 가운데서 납득시킬 수 있는 힘에 있다.”³⁵²⁾고 하였다. 청중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움직이려는 전통적 설교의 입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정(affection)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자로서 보다 중요한 점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채 설교하는 것은 ‘수박겉핥기’와 같기 때문이다. 신념체계의 변화는 설교자의 자기적용과 이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기 적용은 말씀을 통해 설교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신념체계의 변화는 설교자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지고 버려지는 변혁의 엔진에 불이 붙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신념체계가 변화된 설교자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청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의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들은 청중들의 요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생존을 위한 목회현장에서는 목회자의 설교 한 번이 목회자의 미래를 걸어차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사소한 필요만을 채워주는 강단이 되다 보면 청중들의 마음에 그 필요가 ‘우상’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과 같이 위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요는 인간의 내면의 욕구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파국적인 신앙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필요에 민감한 설교자만 살아남는 교회의 시대가 된다면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청중의 필요에 민감해야하지만, 청중이 영적 필요에 민감해지도록 자극해야 할 것이다.³⁵³⁾ 그것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설교자의 삶에 먼저 일어난 “신념체계의 파급력”이다.

정갑신(예수향남교회 담임목사)은 설교자로서 청중에게 자신 안에 있는 ‘성공의 우상’이란 신념체계가 변화된 경험을 통해 더욱 설득적이며, 감동을 더해주고 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종말적 현재를 사는 자로 ‘개종’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주님에 대한 현재적 인식과 주님과 소통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신학적 주장이 어느 정도는 나의 현실이 된 것 같다...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삶의 맛이 이토록 깊을 줄 몰랐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 그렇게 깊은 진실인 줄 미처

352)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219.

353) Doriani,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395-403.

몰랐었다.³⁵⁴⁾

나는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교회를 꿈꾼 게 아니라, 성경적이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성공적이고 승리주의적인 교회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생각과 추구가 어떠했든지 간에 현실에 부딪혀 반응하는 내 몸과 세포는 안전과 인정과 통제 등 온갖 자기중심적 이상들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새 포도주인 줄 알았다. 그리하여 옛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갈망을 품었다. 하지만 내가 성도들 중 일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지속적으로 분노했던 걸 보면, 나는 새 포도주가 아닌 게 분명했다. 누군가가 퍼뜨리는 비난이 모욕적으로 들렸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감추지 못했던 게 분명하다.³⁵⁵⁾

누가복음 6장을 설교하는 중이었다. …6장 26절이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나 자신이 ‘한 영혼에 목숨을 거는 목사’가 되려는 열망을 가진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목숨을 거는 목사라는 공명심에 목숨을 거는 목사’가 되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복음적 갱신에 자신을 드리는 목사’가 아니라, ‘복음적 갱신에 자신을 드리는 목사라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목사’였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행한 어떤 성과를 인정받지 못할 때 과도하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자신을 변호하려는 이유는 내가 구하고 있던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석 달 가까운 울먹임과 회개를 통해 다시 작고 확실한 자유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고백이 머리에서 가슴을 지나 손발로 내려온 자유였다. 행복한 깨뜨려짐의 은총이 나를 찾은 자유였다.³⁵⁶⁾

김병년(다드림교회 담임목사)은 정갑신의 글에 이렇게 반응했다. “상황에 따라 자기 이름도 꾸며낼 수 있는 저자의 ‘충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부림으로 인하여 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 말에서 눈물이 솟구친다”³⁵⁷⁾라고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받기 힘든 사람들이 목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목사들은 목회현장에서 수많은 설교의 작성자요, 청취자요, 목회의 눈물을 삼키는 존재들이다. 목회현장에서 상처받으면서, 마음에 굳은살이 박히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에 집중하다보니 설득되는 것이 쉽지 않을 상황 속에 있다. 하지만, 정갑신의 신념체계를 바꾼 변화에 대해 ‘피가 떨어지고, 눈물이 솟구치는’ 마음의 감각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신념체계의 변화는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전염된다. 목회자 자신의 마음의 눈물샘이 자극된 이야기는 청중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청중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갑신의 글은 결코 목회의 성공담이 아니고, 목회 전략도 아니

354) 정갑신, 『답이 되는 공동체』, 25

355) 정갑신, 『답이 되는 공동체』, 111-13

356) 정갑신, 『답이 되는 공동체』, 123.

357) 정갑신, 『답이 되는 공동체』, 4.

고, 자신의 허점이 다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를 통해 내 안에 “숨은 우상”과 일치되는 모습을 발견하며, “나는 무엇을 버려야하는가?”에서부터 “나도 달라져야 한다”는 “신념체계의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기독교 변증의 힘으로 확신있게 청중의 마음에 전달되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아내 케시와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신념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서점에 가는 사소한 문제였지만(켈러는 서점에 가서 책 사는 것이 큰 취미여서 아내가 알고 있는 듯하다), 아내가 애보는 것을 피곤해 할까봐 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를 오해했었는데, 사실은 자신이 아내에게 섬김을 받을 기회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팀 켈러는 이런 “자기중심성”의 사건을 통해 켈러 자신부터 ‘복음이 주는 아낌없이 섬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신념체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 가며 한참 동안 아이들을 봐주고 난 뒤에 나는 마침내 서점에 못 가서 기분이 나쁘다고 털어놓았다. “그랬군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섬길 기회를 거절한 거네요!” 그 순간 펄쩍 들었던 생각은 나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나를 늘 섬기고 싶었다. 그래야 자부심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부류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조작에 가깝다. …이런 사달이 난 본질적인 원인은 교만, 나의 자만심이었다. …내가 아내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는 일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은 결국 은혜를 기반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뭐든지 제힘으로 얻으려고 했고, 누구로부터 그 무엇도 받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어째서 아내와의 관계가 이 복음에 의해서 빛어지도록 말기지 못했을까? 그것은 머리로만 믿었지 마음에서는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한 일이다.³⁵⁸⁾

이러한 신념체계의 변화는 동일시(identification)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동일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같지만 청중을 배려한 쪽에 더 무게를 두었다면, 설교자의 신념체계의 변화는 설교자 안에 있는 비복음적 요소를 찾아내고 우상을 버리는 경험과, 포스트모더니즘 아래 회의주의자들에게는 이런 과정 자체가 기독교 변증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삶의 틀의 대전환은 그냥 허공에 뿌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과 결합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³⁵⁹⁾

이처럼 신념체계에 도전이 되는 설교는 의미(meaning)에서만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부

358) Keller,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68-71, 72.

359)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259.

터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를 행하게(doing) 되는 경험으로서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설교자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영성, 작용자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본문의 자기 적용, 신념체계의 변화는 각기 따로 떨어져있는 설교 일반원리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설교자가 은혜가 경험되는 경험적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이상의 5가지 요소는 설교역사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며 부흥을 일으켰던 개혁주의 설교자들의 영적 무기였다. 그러므로 설교자로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일반 설교학 원리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주의설교나 전달중심의 설교가 아예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와 완전히 거리가 먼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잃어버린 가치였기 때문에 마음(heart)을 되살리는 일이 일반 설교학 원리 속에서 필요한 것이다. 본고의 제안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원리로 바라보지 못했던 5가지 설교자로서의 모습이 앞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제대로 사용된다면, 설교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자로 충분히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5.2.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설교 방법론적 적용

5.2.1. 내러티브를 통해 인격적 채널로서 작용하는 설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방법론의 출발은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종교의 본질이란 “주로 마음의 문제이며 머리에 무슨 영향을 미쳤든지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⁶⁰⁾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청중은 본문 속에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경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과 청중의 만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청중에게 은혜롭게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본문 앞에 설 것인가?가 강단 앞에 어떻게 서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목회자는 설교자적인 준비를 함과 더불어 본문 아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리워 놓은 인격의 “복선”(foreshadowing)을 찾아내는 설교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텍스트는 여러 가지 이야기, 은유, 비유, 예언 등이 숨겨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360)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263.

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본문 안에 있는 “지성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지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원리에 충실하여 “복음의 영광은 복음이 언제나 인간 전체, 즉 의지만이 아닌, 지성만이 아닌, 마음만이 아닌, 의지와 마음과 지성 모두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⁶¹⁾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의 모든 영역 속에 영향을 주시고자 고안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는 청중의 머리와 함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과정의 수행을 위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심도 있는 주해”를 통해 발견해야 한다. 주해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선 앞에 나의 의도를 내려놓고,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경험할 때만이, 청중들에게도 하나님께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⁶²⁾ 설교는 단순한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청중의 인격 전체까지 참여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³⁶³⁾

그러므로 마음을 다루는 설교를 위해서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주는 감동(affection)을 찾기 위해 설교자의 전 인격이 먼저 참여해야 한다.³⁶⁴⁾

“심도 있는 주해”가 필요한 이유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 설교자들은 감정적 차원을 망각하였기 때문이고, 신설교학자들은 감정적 체험영역³⁶⁵⁾을 불러일으키는데 너무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본문을 왜곡하고,³⁶⁶⁾ 목회자로 하여금 바른 주해 없는 효과만을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이미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성보다 감정을 중시하는 경향아래 나온 설교 현상이었고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복음의 적대세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 그 자체에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찾아내기 위해 본문에 드리워진 복선, 즉 “지적 요소, 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를 제대로 발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도 처음부터 살결이 덧입혀지지 않았고, 먼저 뼈부터 들어맞아야 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고, 본문 안에서 의도를 찾아내기 위해 각 요소를 발견하고 서로

361) D.M. Lloyd-Jones, *The Love of God*, Studies in 1 John, vol.4(Nottingham: Crossway Books, 1994), 144-45.

362) Walter Brueggemann, *Word Militant: Preaching a Decentering Word*(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2010); 홍병룡 역,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12), 103-04.

363)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45.

364)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162.

365) F. B. Craddock, *Overhearing the Gospel*(Nashville: Abingdon, 1990), 199-20.

366) D.M. Lloyd-Jones, *The Christian Soldier: An Exposition of Ephesians 6:10 to 20*(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77), 203-03.

맞추어서, 본문의 정확한 하나님의 감정과 흐름을 목회자 자신 안에서 인격화해서, 청중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기 위해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은혜와 마음의 감각은 본문에서 발견해야지 다른 어딘가에서 오기 시작하면, 본문을 자연스럽게 차용하고, 의도를 왜곡하고, 본문을 축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영혼의 운명을 맡은 자이다. 본문의 텍스트는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불과 빛이 나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성경을 들고,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설교만을 하려고 한다면, 지극히 인간중심적이고, 흥미중심인 설교에 빠지게 되고, 마치 인기를 위해 먹고 사는 설교꾼처럼 존재하게 될 것이다.³⁶⁷⁾ 이런 모습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³⁶⁸⁾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마음을 움직이려는 설교를 할 때, 결국 본문과의 씨름(wrestling)이 있어야 한다. 본문은 본문이 가진 “본문력”(textual power)이 있기 때문이다.³⁶⁹⁾ 본문력은 본문에 이끌려 설교하는(text-driven preaching)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텅 비어버린 시대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느끼는 시대가 오도록 외쳐져야 한다.³⁷⁰⁾ 그럴 때 본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하심을 청중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녹여 들여보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³⁷¹⁾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본문 주해를 통해 먼저 말씀이 내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 파티”(Word-party)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서의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청중에게 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인격적 만남을 배제한 설교는 하나님의 감정(affection)을 해산하지 못한 채 항상 피로도가 축적되고 말 것이다. 반면에 말씀 파티가 되면 항상 마음에 끌림이 있는 것처럼, 설교자는 말씀이 주는 흥분과 감격, 그 흐름 속에서 맛보는 즐거움 때문에 청중 앞에 서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평안하게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67)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206.

368) Keller, 『센터처치』, 136.

369) 김대혁,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 (2015): 46.

370) John M. Frame, *Cornelious VANTIL: An Analysis of His Thought*(New Jersey: P&R, 1995), 53-5.

371) 해돈 라빈슨은 본문의 무드 (textual mood)는 성경 저자의 감정과 그의 기록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설교 작성을 위한 주해와 해석학은 반드시 설교의 무드(the sermon's mood)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Haddon W. Robinson, “Homiletics and Hermeneutics,” i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ed. Scott M. Gibson(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71-2.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본문과 떨어질 수 없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려 넣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 요소를 발견하면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목회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먼저 파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선도적 경험자’(pre-experienced)가 되어서, ‘인격적인 채널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경험적 설교는 본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을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감동만을 주느냐의 문제가 우선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³⁷²⁾ 본문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인격의 복선이 있고, 목회자는 “심도 있는 주해”를 통해 하나님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를 발견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할 것을 제안해본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지성적 요소에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정서적 요소에서는 본문에 수반되는 단어, 낱어, 문장, 사건, 의미에서 받는 정서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더불어 의지적 요소에서는 본문이 주는 도전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이 세 가지 요소를 찾은 후에는 이를 토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상상하고, 그 마음을 설교자는 마음에 품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문장이 본문의 말씀과 일치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주신 말씀이 가진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사로잡혀서 불붙는 마음을 소유하되, 설교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격과 성경의 전체 맥락과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5.2.2. (설교문을 작성할 때) 설교구조가 선명한 설교

성경은 두루마리에 적혀서 전달되었다. 설교는 수다로 전달되지 않았다. 설교는 인간의 입을 통해 전달되지만 성령을 통해 전달되는 빛이다. 만약 설교가 누군가에게 경멸되게 전달된다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8장 16절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아무리 맛이 있는 스테이크도 접시에 담아야 하고, 먹을 수 있게 잘라놓아야 한다.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불이지만, 청중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집어 입을 수 있도록 두루마리로 기록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의 애굽의 모든 학문이라는 기초를 사용해서 하

372)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295.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허공에 떠있지 않고, 두루마리에 적혔다. 불붙는 시내산에 하나님은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했다. 그만큼 성경은 엄위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담도록, 청중의 심장에 분명히 새겨지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를 훼손됨 없이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를 배려한 하나님의 마음 전달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구조”를 통한 설교방법이 있어야 한다. 높은 건물일수록 탄탄한 구조가 있는 것처럼, 청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는 탄탄한 기초 구조공사가 필요하다. 어떤 목회자는 좋은 설교란 적어도 성도를 울리거나, 웃기거나, 회개하게 하거나 셋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설교를 잘한 것이라고 한다.³⁷³⁾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특별히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청중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달 방법인 “구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루카스 크라나흐의 『마틴 루터의 설교』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위치시키고, 한 손으로는 성경을 잡은 설교자(마틴 루터)가 반대편 손으로는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그림 속에 있는 청중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옷자락은 허공에 펄럭이고 있다. 이 그림은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째, 설교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옷이 펄럭거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며,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일하심을 드러낸다. 둘째, 성경의 주제와 내용은 그리스도이고, 이것은 설교의 주제와 내용 속에서 일치되어야 한다. 셋째,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한다. 설교자는 회중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지 않고, 회중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인 것이다. 넷째, 회중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회중의 얼굴은 다양한 계층이지만, 그들의 연령, 환경,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해답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그림에도 말하고자 하는 구조가 있다. 소설에도 구조가 있고, 영화에도 구조가 있다. 의도는 행동을 이끌도록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Clowney)는 설교자의 설교모델에³⁷⁴⁾ 대해 설교자는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도덕주의 설

373) 박영재,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 162.

374) Dennis E Johnson, *Him We Proclaim: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s*(Philipsburg: P&R Publishing, 2009), 230-231; 김대혁, “본문성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제42권 (2017): 20.

교, 예표론적 설교, 풍유적 해석, 구속사적 설교” 등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설교는 설교자가 전달하려는 의도는 구조화되며, 설교의 전달효과도 준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려는 설교를 할 때, 목회자는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설교의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³⁷⁵⁾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설교의 내용만을 고심하다가, 설교의 통일성을 놓쳐버리고, 저격수처럼 정확한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탄총으로 ‘어디 한 군데라도 맞아라’는 마음으로 설교할 때가 있다. 문제는 아무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청중의 마음을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려면 촘촘한 그물 설계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매번 하늘에서 통채로 설교가 내려오지도 않기 때문에, 청중으로 하여금 말씀을 귀기울여 들으며 말씀에 배부르도록 준비해야한다. 데이빗 듀엘(David C. Deuel)은 “설교 전에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들 중 하나는 설교 메시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일”³⁷⁶⁾이라고 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만 읽지 말고, 구조를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한결 수월하게 설교를 구성하여,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도 절약하고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게 된다.

대부분 설교자들은 설교구조를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주해 후 설교로의 전환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큰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분들은 주해하고 묵상한 후에 곧바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조로 묶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불경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건물에 뼈대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뼈대가 있고, 구조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바울의 편지도 당시 헬라의 양식이 들어있고, 다윗의 시편도 히브리시의 다양한 표현법에 기초되어 있다.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의 청중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실한 건물일수록 언젠가는 사고가 나는 것처럼, 구조가 없는 설교는 반드시 언젠가는 강단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설교 과정에서 맥락을 놓치는 실수를 하거나, 본문의 의도를 빠트린 상태로 끝마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전락하고 강조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375)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168; Robert Plummer, Benjamin Merkle, *40 Questions About Interpreting the Bible*(Grand Rapids: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10); 김현광·조충현 역, 『성경을 여는 40가지 질문』(서울: CLC, 2012), 291-451;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Grand Rapids: Eerdmans, 1999); 김진섭·류호영·류호준 역,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이레서원, 2009), 419.

376) D.C.Deuel, “Expository Preaching from Old Testament Narrative,” in John MacArthur, Jr. (ed.), *Rediscovering Expository Preaching*(Dallas: Word, 1992), 277-78.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돈 라빈슨은 “최상의 설교 형식으로서의 실체는 없다. 설교들은 다양한 형식들을 취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설교 형식은 없다.”고 하였다.³⁷⁷⁾ 성령이 이끄셔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돈 라빈슨이 설교의 구조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은 성경은 일원화(single form)된 설교구조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설교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에 맞추어 일정한 구조는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존 스토틀트는 ‘우리 접근법이 시각적이든 논리적이든 우리 의도를 전달하려면 어떤 일정한 구조로 정돈되어야 한다’³⁷⁸⁾고 했다.

물론 설교의 구조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설교자에게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문학적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씀을 자신의 의도를 위해,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구성이 이미 문학적 양식과 문학적 구조와 문학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의 구조 없음은 본문의 수행성을 멀리하는 것과도 같다.³⁷⁹⁾ 그래서 본문의 목적과 설교의 구조와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 균형 있는 짜임새가 필수적이다.

특별히 이렇게 구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포스트모던의 특징이 다양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성 앞에 전통적인 3대지 설교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지루한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설교 패턴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청중도 따분한 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본문이 항상 3대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같은 패턴으로 전달될 만큼 본문이 단순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못 설교자의 설교패턴은 본문의 흐름을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달과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설교 열개를 잡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식당에는 일정한 맛과 멋과 분류가 차분히 되어 있어서, 손님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설교의 구조와 은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설교의 구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본문을 주해하는 과정을 약화시키고, 설교 준비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설교하고, 무엇

377) Haddon W. Robinson and Torrey W. Robinson, *It's All in How You Tell It: Preaching First-Person Expository Message*(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10.

378)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113-4; John R. W. Stott, *I Believe in Preaching*(London: Hodder & Stoughton Religious Books, 1998); 원광연 역, 『설교론』(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244.

379)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504. 텍스트는 조형된 질료이다. 저자는 문학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학적 양식에 주목해야 한다. 윤용현,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구조 연구: 혼합적 구조”(박사학위,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5), 54-5.

을 설교하고, 어떻게 설교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목회자가 전달하고 싶은 성경저자의 원래의 의도 전달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설교구조를 통해서 청중의 집중력도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조금의 불편함 때문에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설교구조의 포기는 더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는 또 다른 설교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교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다.³⁸⁰⁾ 이러한 형태 속에서 목회자들은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의 목회적 상황에 맞는 설교의 구조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귀납법과 연역법, 그리고 혼합적 구조(연역적 구조와 귀납적 구조를 함께 사용한다)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식 설교를³⁸¹⁾ 예로 들 수 있다. 장르로서의 설교도 따라갈 가치가 있다.³⁸²⁾ 중요한 것은 본문이 가진 내용에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설교구조는 로이드 존스의 설교구조라고 생각된다. 로이드 존스는 “중심주제 지적-주의 깊고 세심한 정의-상세한 확장설명-결론진술(합축적 호소를 쌓아가다가 힘이 들어감)이다.³⁸³⁾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권면한다. 앤디 스탠리(Andy Stanley)의 “나-우리-하나님-당신-우리”의 구조를 들 수 있다.³⁸⁴⁾ 1)나: 주제소개. 나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 청중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공감대를 이끈다. 2)우리: 동일시.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라는 의식이 생긴다. 3)하나님: 조명.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해소시킨다. 성경과 청중을 만나게 한다. 4)당신: 적용. 깨달음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도전한다. 청중분석이 필요하다. 5)우리: 영감. 감정에 불꽃을 일으키기. 비전제시. 교회, 사회, 가정에 성경적 방향을 제시한다.

폴 스콧 웰슨(Paul Scott Wilson)은 자신의 ‘네 페이지 설교’의 구조를 이렇게 제시한다. “성경 본문 속의 문제-우리 세계 속의 문제-성경속의 은혜-우리의 세계 속에 있는 은혜”이다³⁸⁵⁾. 그는 인터넷 웹페이지처럼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설교를 지향했다. 1)성경 본

380) 류응렬, “최근의 설교학(New Homiletics),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99-304.

381) 백동조, “적용이 있는 효과적인 이야기식(Narrative) 설교 연구 = A Study of Effective Narrative Preaching Methodology With Applications”(박사학위,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2), 63-77.

382) 권호, 임도균, 김대혁, 박현신, 『새강해설교』, 144-180.

383) Peters, 『마틴 로이드 존스 평전』, 109-10.

384) Andy Stanley, *Communicating for a Change: Seven Keys to Irresistible Communication* (Multnomah: Multnomah, 2006); 김창동 역, 『최고의 설교자를 만드는 설교 코칭』(서울: 디모데, 2007), 155-70. 미국 노스포인트 커뮤니티교회(North Point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385)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Nash

문 속의 문제: 브라이언 채플의 FCF와 유사하다. 2)우리 세계 속의 문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애로점과 사회적 영역 안에서 개인의 내적인 어려움과 인간의 공로의 한계를 보여준다. 3)성경속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함을 통해 청중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빠져들도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한다. 4)우리의 세계 속에 있는 은혜: 사명을 제시한다.

그리고 맥스 루케이도는 8단계구성을 가지고 있다. “1단계 someone, 2단계 I, 3단계 He 1,2,3,4,5,6..., 4단계 We, 5단계 Jesus, 6 단계 Someone, 7단계 Jesus, 8단계 Jesus”³⁸⁶⁾이다. 1.Someone: 해결책 되신 예수님과 비교하고 대조할 한 사람을 소개한다. 2.I: 그 대상과 설교자가 유사함을 드러낸다. 3.He1,2,3,4,5,6: 설교자뿐 아니라 성경 인물과 여러 사람의 실례를 소개한다. 4.We: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 5.Jesus: 해결방법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제시한다. 6.Jesus: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밝힌다. 7.Someone: 처음 소개한 사람과 예수님을 다시 비교한다. 8.Jesus: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

유진 라우리는 “평행뒤집기-모순분석-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기-복음을 경험하기-결과를 예상하기”의 5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³⁸⁷⁾ 그는 의성어로 5단계를 각기 정리했다. 1)웁스(Oops!) 2)우(Ugh!) 3)아하(Aha!) 4)와(Whee!) 5)예(Yeah!). 이처럼 일정한 틀을 가지고, 설교자가 정말 전하고 싶고,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청중에게 설교한다면, 설교를 통해서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은혜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설교에 있어서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인지를 본문의 흐름에 맞게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마음에 와닿는 경험적인 설교가 될 뿐 아니라 설교의 준비에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ville: Abingdon Press, 1999); 주승중 역, 『네 페이지 설교』(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17-26, 46.

386)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146-49.

387)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1);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 구성』(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38-39. 라우리는 그의 책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에서 4단계 이론도 제시했다. “갈등-심화-갑작스런 변화-해소” 복음은 심화, 갑작스런 변화, 해소 전 단계 등에 들어간다. 유진 라우리, 주승중 역,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설교』(서울: WPA, 2008), 119-24. 그의 설교에 대해 권성수는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열린 결말을 주었고, 삶의 변화를 위한 확신 있는 도전을 줄 수 없으며, 공동체적인 삶을 이끌어갈 윤리 도덕적 입장을 세우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였다. 권성수, 『성령설교』(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6-38.

5.2.3. 거대맥락을 고려한 드라마 단위의 설교

설교자가 본문을 다룰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은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 주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본문이 가진 경험성을 살리는 설교방법론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되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해야 할 점은 본문 안에는 분명히 역동성 있는 스토리가 있으며,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청중이 움직이기 원하신다. 문제는 본문이 가진 동인이 설교화 과정에서 모두 사라져 버릴 뿐 아니라 설교자도 강단에서 원고에 묶인 상태로 설교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설교자와 청중이 같이 호흡하며 움직이기 원하셨다. 그렇다면 청중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중에게 전달할 것을 놓쳐버린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이들은 청중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사회와 환경과 사람의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전달자의 오류”도 계산해 넣어야 한다. 하나님은 변화를 위한 텍스트를 주셨는데, 텍스트가 설교자에게서 멈춘 채 청중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역동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벤후저는 성경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시119:105)이지만, 스위치를 어떻게 키는지, 그 빛이 얼마나 멀리 비추는지 논쟁이 있음³⁸⁸⁾을 지적했다. 그만큼 은혜로운(*sola gratia*) 전달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본문의 동인이 발견되지 못하면 설교는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 안에 하나님이 청중에게 일으키기 원하는 변화의 마음을 찾아서 청중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움직이게 해야 한다. 본문에는 신앙의 유일 원리(*sola fidei regula*)로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가 있다.³⁸⁹⁾ 아무리 좋은 차도 기어가 맞물리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본문 안에 있는 동력(*power*)의 마음을 찾아서 설교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드라마로서의 설교를 제시한다. 본문을 평면으로 바라보기보다 공감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본문을 드라마로서 바라보면서, 등장인물과 각 사건의 진행을 고려하여, 공연하는 것처럼 설교자가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설교로 풀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 자

388) Strauss,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21-22.

389)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319.

체가 역동성을 품은 드라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로서의 설교는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³⁹⁰⁾ 벤후저는 이미 감흥을 위한 설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성경은 감흥기준이 아니라 본문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벤후저가 말한 것처럼 설교가 매번 공연으로 올라 올 수는 없을 것이다. 연극으로 강단에서 매번 시연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설교자가 설교를 연기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기와 설교는 다르다.³⁹¹⁾

그러나 드라마적인 설교는 본문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의 역동성을 설교로 구현해 낸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설교 원고는 살아있어야 한다. 텍스트가 설교자에게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원고도 살아있는 메시지로 드러나고, 설교자도 살아있는 말씀의 전달자로 청중을 행동하게 해야 한다. 정보를 전달하고, 적당히 들리는 설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청중의 마음에 감각하여 행동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드라마로서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드라마 자체가 몰입과 생생함의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성경 본문 안에 처음 기록될 때부터 심겨진 요소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생생하게 살게 만드는 드라마로서의 설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성경 본문은 본문 안에 분명히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오스틴(J. L. Austin)은 이렇게 말한다.

말을 발화하는 것은 보통 내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진정 하나의 선도적 사건(leading incident)이거나 심지어는 유일한 선도적 사건이며 또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발화의 목적이기도 하다.³⁹²⁾

그렇다면 설교자들은 어떻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다운 설교를 강단에서 구현하고, 성경적이면서, 정경적 틀 안에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³⁹³⁾ “언어행위이론”(Speech-Act Theory)³⁹⁴⁾을 바탕으로 이하에 제안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청중들에게 부합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방식은 언어행위이론을 토대로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단순하고,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90) Strauss,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27.

391) Stanley, 『최고의 설교자를 만드는 설교 코칭』, 174.

392)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김영진 역, 『말과 행위』(서울: 서광사, 1992), 29.

393) 벤후저는 참여, 평가, 전진의 핵심개념으로 드라마를 구성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참여는 저자의 의미되는 행동을 보고, 평가는 그 행동에 대한 칭찬과 비난을 결정하고, 전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Strauss,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47-85, 286.

394) 오스틴과 서얼의 언어행위이론.

언어행위이론은 이런 것이다. “유턴(U-Turn)주의”라는 글자를 볼 때, 그 글은 곧바로 마음의 의도를 알아채게 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의도를 실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본문이 원하는 실행의도를 얼마나 설교 속에서 드러내는가에 핵심이 있다.

언어행위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스틴이 말한 것처럼, 1) 발화행위(locutionary action, 단순발화): 음성이나 문자로 표시된 언어 행동, 2)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ion, 의미수반발화): 단순발화 행위를 하면서 나타나는(관습적) 힘, 3)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ion, 효과수반발화): 의미수반발화 행위가 불러일으키는(인과적) 행동³⁹⁵)이다. 예를 들어 ‘유턴주의’는 단순발화 행위이고, 텍스트를 보고 깨달은 의미 ‘경고’는 의미수반발화가 되며, 누군가 그 곳을 조심해서 지나가게 되었다면, 효과수반발화가 되는 것이다.

설교로 볼 때는 단순발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문이고, 의미수반발화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효과수반발화는 그 의도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다. 그러므로 언어행위이론에 따르면, 설교란 본문을 다시 설명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청중들에게 재시연(re-performance)되어 삶에 본문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³⁹⁶) 이것은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 혹은 의미를 적당히 뽑아내는 것보다는 얼마나 성경본문이 가진 정밀한 정경적, 제도적 사실 안에서,³⁹⁷)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행위적인 측면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원하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설교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드라마로서 준비할 것인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먼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령의 의도를 주해과정에서 잘 발견해서, 본문이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본문이 가진 효과 속에서(본문의 정황과 단어, 역사, 제도 등) “증강”시켜 청중의 마음속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을 드라마로 구성할 때 핵심은 본문에 있는 행동지향성(force)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청중 안에 일어나기 원하는 설교자가 원함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찾고, 그 행동지향성에 따라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전통적 해석처럼 본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³⁹⁸) 이처럼 행동지향에 대한

395) Anthony C. Thiselton, *New Horizons in Hermeneutics*(Grand Rapids: Zondervan, 1997): 최승락 역, 『해석의 새로운 지평』(서울: SFC, 2015), 406, 427;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빌레몬서 1장 15절-16절을 중심으로,” 91-2: Austin, 『말과 행위』, 128-29.

396)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빌레몬서 1장 15절-16절을 중심으로,” 93.

397) 이태호, “예수와 사회정의: 마가복음 11:15-17,” 『성경과 신학』 제61권(2012): 243.

398) Austin, 『말과 행위』, 130.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설교는 본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따라 전달해야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를 가리켜 “성령의 지체”³⁹⁹⁾라고 했고, 설교를 이론이 아닌 행동 지향(action-aimed)으로 보았고,⁴⁰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확신 때문에 목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의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어행위이론을 통해 행동을 추구하는 설교의 방향성은 개혁주의 신학 위에 있는 것이다.⁴⁰¹⁾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설교가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로서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로서의 반전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반전은 이미 성경의 거대담론 안에서 구속사 사건으로 설교자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왕 되심은 극적 반전 효과를 주기에 탁월하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감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드라마로서의 설교는 감흥주의로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더 분명히 드러내서 마음에 감각하게 하는 것이다.⁴⁰²⁾ 그러므로 드라마로서의 설교는 ‘행동지향’, ‘구속사의 반전’을 기본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드라마로서의 설교로 구성할 때, 구체적인 ‘설교틀’을 4단계로 이하에 제시해본다. 먼저는 “나와 도전을 주는 본문”의 구도를 가질 수 있다. 그 구도 안에서 도전을 받은 본문의 사건을 진술하며, ‘나’는 영적인 힘의 도전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의 구도이다. 이것은 바울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던(롬7:14-25) 모습과 같다. 이미 알았던 것인데 놓쳐버린 복음의 각성을 통해,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되 끊임없이 변화의 요청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보여준다.⁴⁰³⁾ 그리고 드라마로서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실존인물로서의 고뇌”인데, 존재하는 자로서의 고뇌가 부각되어야 한다.⁴⁰⁴⁾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이기도록 “초월하게 하는 힘”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존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⁴⁰⁵⁾

399) Wallace,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174.

400) John H. Gerstner, “Calvin’s Two-Voice Theory of Preaching”, *Reformed Review* 13 (1959), 19; 박현신, “John Calvin의 목회적 설교에 나타난 적용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복음과 실천 신학』제28권(2013): 99에서 재인용.

401) Wallace,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190.

402) 이승진, “반전의 깨달음을 위한 설교 플롯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46호(2015): 130.

403) 김현광, “로마서 7:14-25절과 그리스도인이 현재적 삶,” 『성경과 신학』 제61권(2012): 353-59.

404) 티슬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아가 가진 윤리적 목적, 곧 “선함”이라는 바탕과 리 퀴르의 “정의로운 제도”안에서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한 삶 안에서 자아는 ‘레비나스의 자아를 책임있게 소환하는 “타자”(자신을 위해 타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를 통해 안정된 자아(윤리적, 종교적)로 존재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Thiselton, 『성경해석학 개론』, 372-78; 이승진, “반전의 깨달음을 위한 설교 플롯에 관한 연구,” 131-32.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개념과 리퀴르의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배려와 사랑을 배우는 것처럼, 필자는 ‘고뇌’를 통해 배움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405) 이승진, “반전의 깨달음을 위한 설교 플롯에 관한 연구,”131.

이것을 극적으로 효과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플롯의 구성이 필요하다. 플롯은 이야기의 진행과 문제 해결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는 이 두 마리 토끼(구속사와 플롯)를 같은 방향으로 뛰도록 해야 한다.⁴⁰⁶⁾ 특별히 구속사의 틀에는 이미 복음을 통한 반전효과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설교 안에 플롯 구성을 통해 반전효과를 더욱 강하게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플롯의 구조는 유진 라우리(Eugene Lowry)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의 5단계 구조 안에 “‘나와 본문’(갈등 찾기)-‘나와 그리스도’(갈등 심화)-‘실존인물의 고뇌’(실마리 찾기)-‘초월하게 하는 힘’(복음제시)-결론”을 구성 안에 집어넣어서, 구속사적인 반전(복음제시)을 중심으로 해서, 청중에게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실행의 도전(적용)이 들어간다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로서의 설교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설교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드라마로서의 설교는 구속사적인 거대담론과 성경 본문 안에 있는 힘(force)을 통해 마음에 은혜를 끼치는 경험적 설교로 설교화 될 수 있다. 특별히 “실존인물의 고뇌”의 부분에서 청중과의 ‘동일시’의 효과가 있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이다. 설교자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말이라는 행위로 자신의 말씀을 자신과 동일시하셨다.⁴⁰⁷⁾ 칼빈은 이중 음성 이론(the two-voice theory, Vox duplex, double voix)을 주장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가운데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김대혁은 성령에 의한 네 가지의 음성(voice)을 주의하라고 말한다. 삼위 하나님의 음성, 성경(본문)의 음성, 설교자의 음성, 회중(상황)의 음성. 이처럼 음성이 연합, 일치되는 것은 성령의 신비이며, 설교의 시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행동의 사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청중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도전을 행동하도록 증언해야 한다.⁴⁰⁸⁾ 이러한 드라마로서의 설교는 목회자와 청중에게 마음에 경험되는 신성한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⁴⁰⁹⁾ 그러므로 드라마로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가능할 것이다.⁴¹⁰⁾

406) Daniel Akin, David Allen, Ned Matthews, *Text 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Nashville: B&H Academic, 2010); 김대혁 역, 『본문중심으로 설교하라』 (서울: 이든북스, 2012), 210.

407) Wallace,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135.

408) 박건택, 『칼빈의 설교학』, 63-5; 앤서니 C. 티슬턴, 『해석의 새로운 지평』, 392. 티슬턴은 언어적 관점에서 언어행위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섬김은 “우상숭배적”이라고 말한다.

409)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빌레몬서 1장 15절-16절을 중심으로,” 112.

410) 김대혁, “원리화, 신학과 과정에서의 장르적 고려와 설교학적 함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통합,” 206.

5.2.4. 상상력과 이미지 등을 통한 마음(heart)을 움직이는 설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라고 할 때, 상상력과 이미지는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 상상력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그 사람의 현재를 구성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만드는 힘이기 때문이다.⁴¹¹⁾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현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상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언급하지 않는 원리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상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람에게에는 “상위의 원리”(superior principles)와 “하위의 원리”(inferior principles)가 있는데,⁴¹²⁾ 인간의 타락을 통해 사람은 하위의 원리에 지배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하위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상실하고, 하위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여기면서,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부패함으로 상상력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몰아내고 세속의 상상력에게 지배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의 역할이 무엇인가?하면 이러한 인간의 내면에 짓밟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고결함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바라보게 한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조명(illumination)하셨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⁴¹³⁾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정서(affection)를 가질 수 있도록 상상력이 사람 안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 안에 있는 상상력이 사람의 현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설교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청중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은 바른

411)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 232.

412)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 203.

413)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WJE, 298.

“상상력”을 가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상상력을 자극하여 바른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상상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만들고, 마음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설교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할 때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상상이 시작되고,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변화시키는 ...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것을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거룩하심을 볼 때,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들은 거룩해지며,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된다.⁴¹⁴⁾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잘못된 상상력이 범람한다. 무수한 대중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이미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점령하고, “하위의 원리”가 상상력을 장악하여 버렸다. 사람들의 마음속은 무수한 “이미지”들이 점령하였고, 세상의 사물을 통해 사람들은 복음 안에 살지만, 상위의 원리와는 다른 “상상력”과 다른 “이미지”로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상상하여 청중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상상을 하게 만들고,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이미지를 몰아내는 일을 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을 점령하던 상상과 이미지가 물러가고, 마음으로 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감각하는 은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상력과 이미지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아래에 제시해본다. 첫째, 하위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청중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수사학의 3형제인 로고스(Logos)와 파토스(Pathos)와 에토스(Ethos)는 청중의 마음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한다. 설교자에게 로고스는 성경의 이해와 전달에 기본적이다. 파토스는 열정이다. 로이드 존스는 파토스가 없는 신학은 ‘불량품 신학’(defective theology)이라고 하였다.⁴¹⁵⁾ 에토스는 마음(heart)과 연결되어있다. 설교가 아닌 설교자가 얼마나 청중에게 신뢰를 얻었는가에 달려있다. 설교자에 따라 청중의 상상력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가 좋지 않은 설교자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414) “sermon on II Cor. 3:18(1),” Yale MSS;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 232에서 재인용.

415)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97.

다. 에토스는 청중을 은혜의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은 수사학의 틀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활용하여, 목회현장에서 ‘수사학’이 아닌 ‘설교학’으로 열매를 따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거스틴도 칼빈도 수사학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들이 수사학을 찬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음을 움직였던 그들의 설교는 분명히 수사학적 지혜가 탁월하였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인 요소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수사학적 요소를 통해 상상력의 문을 열어야 한다.

둘째로,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감정주의의 시대임을⁴¹⁶⁾ 착안하여 청중의 “감성을 헤아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예배 안에서 영적 감정을 맛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이미지가 변화되고 싶어서 왔고, 살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성도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감정을 어떻게 목회자가 예배 안에서 청중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⁴¹⁷⁾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는 감정(affections)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emotions) 또는 느낌(feelings)과는 다른 것이다.⁴¹⁸⁾ 분명한 사실은 “한 영혼이 가진 어떤 성향이나 의지보다 강렬하고 지각이 있는 활동”⁴¹⁹⁾인 신앙정서를 청중은 감각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청중의 몸은 몰라도, 그 영혼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맛보고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⁴²⁰⁾

따라서 목회자는 감성에 반응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디어만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험적 설교를 제시해야 한다. 켈러의 말은 마음에 와닿는다. “죄에 대한 부채 감각이 클수록 그리스도의 지불하심에 대한 경외감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겸손한 동시에 담대해진다”⁴²¹⁾ 사람은 지식으로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보다 죄에 대한 부채 감각에 대해 상상력을 가지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변화가 유도하는 것이다. 켈러는 이런 면에서 이 시대 목회자들이 귀기울여야 한다. 그는 상상력과 이미지를 통해 수사학적 요소와 뛰어난 마음해석학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부채”와 “지불”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상상과 이미지가 포스트모더니즘 세대로 하여금 복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설교는 감정주의를 조심해야하지만, 감정(affection)을 환호해야 한

416) 김창훈, “포스트모더니즘과 설교,” 『헤르메니아 투데이』 제56호 가을(2013): 38.

417) Jonathan Edwards, 김창영 역,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28.

418) Storms, 『(우리 세대를 위한)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54.

419) Storms, 『우리 세대를 위한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51-54.

420) Jonathan Edwards, 서문강 역, 『신앙과 정서』(서울: 지평서원, 2000), 30-40.

421) Keller, 『센터처치』, 69.

다. 은혜의 물고가 여기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혁주의는 감정 자체를 하대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러한 개혁주의 바탕에서 경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청중의 마음(heart)을 헤아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⁴²²⁾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상상력과 이미지를 심기위한 주해적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목회자는 본문을 주해할 때, 본문이 가진 감정선(emotion pace)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감정의 표적(sign)을 찾아야 한다. 본문의 표적 주제를 발견한 다음에는, 반드시 본문의 “표적 감정”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상상력을 동원해서 청중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이 이미 하나님의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에 따라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밝고, 때로는 담대하며, 때로는 신령한 감정을 소유하고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본문이 제시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상상력과 이미지에 따라 수사학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위의 상상과 이미지를 치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감정을 다루는 설교는 강단에 선 목회자의 선포와 더불어 청중사이에 생기는 영적 오케스트라와 같다.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감정이 목회자의 지휘를 통해 청중에게 전달될 때, 마음은 상상력으로 치환되어 합주 향연이 되어 천상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 하셨다면, 예수님도 이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단순히 표면적 이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공황”의 감정을 통해 성령을 힘입어 상상력을 가지고 청중에게 동일한 영혼 사랑의 감정을 상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⁴²³⁾

둘째, 주의할 점은 표적 감정을 찾은 다음에는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본문 속에 드러난 이미지(image)를 통해 “표적 이미지”⁴²⁴⁾를 찾아야 한다. 청중에게 심고자 하는 핵심이미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3대지 설교에서도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전달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청중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 그 이하의 기억력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표적 이미지”를 한 가지로 잡고 본문 속에서 퍼올려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청중이 마음속에 단 한 개의 이미지를 품고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⁴²⁵⁾

422) Keller, 『센터처치』, 278-79.

423) Akin, Allen, Matthews, 『본문중심으로 설교하라』, 286.

424) Joseph McCormack, *Brief: Make a Bigger Impact by Saying Less*(New York: Wiley, 2014); 홍선영 역, 『브리프』(서울: 더난출판, 2015), 122-23.

425) Calvin Miller, *Preaching: the art of narrative exposition*(Grand Rapids: Baker Books, 20

그 이유는 본문 자체가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스트모던시대에는 이미지에 익숙하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지가 담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모든 홍보물에도 이미지가 실려 있고, 현대인들은 이미지에 좌우되고, 이미지 때문에 물건도 구매한다. 그 이유는 각인된 이미지가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²⁶⁾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 이미지와 은유로 채우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지는 걸음을 멈추게 한다. 화랑에 걸려있는 그림이 관람객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처럼, 설교자는 상상력과 이미지로서 전달할 때 청중은 마음의 걸음을 떼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이미지를 청중에게 주느냐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미지가 마음을 장악할 때, 그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미지로 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 목회자는 본문에 대한 상상력과 이미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있다. 성경 본문의 시대 속으로 들어갔다가, 오늘 현재 시대로 들어왔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3번의 장면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수님의 설교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청중들로 하여금 장면전환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본문은 우리 시대와 떨어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상력⁴²⁷⁾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역사적 간격을 연결하고, 상상력과 상상력을 통한 이미지를 통해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알아듣도록 흥미진진하게 전달할 때, 청중의 마음이 움직이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째, 음악(예술)도 중요하다. 예배의 음악은 청중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몰입하게 하는 상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음악을 통해 청중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회심과 변화로의 요청 속에 들어갈 수 있다.⁴²⁸⁾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읽혀지는 본문인데, 그 이유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예술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설교 후 설교효과를 거두기 위해, “표적음악”이 필요하다. 반드시 설교 주제와 맞는 찬송과 복음송가를 마음

06); 박현신 역, 『설교: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서울: 베다니출판사, 2009), 316-17.

426) Hershanel W. York and Bert Decker, 『확신 있는 설교』, 204.

427) 김지혁, “전달: 왜 설교에서 상상력이 중요한가?,” (개혁주의 설교학회, 사랑의 교회 국제회의실, 2018년 12월 3일), 103.

428) Michael Horton, *A Better Way*(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186; Jack W. Hayford, *Manifest Presence: Expecting a Visitation of God's Grace Through Worship*(Grand Rapids: Chosen Books, 2005); 임신희 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서울: 서로사랑, 2007), 157-8;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Worship*(Grand Rapids: Baker Books, 2009); 윤석인 역,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492; 김상구,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19권 봄호(2009): 124; 김순환, “한국교회 예배음악의 이해와 제언,” 『복음과 실천신학』 제9권(2005): 220-21.

을 담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표적 주제를 발견했다면, “표적 감정”, “표적 이미지”, “3번의 장면 대전환”, 그리고 “표적 음악”을 통해서, 청중의 마음에 감동을 경험하게 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배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⁴²⁹⁾ 이러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예배와 회중전체가 하나님께로 방향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5.2.5.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을 열망하는 설교

마음과 이야기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 미국 44대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캠프를 구상한 마셜 간츠(Marshall Ganz)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익만이 아니라 가치”이기 때문이었다. 간츠는 이런 절차를 “공적인 서사”라고 불렀다. 말하자면 “가치”가 마음에 와닿기 때문인데, 이를 알리기 위해 가치에 대해 선전하고 말하는 것보다 서사를 통해서 가치를 구체화하고 소통하는 전략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전략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캠프 전략에서였다. 3,000명의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수천 명과 함께 공적 서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만 명의 시민을 참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유권자가 민주당 대통령에게 투표하였다.⁴³⁰⁾ 결국 오바마의 승리 배후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놀랍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이야기에 있다. 오바마의 연설에도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는 그의 가치인 “인종”과 “불평등”문제를 제기하며, 가치를 주장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성경도 이야기이며, 세상 모든 것은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은 가치보다 이야기에 마음을 더 쉽게 연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라든지, “어쩔 수 없어” 또는 “다시 도전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자신에 대한 마음을 토로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그러므로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청중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고, 그에 앞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느냐는 더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이야기 능력에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 본문이 우리 마음에 이야기로 다가

429) 백동조,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서울: 두란노서원, 2012), 265.

430) Palmer,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262.

온다는 점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해석하고 우리를 해석하며, 변화시키며, 마음속에 용기와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목회적 상황은 부동산, 금융, 사업, 가정, 진로, 학업 등 어느 것 하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다. 패배주의와 상실감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크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감흥만을 주거나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섞은 설교를 넘어서, 청중의 낙담된 마음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붙들게 하고, 불안한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망”하는 방향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로이드 존스도 설교에서 “불”(fire)을 강조했고, 제임스 스미스도 사람에게 있는 잘못된 예전적 방향성을 돌이켜, 하나님을 “열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파이퍼도 “열망”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각자 거룩한 열망을 갖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거룩한 열망”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바울은 수년간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열망”이라고 부릅니다.…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란 거룩한 열망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어른이 되는 것은 거룩한 열망을 갖고 성령의 검을 힘차게 휘두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가득 실어다 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영덩이를 걷어차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거룩한 열망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집중력을 갖게 되고, 짜임새 있고 열정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열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열망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와의 개인적인 만남(다메섹 도상처럼 반드시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에서 생겨나고, 하나님의 성문화된 말씀에 의해 그 모양이 드러나며 알려지고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시1:2), 즉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진리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 넣어 그것이 거룩한 열망이 되게 하십니다.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⁴³¹⁾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 설교는 개혁주의의 경험적 설교원리이며, 성경적 설교방법임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청중은 이야기에 반응한다. 목회자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 설교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이야기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대부분을⁴³²⁾ 차

431) John Piper, *A Holy Ambition: To Preach Where Christ Has Not Been Named*(Minneapolis: Desiring God Foundation, 2011); 이선숙 역,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라』(서울: 좋은 씨앗, 2013), 19-24.

432) Jeffrey D.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How to Re-create the Dynamics of Biblical*

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이야기는 청중과 함께 하는 힘이 있으며, 구조(plot)가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다. 둘째, 이야기 설교는 유익이 크다. 이야기는 설교를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억하게 만들기도 하여, 율게도 만들며, 말씀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 삶을 결단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다.⁴³³⁾ 그러므로 이야기가 있는 설교는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이처럼 설교에 원할하고 막강한 영향⁴³⁴⁾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여는 힘이 있다. 세째, 이야기는 스토리 텔링으로 전달하느냐, 내러티브로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화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청중의 마음에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고, 삶의 방향성에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설교가 흐르거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때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격차를 느끼게도 한다. 개인의 성공 이야기는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하기보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따라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한 이야기는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째,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설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해석학적, 설교적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닮게 한다면, 이야기가 가진 한계점을 벗어나서 흥미진진함을 살리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은 교회마다 목회자와 교회 내 문제로 시련과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살아가는 것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때 복잡하고 어려운 건조한 설교보다는 삶 속에 염려의 짐보따리를 풀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이야기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님을 열망하며 영적으로 담대해질 때,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는 설교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라고 생각된다.

세상에는 쓰여지지 않는 역사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역사학자들은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다고 쓸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더 움직이고 있다. 마음에서 시작된 정치, 마음에서 시작된 전쟁, 마음에서 시작된 평화, 마음에서 시작된 갈등 등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설교원리로 놓쳤던 마음의 영역은 사실상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역이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사실 어떻게 보이지

Genres(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7); 박현신 역,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서울: 베다니, 2010), 100.

433) 백동조, “적용이 있는 효과적인 이야기식(Narrative) 설교 연구 = A Study of Effective Narrative Preaching Methodology With Applications.”, 70-130.

434) Brooks, 『설교론 특강』, 169.

않는 영역을 붙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본문성에 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 마음을 설교자가 먼저 경험하기 위해 내려티브로서 지·정·의 요소를 파악하고 심도 있는 주해를 통해 말씀 속에서 ‘선도적 경험자’가 되어야 했다. 셋째, 설교구조와 마음을 연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두루마리에 적혔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이 두루마리라는 틀 위에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다면,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청중의 두루마리에 옮기는 작업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드라마적인 설교는 본문의 마음의 역동성을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상력과 이미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만들어져서 자아를 훼손하기도 하고,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통해 상상력과 이미지는 새롭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다섯째, 사람들의 마음은 ‘가치’보다 ‘이야기’에 의해 움직인다. 이야기를 통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는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은 분명히 마음을 움직여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5.3.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의 청중이해의 적용

5.3.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설교 방법론에만 있지 않다. 생각보다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은 구매자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단계는 “청중이해”이다. 특별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된다. 로버트 맥체인(Robert Murray M'Cheyne)은 그의 성도로부터 ‘나는 당신의 설교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도 그 편지를 침대 옆에 항상 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 설교가 그의 설교의 지도였던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라고 할 때, 결코 청중을 잊으면 안 된다. 허셀 요크(Hershael W. York)는 목회자의 메시지는 첫 번째 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이 부분은 감정

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뇌는 분석적 사고를 하는 대뇌피질 안에 ‘첫 번째 뇌’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대뇌피질이 이성적인 것이라면 ‘첫 번째 뇌’는 ‘즉각 반응 체계’의 역할을 한다. 이 ‘첫 번째 뇌’는 사고하는 뇌가 이해하고, 분석하기 전에 모든 감각정보를 입력하고, 모든 정보의 결정자가 되어서 해당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비이성적인 통제자이다.⁴³⁵⁾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에 와닿는 것에 반응하게 창조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서적인 감응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목회현장에서 실행되는 데에는, 설교자적 준비, 설교의 내용,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청중 이해가 있어야 한다. 특별히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비언어적 영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천현득은 이렇게 말한다.

감정과 정서적 행동의 관계는 밀접하다. 행동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감정이란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내놓는 행동들의 패턴으로 환원된다. 감정의 한 가지 기능은 사회적 의사소통에 있다. 특히,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에서 그의 심적 상태와 의도 등을 읽어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⁴³⁶⁾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 뾰족한 것을 들고만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경계를 하거나 소름을 느껴 피해가거나, 거부 반응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감정 표현 방식은 보는 이들의 의사결정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정당한 원리임을 알 수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엘버트 메라비언 (Aibert Mehrabian)의 조사와 관계가 깊다. 사람은 어떤 상대방을 수용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 몸짓에 더 반응했고, 내용은 겨우 7%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좋은 깨달음에 목숨을 걸고, 설교원고 준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사실상, ‘비언어적’요소가 압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메시지 내용의 비율은 고작 7%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한다.⁴³⁷⁾ 이것은 설교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목회와 신학』에서 “평신도들의 설교 수용 분

435) York, Decker, 『확신 있는 설교』, 271. 그는 14장에서 ‘아홉 가지 전달기술’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이다.

436) 천현득, “인공 지능에서 인공 감정으로-감정을 가진 기계는 실현가능한가?,” 『철학』 제131집 (2017년 5월), 224-26.

437) 허은아, 『메라비언 법칙』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2), 6-7.

석”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설교자의 음의 속도(20%), 설교자의 졸린 음성(18.55%), 정확하지 못한 발음이나 사투리(17.74%), 거친 억양(15.32%) 등, 70%이상이 청취에 곤란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⁴³⁸⁾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모습이 온전한 예배와 삶의 변화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회자는 설교자이기 전에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청중은 설교자의 모습에서 마음으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설교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행위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 많은 준비의 시간이 헛수고가 될 것은 자명하다.⁴³⁹⁾ 이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미지”에 예민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결코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설교자들의 설교스타일은 청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설교자가 어떤 모습이나에 따라 성도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청중은 현대 사회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익숙하고, 적응되어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영상물이 쏟아져 나오고, 대중은 별점으로 평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설교도 예외일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적이고,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은 상승효과를 일으키고자하는 방향성이 있다.⁴⁴⁰⁾ 만약 이러한 현실적인 눈높이에 둔감해진다면, 생명을 드러내는 말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뿌리에 하나님의 전달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다.⁴⁴¹⁾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전달함에 있어서 비언어적 행위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승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더하여 신체의 사용은 인격을 나타낼 뿐 아니라 상상력까지 자극한다.⁴⁴²⁾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청중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상상력을 정확하여 말씀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다.

438)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WPA, 2006), 425.

439) Haddon W. Robinson, *Biblical Sermons: How Twelve Preachers Apply the Principles of Biblical Preaching*(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7); 박영호 역, 『강해설교』(서울: CLC, 1999), 222.

440) 안종필, 『설교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총론』, 14.

441)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박사학위,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0), 55.

442) H. C. Brown, Jesse J. Northcutt, H. Gordon Clinard, *Steps to the Sermon: An Eight-Step Plan For Preaching With Confidence*(Nashville: B&H Academic, 1996); 정장복 역 『설교의 구성론』(서울: 엠마오, 1994), 237-39.

스펠전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기울이던 설교자였다. “여러분의 말투에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특이한 점들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대로 교정하십시오”⁴⁴³⁾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의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야 할 것을 강조한다. 설교자는 얼굴 표정, 발음, 음의 고저, 목소리의 온도, 제스처 등은 중요한 요소이다.⁴⁴⁴⁾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비언어적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⁴⁴⁵⁾ 미국 뉴욕대학교의 교수법의 권위자인 켄 베인 교수는 최고의 교수는 강의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차례로 학생들에게 시선을 옮기면서 진행하고, 강의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교실 제일 뒤에 앉은 학생과 눈을 서로 마주침으로서 타이밍을 절묘하게 조율한다고 한다.⁴⁴⁶⁾ 이것은 설교를 감당해야 할 목회자들에게 단적으로 도전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행동의 소리가 말의 소리보다 큰 것이다.’⁴⁴⁷⁾ 비언어적 행위는 청중의 마음을 열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5.3.2. 강단과 청중의 공감과 동일시

목회자와 청중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가장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목회자와 청중은 열정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애정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 있어서 열린 마음만큼 중요한 길은 없을 것이다. 열린 마음은 애정을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움직이는 힘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설교자의 권위와 신학적인 전문 용어의 구사에 있지 않고, 청중들의 상처와 마음을 헤아려주는 목회자의 마음이 담긴 설교가 증거될 때이다. 반대로 강단의 설득이 가장 지루해지고, 가장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목회자가 청중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라고 생각한다. “왜 목사님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면 과연 설교가 제대로 들릴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헬무트 킬리케는 ‘독일 설교자는 하늘에서 시작하나 결코 우리가 사는 땅으로 내려오는

443) 찰스 스펠전, 원광연 역, 『목회자 후보생들에게』(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9), 179.

444) 찰스 스펠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441-43.

445) 헨리C.브라운, 『설교의 구성론』, 240-44.

446) Ken Bain, *What the Best College Teachers Do*(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안진환·허형은 역,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서울: 뜨인돌, 2011), 172.

447) 허은아, 『메라비언의 법칙』, 8-12.

법이 없고, 미국 설교자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로 시작하나 결코 하늘에 도달하는 법이 없다'고 하였다. 설교자가 귀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위치'가 중요하다. 설교자에게 있어 청중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청중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방문한다. 하지만 그들의 위치를 보는 눈이 없다면 똑같은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부로 파김치가 되어있고 예민한 십대들, 그들과 상담하다가 지쳐서 마음이 답답한 교사들, 일로 인한 압박으로 잠 못 이루는 직장인들, 해고의 문제로 마음이 불안한 명퇴를 앞둔 가장들, 막 부부싸움으로 이혼의 문제를 나누었던 위기의 부부들, 명퇴 후에 현실에서 적응장애를 겪으며 가야할 길을 모르는 은퇴자들, 강단에 어떤 기대도 없이 예배를 억지로 찾아온 사람 등등 청중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설교자의 마음은 청중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청중도 그러한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설교자가 가장 당황될 때는 설교가 튕겨 나와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이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설득하기 전에 제발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것일 수 있다. 예전에 시골에 마을전도를 갔을 때 있던 일이었다. 집집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전도에 대한 목마름은 점점 커져만 갔던 날이었다. 마침 어떤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었다. 마음속에 전해야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어서 전도를 위해 화투판에 끼어들었다. 용기가 없어서 화투판을 멈추지 못했지만, 그들은 낯선 우리를 바라보며 그들이 먼저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묻고, 서울에서 왔으니 말씀을 전해보라고 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모두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분이 욕을 하면서 갑자기 뛰쳐나가 버렸다. 무슨 일인지 당황되었지만, 전도를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그 분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초면이지만 실례를 무릅쓴다고 말씀드리자 그 분이 속이 아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자신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 후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동네에 창피해서 죽지 못해 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기도하자고 아픈 마음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는데, 정말 그분의 아픔이 마음으로부터 느껴졌다. 더불어 예수님이 이 아픔을 알고 계실 것이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위로의 기도를 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 후에 그분이 다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어느 정도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사실이다. 해준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며 이해하였을 때, 그분의 내면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청중은 설교자와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청중의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훌륭한 설교자들의 공통점은 하나

같이 청중의 마음을 헤아리는 설교를 한다는 점이다. 청중은 말씀을 듣기만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양방향성을 가진 커뮤니케이터인 것이다.

정우홍은 창세기 43장에서 유다가 막내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기 위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을 “위대한 설교자”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지적하였다.⁴⁴⁸⁾ 그 이유는 야곱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이 바로 뛰어난 청중과의 동일화된 마음의 원리이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였다. 그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정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 도리어 자신을 더 낮추는 고백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동일시(identification)는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중요한 설교원리이다.⁴⁴⁹⁾

동일시는 청중의 마음을 열고 설득하게 만든다.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는 동일시에 대하여 우리가 “언어, 제스처, 어조, 일반적 경향, 이미지, 태도, 사고”⁴⁵⁰⁾ 등을 통해 상대방과 동일시될 때 그 사람을 설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청중의 관심에 하나 되어 있을 때, 청중의 마음은 열리고, 설교를 들으려는 자세로 몸과 마음을 고쳐 잡게 되는 것이다.⁴⁵¹⁾ 그래서 로스칼조는 ‘동일시의 설교는 설득력이 있고, 청중과의 공통점은 강조하고, 차이점을 최소화한다.’고 하였다.⁴⁵²⁾ 나아가 오늘날 같은 경우는 컨버전스시대⁴⁵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서로 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경쟁의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어갈 것이다.

설교자는 이런 시대에 발맞추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연결된 존재로 상대방을 책임져주어야 함’을 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낮은 사람일수록 환대하여 서로 다른 점을 용납하게 하고,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적으로 끌어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복돋아야 한다. 또한 공동체가 완성품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동반자가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세상을 관객으로 살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해가는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게 해야 할 것이다.⁴⁵⁴⁾

그러므로 동일시는 설교자가 청중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이해하고, 자신을 동

448) 정우홍, “동일화된 설교를 위한 한국인의 “정”의 정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24권 가을호 (2011): 191.

449) Kenneth Burke, *A Rhetoric of Mot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20.

450) 크레이그 로스칼조, “청중과 동일시하는 설교”, 『그말씀』, 7월호 (1999), 65.

451) Craig A. Loscalzo, *Apologetic Preaching*(Illinois: IVP Academic, 2000), 20.

452) 크레이그 로스칼조, “청중과 동일시하는 설교,” 61-66.

453) 윤정구, 『황금수도꼭지』(서울: 썸앤파커스, 2018), 63.

454) Palmer,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93-5.

일시하고, 그 마음을 설교에 실을 때, 청중은 목회자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설교자가 청중의 마음도 모른 채 성경 말씀을 아무리 힘을 다해 전한다고 해도 동일시에서 실패하면,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청중은 차가운 마음으로 마음 문을 꽂꽂 닫고 말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일시를 위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중을 설득하기 전에 목회자가 성경 본문에 얼마나 동일시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⁴⁵⁵⁾ 한진환은 성경의 사건을 살필 때, 설교자가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고, 자신은 어떤지를 확인해갈 때, 본문이 가진 요청에 반응할 수 있다고 했다. 청중은 이런 본문의 상황을 설교자를 통해 같이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변화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⁴⁵⁶⁾ 이처럼 동일시는 성경 본문에 먼저 동일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청중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들과도 동일시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진정한 설득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청중을 이해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을⁴⁵⁷⁾ 이해할 필요가 있다.(“정”외에 “효”, “한”, “신”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조공호는 “한국은 고도의 집단주의에 속하는 문화”라고 정의한다.⁴⁵⁸⁾ 집단주의란 개인의 성향보다는 이웃을 의존하고, 타인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에 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 안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이 없다는 것을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달가워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냉혈한처럼 비칠 수 있다. 이런 사회문화 속에서 설교자는 청중과 얼마나 공감어린 설교를 할 것인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청중의 삶의 기쁨과 애환과는 거리감을 두고 성도를 향해 다가지 못하는 설교는 효과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세째, 결국 설교는 청중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청중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몸은 청중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큰 힘이 되었다. 예수님은 청중의 삶 속에서 동일시가 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동일시가 되도록 이끌어내셨다. 바울도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고전9:22) 되었다. 그러므로 청중을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은 설교 속에서 은혜를 담게 만드는 수문의 득과 같은 것이다.

네째, 오늘날 청중들은 자기 주관성이 강함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성경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려는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⁴⁵⁹⁾ 메시지를 들을 때 그

455) 한진환,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139-40.

456) 한진환, 『설교의 영광』, 122, 129-47.

457) 김찬호, 『모멸감』(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4), 5. ‘정은 정동적이며, 걱정과 응집을 초래한다.’

458) 조공호, “문화 유형과 정서의 차이: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학회』 6/2 12월호 (1997): 23; 정우홍, “동일화된 설교를 위한 한국인의 “정”의 정서 연구,” 206.

459)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733-34.

메시지에 자신을 노출하기를 거부하고, 내용을 오해해서 듣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제임스 엔겔(James F. Engel)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걸름막’(filter)을 가지고 설교를 수용하거나 차단한다고 했다. 먼저 메시지를 외면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그리고 장소에 있지만 듣는 것은 거부하는 선택적 경청(selective attention), 또한 듣지만 오해하는 선택적 이해(selective comprehension), 마지막으로 이해는 해도 변화는 안 되는 선택적 수용(selective reception)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다.⁴⁶⁰⁾ 그래서 오늘 날 청중들에게는 설교를 전달할 때에 청중의 ‘해석의 틀’을 공격하는 설교보다는, 본문 속에 청중을 끌어들이는 “동일시”를 통해 청중에 대한 배려의 해석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중을 잘 배려하여 경험적인 설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 있어서 본문을 이해하고, 청중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관성을 이해하는 마음이 설교 속에 녹아 들어있는 “동일시” 원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할 때 청중은 목회자와 자신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목회자는 무엇인가 알려주는 고압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청중의 삶과 함께 씨줄과 날줄로 연결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경험적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예. 맥스 루케이도의 동일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원래 악한 사람이거나 범죄자,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살인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시의 목사였고 선생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붙잡아 온 것”이다(마27:18). 그리고 바로 나, 맥스 루케이도. ‘질투의 화신’ 명단을 작성한다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나는 친구에게 옆 동네의 한 교회에 관해 들었을 때 내 속에서 타는 연기 냄새를 맡았던 사람이다.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해! 예배 때마다 사람들로 교회당이 터져 나간다는군.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라지 아마.”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말에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성숙한 인격이나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질투에 가득 찬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제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기는커녕 나는 내 자신의 사업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크고 잘 나가는 교회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구역질나지 않는가.⁴⁶¹⁾

460) James F. Engel, *How to communicate the Gospel effectively*(Ghana: Africa Christian Press, 1988); 정진환 역,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서울: 죠이선교회, 1991), 44-5.

461) Max Lucado, *A Love Worth Giving: Living in the Overflow of God's Love*(Nashville: W. Publishing Group, 2006); 박혜경 역, 『아주 특별한 사랑』(서울: 두란노, 2003), 65-66.

5.3.3. 회심과 실천적 변화를 요청하는 설교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마음을 다독이는 ‘소프트 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오늘날 설교에서 결단의 영역은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신설교학이 전달이 중심이 되고, 청중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열린 결말을 시도한 문제와 어느 정도 연결 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청중에게 들리기 좋은 설교의 문제는 청중의 결단과 변화로의 요청과 합당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러나 존 오트버그는 “청중이 반응하지 않는 설교는 잘못되었다”고 말했다.⁴⁶²⁾ 성경적 설교는 형식과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청중의 변화반응을 기대한다. 얼마나 성경구절이 인용되고, 어떤 성경이야기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설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란 심리적으로 마음을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야기해주는 삶 개선 프로젝트와 리더십 트레이닝도 되지 않아야 하며, 웃음만을 유도하여 청중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한 전달을 함으로써 청중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묵은 때를 말씀의 비누로 씻어내는 설교인 것이다.⁴⁶³⁾ 그러기 위해 청중이 마음을 결단하도록,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방향성은 회심에⁴⁶⁴⁾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개혁주의 설교자들의 설교의 특징은 회심에 있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참회심(true conversion)과 순간 회심(temporary conversion)을 대각성 운동 속에서 면밀히 구분하여 살폈었다. 스펀전의 설교도 회심을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회와 설교의 목표이고 본질이라고 보았다.

참된 모든 설교의 목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마음을 죄로부터 이혼시키고, 그리스도와 혼인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가 사람들로 떨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며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설교를 수천 번 해도 그것으로 오는 결과가 하찮은 것이라면 그것은 마음을 목표로 하지 않았거나 공수가 표적을 맞추지 못한 까닭입니다. 아, 그러나 우리의 회중들은 그들의 마음을 설교자의 표적으로 주지 않으며, 그

462) Haddon Robinson, Craig Brian Larson, *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A Comprehensive Resource for Today's Communicators*(Grand Rapids: Zondervan, 2009); 이승진 역, 『성경적인 설교 준비와 전달』(서울: 두란노, 2007), 278.

463) 해돈 라빈슨·크레이크 라슨, 『성경적인 설교 준비와 전달』, 279.

464) Ian Murray, *Jonathan Edwards*(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7), 274.

마음을 집에다 두고 옵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귀와 머리만 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에만 설교자들이 회중의 마음속에 깊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지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행2:37). 감정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 가치 없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로 느끼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만 반드시 그것은 사람들로 즉각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사람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⁴⁶⁵⁾

칼빈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주권”(The Sovereignty of God)이 가장 강력한 신학적 이슈이다. 그렇지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완전히 자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선택교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찾아 ‘잃어버린 양’을 위해 목자가 안식을 포기하는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회심을 요청해야 한다.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삶으로 드러내도록 경험적 요청이 강단에서 있어야 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회심하고, 복음을 알았으나 변화되지 못하던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경험은 없다. 정장복은 스펀전의 설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그는 설교의 목적은 회심이라고 보았으며, 설교자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대 주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었다.”⁴⁶⁶⁾ 스펀전은 구속의 능력을 전하며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은 달콤한 음식을 혀 아래 숨겨 놓듯이, 죄를 품은 채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까? 당신 삶의 모든 죄를 간직한 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까? 만약 내 사랑하는 동생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는데 내가 동생의 붉은 피로 얼룩진 그 칼을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는 그리스도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만큼이나 깊은 지옥에 이 죄의 단검을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십시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에서 죄를 떨쳐버리십시오!⁴⁶⁷⁾

조지 헛필드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개종”이 성경적인 “회심”은 아니었

465) 손동식, 『설교의 왕자, 스펀전의 설교 이야기』(서울: 두란노, 2011), 262-277.

466)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하권』(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0), 61.

467) Charles Haddon Spurgeon, *The Power of the Cross of Christ*(Leeds: Emerald Books, 1995); 장택수 역, 『십자가의 능력』(서울: 예수전도단, 2016), 5-6.

다. 그래서 그를 통해 이루어진 수많은 설교에는 분명히 회심을 요청하는 설교를 하였다.⁴⁶⁸⁾ 한국 초대교회 대부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길선주⁴⁶⁹⁾의 설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었다. 길선주는 청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강력한 영적 감각을 바탕으로 죄의 각성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수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외종外腫(살 표면에 난 종기)고치기는 쉬우나, 은종隱腫(속으로 끓는 종기)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십 수년 전에 심장마비로 고통을 당하였던 사실은 여러 부형모매父兄母妹들도 다 아시거니와, 그 때에 보통 의사는 그 증상을 미지未知하였었습니다. 경성에 있던 커를너 의사가 진찰하여 보고 "내장에 농즙膿汁(고름)이 들었으니 불가불 급히 수술하여야 하겠습니다"하고 참으로 급히 기독교병원에 입원하여 네 의사가 붙들고 수술하니 내부에서 농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그 수술 전에 다른 사람들은 저의 극한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가 보기에는 그리 중병 같지 않았으나 저는 견딜 수 없는 극고極苦(매우 심한 고통)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제 생명은 위태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한 성신의 깊은 수술을 받으시다. 통회 자복 기도하여 성령의 수술을 받으시다.⁴⁷⁰⁾

옥한흠도 이와 같은 선상에 섰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랑의 교회에서 은퇴하였고, 원로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도전을 받아서 회심을 강력하게 도전하였다.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인플레가 뭔지 아시잖아요. 돈을 자꾸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없어져서 인플레가 되잖아요. 교회서 구원을 너무 손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군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하지 않아요. 정말로 과거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아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강요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⁴⁷¹⁾

이렇듯 하나님께서 쓰신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심을 요청하고, 실천적 변화를 갈망했다는 점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설교자들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

468) 손동식, "명설교자의 사중복음설교(1)," 「활천」 Vol.775, No.6(2018): 78-81.

469) 정장복, 『설교학사전』(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390.

470) 길선주, KIATS 편, 『길선주-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길선주』(서울: 흥성사, 2008), 112.

471) 옥한흠, "눈물의 경고: 빌3:17~21", <<https://www.youtube.com/watch?v=XxdOAA-HsH4>>, accessed 17 September, 2018.

청중에 대한 지나친 고려때문에 성경의 도전을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청중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세상살이가 팍팍하다. 그렇지만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는, 진정한 “회심”을 하여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시대라고 보여진다. 회심을 요청하는 설교는⁴⁷²⁾ 팀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보다는 제임스 스미스가 말하는 선포적 설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목회적인 상황에서는 회심을 요청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5.3.4. 비그리스도인을 고려한 설교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예배 속에서 선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히 포스트모던시대의 사람들은 ‘차별’에 민감하다. 이전 시대의 교육이 ‘사회적응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했다면, 지금은 ‘주체적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차별과 배타적 사고’에 민감하고, ‘인권’에 예민하며, ‘남녀차별’에 우려한다. 전통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잠잠한 경향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기 목소리’가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언행과 비하의 발언을 할 때 청년들이 마음이 떠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랑의 공간이고, 용서의 공간이라는 성경적 전제가 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예배는 선교적 방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사회가 아니라 여전히 선교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예배는 언약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경배가 되어야 한다. 현대 세속사회에서 안타까운 현상은 예배에 접근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보다 성공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영적 소비주의에 빠져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는 예배의 파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 성경을 중심에 두기 보다는 문화성을 기저에 두고 사람의 취향을 타겟으로 하여서 스타일중심이 되어 가면서, 말씀 중심의 전통적 예배가 이제는 사람을 잡는 예배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⁴⁷³⁾

설교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진정성 있는 예배를 사람들은 더 찾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가 복음의 실행이라는 신학적 기반위에 있음을

472) 박현신, “포스트모던 청중을 위한 적용이 살아있는 강해적 교리설교,” 『복음과 실천신학』Vol.30(2014): 173; 박현신, “삶을 변혁시키는 적용해석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설교한국』4(2012): 59.

473) 김대혁, “우리의 앞, 됨,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예배, 사랑의 교회 세미나, 2017).

주지해야 한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는 지점인 것이다. 예배는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의 공간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도들만 와서 용서받고,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 성도와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말은 단지 단회적 전도예배나 친구초정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꾸준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켈러는 두 세대 전에만 해도 아무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배는 전통과 교단과 신학적 전통에 따라 드러졌던 것이다.⁴⁷⁴⁾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상황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제임스 스미스의 말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주의로 진리를 희석시키지만, 그만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성경에 대한 해체주의자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릴 때, 기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벤후저는 이러한 “의심의 대가”들을 향해 귀를 기울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자들이 자신의 설교를 써먹기 위해, 즉 자신의 권력을 위한 출구로 설교를 사용하기보다, 권위의 해체의 중심에 있는 포스트모던 세대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들을 이해한 상태에서의 설교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⁴⁷⁵⁾

안타깝게도 오늘 날 교회가 가진 성스러움이 너무 강한 나머지, 세상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교회는 바리케이트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곳이다. 성경에 반감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를 비판하며, 교회를 향한 조롱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교회는 열린 문이어야 하는 것이다. 켈러가 복음DNA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종교화된 모습을 벗겨내고, 기독교를 떠나 방탕함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이에서 진정한 복음을 세속 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전하고자 했을 때, 포스트모더니즘 신봉자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지만, 비그리스도인에게 들리는 설교였으며, 복음을 전도하는 설교였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474) Keller, 『센터처치』, 622-23.

475)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279-80.

하고자 함이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복음전도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상황화된 사명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야 2장2절은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 만민들이 주목하고, 모여와서 예배해야 할 곳이지, 독선적으로 여기는 거룩한 곳, 저기는 더러운 곳으로 구분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지론임을 보게 된다. 물론 비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 왔을 때, 기존 성도들은 편안하지 않다. 염색하고, 문신하고, 날카로운 눈빛, 담배냄새, 냉담한 모습, 성경 역사에 대해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 등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경 말씀을 귀기울여들어야 한다. 시편 66편 8절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목회자를 포함하여, 청중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비그리스도인이 예배를 교회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을지를 고안해야 한다. 설교가 복음중심이어야 하고, 전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신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예배 식순지 안에 묵도, 교독문 같은 딱딱한 단어에는 설명을 넣어주거나, 찬양 악보를 간지로 준비하거나, 예배 후에 간식이나, 설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이해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경은 우리를 열방을 향해 세운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아 같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어거스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롬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배는 비그리스도인을 대상화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 정도로 그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초대가 아니라, 매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각에 변혁이 일어나도록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비그리스도인만을 향한 예배보다는 비그리스도인을 품는 선교적 예배를 통해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진리에 갈급한 이들에게 “그들의 의심을 변증하고”,⁴⁷⁶⁾ 진리를 따뜻하게 경험하게 하고, 성도들이 가진 거룩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같이 맛보게 해주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시대의 설교자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에게 같이 설교해야 할 것이다.⁴⁷⁷⁾

구체적으로 비그리스도인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안해보

476) 박현신, “포스트 에브리딩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Timothy Keller 모델을 중심으로,” 358-68.

477) Keller, 『센터처치』, 166.

면, 첫째, 목회자는 비그리스도인을 위해, 선교적 예배로 예배의 폭을 넓히고, 둘째, 비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설교하여 어휘사용을 지혜롭게 하며,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비그리스도인까지 웅장하게 미치고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 넷째, 비그리스도인이 회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결단의 부르심을 가지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을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CTC네트워크에서 훈련을 받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비그리스도인을 품는 메시지를 전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가까이 오고, 신자들 중에서도 복음에 가깝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현실적 필요를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변증적이며, 복음중심적인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잡게 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상아탑같이 교회 안에서만 성경본문과 싸우며 살기보다, 세속사회 속에 사는 비그리스도인을 이해하려고 분투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기존 성도들을 보다 이해하게 되고, 설교자들을 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그런 인내의 과정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열고 찾아와 신앙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세상을 향해 예배의 문을 여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을 고려한 설교는 교회를 “증인으로서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우고, 목회자로 하여금 포스트모던시대를 향한 기독교 변증요청을 배우게 하며, 매번 예배마다 복음을 선포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복음전도를 향하게 해서, 은혜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는 설교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3.5. 변증적 삶의 운동을 일으키는 설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지향은 삶의 변화에 있다. 문제는 어떤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는가에 있다. 요즘 세상의 특징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고난없는 삶을 추구하는 꽃길신드롬, 진리에 대해서는 가벼워진 쾌락주의, 인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허무주의이다. 그래서인지 설교의 대세가 “치유”이다.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마음을 위로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방향성은 설교의 2가지 방향(외면적 변화와 내면적 변화) 중 하나인 “내면적 변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교회 내에 이러한 치유적 접근은 교회와 성도를

약화시켰다. 교회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탁아소처럼 영혼을 위탁한 채 세상살이만 헉헉대다가 위로받는 곳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과는 세상 속에 침투하기보다 빠르게 세상문화와 단절되거나,⁴⁷⁸⁾ 세상문화에 동질화되어가는 것이다.⁴⁷⁹⁾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기독교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실종되고 있고, 설사 그런 리더가 있다고 해도 세상에 대해 복음적인 방향성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피상적인 곳이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등대”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외면적 변화”로의 실패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사이엔가 교회는 복음전도에 적극적이지 않고, 세상의 문화변혁을 위해 소극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머징 교회, 구도자 예배, 세계관 운동, 고지론 등이 이전에 나왔던 대표적인 운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 손을 놓은 채 차디찬 겨울로 내몰리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외면적 변화를 위해 어떠한 마음의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할 때가 되었고, 설교자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른 지도를 펼쳐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물도 없었지만, 충분한 운동성을 가지고, 꾸준히 복음 역동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이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진리를 굳건히 세우는 변증적인 도전을 통해 상황의 지평선을 성경의 지평선⁴⁸⁰⁾으로 움직이게 하셨음을 볼 수 있다. 성령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던 그들로 하여금 봄을 여는 사람들로 살게 만드셨던 것이다.

래리 허타도(Larry W. Hurtado)는 초대교인들이 당시 로마의 종교사회 속에 있던 엄청난 로마인들의 숭배문화 속에서, ‘무신론자’처럼 보여지게 행동했지만,⁴⁸¹⁾ 도리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는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당시 종교들과는 다른 운동을 시도하여 하늘의 문화를 이 땅에 내려오는 “성육신적 선교운동”을 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⁴⁸²⁾ 그들은 국가와 종교와 경제가 일원화된 구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 정치 질서를 지키며 재산의 공동소유(행2:45)를 추구한다든가, 변증서⁴⁸³⁾를 만들어서 변증한다든지, 두루마리

478) Keller, 『센터처치』, 392.

479) Keller, 『센터처치』, 471.

480) Graeme Goldsworthy, *Gospel-centred Hermeneutics: Biblical-theolog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by Graeme Goldsworthy(England: Apollos, 2006); 배종열 역, 『복음중심 해석학』(서울: CLC, 2010), 335.

481) Larry W. Hurtado, *Destroyer of the gods: Early Christian Distinctiveness in the Roman World*(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6); 이주만 역,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서울: 이와우, 2017), 241-42.

482) Goldsworthy, 『복음중심 해석학』, 337, 364, 366-67.

483) Hurtado,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50, 196, 219.

대신 코덱스 형태의 사본을 만들어서 서로 돌려가며 읽으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사회계층과 성별과 상관없이 그들이 교회의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였으며, 로마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어두운 면(영아유기, 음란, 검투)과 달리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상태를 뒤집는 것이 아니고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령한 질서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⁸⁴⁾ 결국 이런 삶의 모습은 로마를 복음화하는 큰 기틀이 되었다. 2세기 의사였던 갈레누스는 기독교인의 “죽음 앞에서도 잃지 않는 용기, 성욕과 음식, 술을 절제하는 모습, 정의를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⁴⁸⁵⁾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말씀을 기술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목표를 가지게 하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딤후2:2, 딤후1:6, 약2:1)는 점이다. 결국 신약 성경 저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시 로마사회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변증적 삶”을 살게 하는 경험적 설교자였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오늘을 사는 청중들에게 목회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증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동방향성을 주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중요한 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켈러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가 은혜의 주로서 모든 삶의 정황에서 우리를 도우심을 증거하여, 예수님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분임을 변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세속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구체적인 적용을 주며,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뉴욕의 회의주의자들 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적용을 통해,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내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실행하여,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적용을 하여, 복음의 공공성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구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⁴⁸⁶⁾ 이러한 시도는 정의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면서, 사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목마른 회의주의자들에게 더욱 반향을 주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중요한 사실은 그 중심에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로서 변증적 삶의 운동성을 부여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대안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복음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우리의 목회적 상황에서는 정치와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면, ‘색깔 논쟁’으로 변질되어,

484) George Eldon Ladd, *Gospel of the Kingdom: Scriptural Studies in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90); 박미가 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서울: 서로사랑, 2001), 84.

485) Hurtado,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49.

486) 박현신, “포스트 에브리팅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Timothy Keller 모델을 중심으로,” 372.

‘이념 프레임’을 씌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사회적 적용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가 너무 세속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대안적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한다고 할 때, 결코 가볍게 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안적 삶을 사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첫째, 초대교회의 원시성에서 보여주는 국가보다 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도로서의 시민성, 타종교에 대한 상황화 선교, 경제의식에 있어서 청지기로서의 구제와 나눔의 실행 등의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가 가진 복음과 윤리를 바탕으로, 고통에 대한 변증과 나눔, 복음적 문화 선도의 매체로서의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셋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의무와 사랑을 기초로 하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가 속한 도시사회 안에서 정의롭게 실행하는 것이다. 켈러는 교회 공동체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과 일로 문화와 만나고, 자비와 정의로 도시와 만나고, 공동체와 제자도를 통해 성도가 서로 만나게 만든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하,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등 각 서신을 통해 삶에 대한 차별화된 방향성을 제시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름을 세상 속에 보여주었다. 넷째, 이것을 위해 목회자는 운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설교뿐 아니라, 변증적 삶을 위한 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만드는데 참여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작은 독서모임이나, 교회 사역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그런 모임을 연결하여, 대안적·변증적 삶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사역에 적용하는 운동성을 만들어간다면 목회자의 설교방향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가 만나서, 교회의 역할 모델을 적정선에서 분담하고, 대형교회는 지역보다는 대사회적인 큰 역할을 하고, 작은 교회는 지역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건강한 개척교회의 분립 지원을 통해 작은 교회가 도시문화 속에 복음역동성을 가지고 침투하고, 도시변화를 시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도시문화의 건강을 위해, 교회가 연합하여 크리스마스 공원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큰 감흥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속에 교회가 낯선 곳이 아니라, 사회 속에 있어야 할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되어 마음을 움직이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설교를 통해 시대를 읽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만하거나 비판만 하거나 실망하거나 순진하게만 살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적 삶의 적용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⁴⁸⁷⁾ 이러한 대안적 삶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 속에서 가르쳐왔던 전통이었고, 이루어 내

487) Keller, 『센터처치』, 505-6.

었으며, 봄은 다시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높이면서도, 변증적인 삶의 운동성을 고려하며, 삶으로서의 신앙을 살게 하는 설교는 시대적인 필요이다. 그리고 이런 대안적 삶을 위해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가 삶에서 증명되고, 세상에 다시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경험적인 설교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청중이해에 적용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경험적 설교는 마음을 움직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일시를 통해서도 청중의 마음을 공감각할 수 있도록 구현되며, 청중의 마음만 다독일 것이 아니라 회심을 요청하는 것이 개혁주의 설교의 요청이며, 예배의 선교적 방향성을 고려하여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같이 배려하여 설교할 때 포스트모던시대의 청중의 마음을 더욱 열 수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의 아픔에 집중되어 내면적 방향인 치유중심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외면적 방향을 가지고 복음적인 대안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며 초대교회가 그렇게 설교자들의 요구에 따라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복음화 했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가 청중을 향할 때, 성도에게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교회까지 일어서는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설교자적, 설교방법론적, 청중이해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구현되고, 은혜가 임하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4.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 작성을 위한 구체적 적용

앞선 내용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서 경험적 설교가 될 수 있는 설교자적, 설교방법론적, 청중이해 과정을 살펴보았다. 문제는 앞서 살핀 원리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원리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막연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 현장 목회자들이 “설교 작성”을 할 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작성을 위해서는 5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1단계: 설교 전 준비- 2단계: 주해화 - 3단계: 신학화 - 4단계: 설교화 - 5단계: 설교 전달)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내용은 순차적인 것은 아니며, 설교를 작성할 때, 전 과정에서 함께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의 표에 설교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진행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해본다.

<표4.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과정 5단계 >

설교과정	1단계: 설교 전(前) 단계	2단계: 주해화	3단계: 신학화	4단계: 설교화	5단계: 설교 전달
설교의 일반적 요소의 적용	목회자의 영성(본문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작용자에 대한 믿음 (성령의 조명과 말씀하심) · 인격적 채널을 찾기 (지·정·의의 요소를 통해 말씀하심) ·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설교자의 자기적용 · 신념체계의 변화 · 변증적 삶의 기초발견	(주해를 기초로) 설교의 구조준비 · 드라마 · 상상력과 이미지 · 이야기와 열정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 동일시 · 회심요청 · 비그리스도인을 고려함 · 본문의 감정흐름을 따름

1단계는 “설교 전 준비” 단계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는 설교자로서 본문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Coram Deo) 서는 바른 영성을 가져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본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흔히 목회자들은 설교에 압박감을 느끼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설교를 만드는 밴딩머신(banding machine)처럼 신속하게 설교를 뽑아내려고만 할 때가 많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외톨이로 만든 채, 성급하게 본문에 뛰어들게 된다. 그리고 설교자도 철저하게 인간일 뿐이다. 사역자라는 신분이 그 사람의 영성까지 고결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보통 목사 초년생이 되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설교를 잘 알고 있고,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목회의 시간이 익어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신분이 가진 거룩함과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나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겸허함이 생길 뿐이다. 이러한 “영성”은 청중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은혜를 마음으로 초감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강단 밑에서의 마음을 바로 잡는 영성이 강단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강단 위에서만 거룩한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통하고, 강단에 오르는 분별력 있는 영적 상태가 필요한 것이다.

2단계는 “주해화” 단계이다. 주해화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인데,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은 어떤 주해과정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해화 과정(Exegetical Process)은 해석화 과정(Hermeneutical Process)으로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법적, 신학적, 역사적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때 본문이 가진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파악해야 하고, 파악한 내용을 목회자는 어떻게 전달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켈러의 경우에는 구속사적 설교의 신학적 해석 방향을 가지고 주해를 하고 있고, 브라이언 채플의 경우는 FCF(Fallen Condition Focus)를 가지고 본문의 타락한 모습을 찾아서 해결하는 신학적 해석 방향을 가지고 있다. 켈러는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를 준비할 때, 목회자는 본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작용자에 대한 믿음”)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문에 대한 외경심이 있을 때, 목회자는 보다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이 영감을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본문을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본문과 자신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본문을 수종드는 입장에서 접근할 때, 목회자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전달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청중들에게 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회자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서는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지성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인격적 채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선도적으로 경험하여 말씀파티가 되도록 심도 있는 주해를 통해 신앙감정을 움직일 기회를 발견해야한다.

3단계는 “신학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본문에서 발견한 주해적 요소들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찾은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를 성경신학적,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신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켈러는 본문에서 나온 어휘나 신학적인 용어가 청중들에게는 생소하다고 생각될 때, 오늘 날의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고 있다. 설교를 할 때에도 본문에서 나온 사건을, 복음신

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이 가진 신학적 의미를 바탕으로 어떤 구속사적인 역전의 감동이 있는지를 찾아낸다.(그 사건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율법의 완성과 성취인지, 성전의 모티브인지, 어떤 성경의 주제적 흐름을 드러내고 완성하고 있는지, 모형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목회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본문의 주해를 통해서 발견한 내용을 설교자가 먼저 “자기 적용”을 통해, 본문이 자신의 마음에 경험되고, 변화를 소망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발견한 아이디어(idea)를 전달하기보다 자신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았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의 요소를 발견하고, “신념체계”가 흔들리고 뒤바뀌는 마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성경신학적,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목회자는 서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아래서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경험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삶의 모습, 사회 대안적 이슈를 찾아내서, “변증적 삶”을 일으키는 신학적인 베이스를 마련한다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신학화의 토대를 바로 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는 “설교화”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주해된 내용과 신학화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대지와 요지를 정하고, 설교의 아웃라인(outline)을 완성해야 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위해서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흐름과 무드에 맞는 “설교 구조”가 필요하다. 본문의 긴장이 설교의 긴장으로, 본문의 해결이 설교의 해결로 나타나려면, 무조건 써내려 간다고 좋은 설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본문에 일어난 사건과 긴장과 해결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설교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폴 스킷 윌슨의 네 페이지 설교나, 유진 로우리의 5단계 내러티브나, 귀납법이나 연역적 또는 혼합적(귀납법+연역법)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제안한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서, 본문의 저자가 실행하고자 하는 동사적 의도를 찾아서 “드라마”로 설교를 구현하는 것도 제안한다. ‘본문과 나’의 만남에서 나온 주고받는 도전과 갈등은 해석학적인 순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드라마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상력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청중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원하는 이미지로 점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문제 해결을 향한 열정을 심어주는 것도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단계는 “설교 전달”이다. 설교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할 때,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얼마나 청중에게 잘 전달되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설교를 등산에 비유한다면, 설교 전달에 있어서 봉우리가 여러 개이면, 청중이 지쳐버린다. 험로는 오솔길의 묘미라고 해서 참을 수 있어도, 봉우리에서 봉

우리로 계속 이동만 한다면 더 이상 봉우리를 올라갈 힘과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 전달은 “청중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확신 있게, 따뜻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비언어적 요소”와 청중의 상황에 대해 목회자가 마음 아파하며 강단에 올라가는 청중에 대한 “동일시”의 존중이 필요하다. 청중을 내려보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설교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중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회심”을 요청하는 것도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경험하여 삶으로 적용되게 하려면, 지식만 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통해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의 설교는 교회 안에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자신이 아는 누군가를 데려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 낙심하고 깨진 “비그리스도인”이 와서 차별을 느끼지 않고,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움직인다면, 설교의 전달은 가장 효과적이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경험적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본문은 본문 안에 감정요소를 가지고 있다. 감정의 흐름이 있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설교 전달 안에서 충분히 살려내면서 청중으로 하여금 본문의 감정 속에 들어오게 한다면, 성경의 ‘표적 감정’(sign affection)을 통해 마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특징이라고 하면 외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낯선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고립된 섬 속에서 사는 시대가 오늘이다. 자신의 열정과 행동과의 거리가 너무나 먼 모순의 시대이고, 무의미와 상처로 얼룩진 시대이다.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자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문제는 공동체는 완성된 형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상에는 마음이 으깨진 사람(heartbroken)이 너무나 많다. 신앙적 정서가 은혜로 채워져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목회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자신의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성도의 신앙의 정서를 깨우며, 삶에 변화를 가져와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까지 새롭게 될 뿐 아니라,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맛보는 은혜의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Ⅵ. 결론 및 제언

지금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며, 특별히 한국교회는 미래교회의 운명에 있어서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고 보여진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세속주의의 도시 뉴욕보다 더 심각하다. 오종향은 ‘켈러가 뉴욕에 교회개척을 할 당시(1989년) 1%였던 청년복음화율이 지금은 5%를 상회한다’고 하였다. 뉴욕은 20년 정도 기독교인구가 300%가 늘었다. 1988년도 켈러가 개척 전 인구는 840만명 정도였고, 카톨릭은 약 40%, 유대교는 약 20%, 개신교는 약 6%(복음적인 사람은 0.5%)였다.⁴⁸⁸⁾ 놀라운 성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뉴욕의 변화와 비교해서 서울은 어떠한가? 우리의 현실은 한국교회 베이비붐 세대의 충성되었던 기존 장년들까지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해 있다. 이들은 ‘가나안 성도’가 되어 교회를 찾아 떠돌다가 이제는 신앙마저 회의하며 살아가고 있다. 강단과 청중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 나오는 전망마다 어둡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켈러의 설교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에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켈러의 메시지는 복음중심의 구속사적 설교이며,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흡입되는 설교일 뿐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청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의 설교는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의 감성주의를 어필할 뿐만 아니라 청중들로 하여금 마음의 경향성을 통해 삶에 변혁을 일으켜서, 세속적인 개인으로 하여금 가정, 직장, 사회와 도시, 문화를 바꾸는 성경적 의도를 실현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는 붙잡고 있고, 우리는 놓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고는 우리의 목회적 위기상황보다 더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켈러의 설교 효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의 경험적 설교를 어떻게 이 시대의 목회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았다.

그 중심에 켈러의 경험적 설교가 있다. 켈러의 설교핵심은 본문, 복음, 마음을 움직이는 해석학적 관점이 있다. 그의 설교는 이 시대를 향해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이 되신다는 복음의 진정성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울려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회강단에는 적용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강단에는 기복적 요소와 아이디어 중심의 설교, 전달중심의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으며 청중들의 신앙 정서를 향해 움직이기보다는, 청중에게 감흥을 주는 정도로 설교전달이 제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청중에게 감흥을 줄 수 있다면 그

488) 오종향, “CTC 리더미 트레이너 훈련 강의”(수원, 더 사랑의 교회, 2017).

설교는 좋은 설교라는 당위마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사이엔가 많은 설교자들은 마음을 울리는 경험적 설교가 성경적이며, 설교학적이며, 해석학적으로 개혁주의 노선에 서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렸고, 어떻게 이 부분을 감당해야할지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마음(heart)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변화는 마음의 경향성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적 감각이 있을 때,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경험적 설교의 역사였다. 시대를 움직였던 목회자들도 모두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설교자의 눈은 켈러처럼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포스트모더니스트(회의주의자)들이 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진리를 향해 예배했던 사람들마저도 강단을 향해 점점 기대를 접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중들은 마음을 울리는 설교를 요청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필자는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우리의 목회적 현장에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해 설교학적, 해석학적 고찰을 진행해 보았다.

켈러의 경험적 설교가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가능한지를 살피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첫째, 개혁주의 설교의 역사적 전통인 경험적 설교가 무엇이며, 누가 경험적 설교를 구현했는지를 살폈고, 둘째, 켈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경험적 설교의 신학적 노선과 동일함을 증명하였다. 셋째, 켈러의 설교에 있어서 설교학적인 한계점과 서로 다른 문화적 현장의 차이에서 나오는 한계점을 밝혔으며, 넷째, 이를 바탕으로 목회현장에서 켈러의 설교의 변용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감당하도록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여, 강단에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석학적, 설교학적으로 연구하여 제안하였다.

켈러의 설교를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변용한 것은 아래와 같다. 설교자들이 잇기 쉬운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목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감정사용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감정을 도드라지게 설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본문 안에 이미 감정이 숨어있음을 통해 감정사용의 당위성을 논증하였다. 또한 켈러가 가진 강점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영역을 목회현장에서 변용하고,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며, 본문이 가진 수행성에 입각한 드라마로서의 변용, 그리고 청중의 상황을 고려한 설교,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일하심, 마음의 본질 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향한 설교가 목회현장에 변용되어야 함을 전했다.

나아가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목회자로서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설교자로서 문제, 곧 잇기 쉬운 영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본문 자체에 하나님이 작용하고 계신 부분을 발견하여 실행해야 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해하고, 설교자가 설교자

로서 존재하기 전에 본문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함을 말했다. 그리고 포스트모던시대에 설교자가 본문 앞에서 자신의 신념체계 자체가 먼저 변화된 부분을 전할 때 설교는 경험될 수 있음을 말했다. 둘째, 설교 방법론으로서는 본문이 가진 힘에 맞추어 내러티브 안에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찾아서 인격적 채널로서 설교할 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덮어놓고 설교를 만들기보다는, 표적 감정(textual pathos)을 고려하여, 설교 구조를 계획하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 유익함을 전하였다. 또한 본문이 구속사적인 큰 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본문이 가진 수행적인 요소를 찾아서, ‘말씀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설교자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더하여 상상력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열망하는 방향성을 도출하는 설교를 제안하였다. 셋째, 청중이해에 있어서는, 현장 목회자들이 설교원고를 준비하고, 증거하는 일에 바빠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도록 제안하였으며, 청중의 마음을 헤아리는 동일시 설교를 통하여 청중과 하나된 느낌을 주어야 함도 개진하였다. 더불어 마음을 울리는 설교는 우리나라의 목회적 상황에서, 회심과 변화를 향한 강한 요청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설교 현장에 비그리스도인이 고려된 설교를 통해 갈수록 비신자가 많아지고 교회에 대한 회의감과 절대적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변증의 요소를 감안하여 설교하고, 변증적 삶의 운동을 일으키는 설교를 통해 청중을 마음으로부터 설득하고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이러한 설교의 일반원리를 목회자들이 직접 설교화할 수 있도록 설교화 과정으로 도표화하여 실제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적 설교를 실행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진리는 포스트모던 세대에 더욱 필요한 외침이다. 사회가 악할수록 진리는 더욱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진리를 회의(skeptic)하고, 교회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진리로부터 달고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이럴수록 설교자는 본문 안에서 “진리”를 재발견하고, 본문 속에서 신앙감정을 맛보고, 확신 가운데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서 삶에 변혁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교회는 현재 쇠퇴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위해 일할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실 줄을 믿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켈러의 마음을 울리는 구속사적 설교의 경험적 설교를 우리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변용하고, 목회적으로 지혜롭게 적용한다면, 한국교회를 살리는 작은 은혜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논고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목록

참고문헌

1. 단행본

1) 국내서적

- 길선주. 『길선주 -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길선주』. 서울: 흥성사, 2008.
-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 김찬호. 『모멸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4.
- 권성수. 『성령설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권호·임도균·김대혁·박현신. 『새강해설교』. 경기: NEP, 2016.
-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 서울: 규장문화사, 1997.
- _____.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 서울: 규장문화사, 2003.
-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서울: CLC, 2017.
- 백동조.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서울: 두란노, 2012.
- 손동식. 『설교의 왕자, 스펠전의 설교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11.
- 송인규. 『성경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1.
- 신국원. 『고전 해석학의 역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안종필. 『설교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총론』. 서울: 쿠파, 2007.
- 오병학. 『어거스틴』. 서울: 규장출판사, 2009.
- 이강률. 『청중이해와 설교전달』.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8.
- 이규태. 『한국인의 정신구조2』. 서울: 신원문화사, 1994.
- 이어령. 『신한국인』. 서울: 문학사상사, 2000.
- 이재하. 『루터의 요한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2.
- 이진락.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적 감정 연구』. 서울: CLC, 2010.
- 임태섭.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2002.
- 윤정구.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언, 2012.
- _____. 『황금수도꼭지』. 서울: 썸앤파커스, 2018.

- 정갑신. 『대답하는 공동체』. 서울: 아르카, 2018.
- 정장복. 『설교학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4.
-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 장로회대학교 출판부, 1999.
-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WPA, 2006.
- 한진환.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허은아. 『메라비언 법칙』.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2.

2) 번역서적

Akin, Daniel. Allen, David. Mattews, Ned. *Text 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Nashville: B&H Academic, 2010; 김대혁 역. 『본문중심으로 설교하라』. 서울: 이든북스, 2012.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구영철 역. 『마르틴 루터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Arthurs, Jeffrey D. *Preaching with Variety: How to Re-create the Dynamics of Biblical Genre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7; 박현신 역.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서울: 베다니, 2010.

Atherstone,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1; 김희정 역. 『로이드 존스를 말한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울: 서광사, 1992.

Bain, Ken. *What the Best College Teachers D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안진환·허형은 역.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서울: 뜨인돌, 2011.

Baumann, Daniel.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2; 정장복 역. 『현대 설교학 입문』. 서울: 엠마오, 2001.

Beeke, Joel R. *Puritan Reformed Spirituality*.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4; 김귀탁 역.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Brooks, Phillips. *Lectures on Preaching: Delivered Before the Divinity School of Yale College in January and February, 1877*. New York: Dutton, 1882; 서문강 역. 『설교론 특강』.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Brown, H. C. Northcutt, Jesse. Clinard, J. H. Gordon. *Steps to the Sermon: A n Eight-Step Plan For Preaching With Confidence*. Nashville: B&H Academic, 1996; 정장복 역. 『설교의 구성론』. 서울: 엠마오, 1994.

Brueggemann, Walter. *Finally Comes The Poe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주승중 역.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서울: 겨자씨, 2007.

_____. *Word Militant: Preaching a Decentering Word*.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2010; 홍병룡 역.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12.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4; 김기제 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서울: 은성, 1999.

_____. *Christ-Centered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s, 2009; 윤석인 역.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_____. *Unlimited Grace: The Heart Chemistry That Frees from Sin and Fuels the Christian Life*. Nottingham: Crossway, 2016; 황을호 역. 『은혜가 이끄는 삶』.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Craddock, Fred.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이우제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대서, 2007.

Crotts, Jeffrey. *Illuminated Preaching: The Holy Spirit's Vital Role in Unveiling His Word, the Bible*. Leominster: Day One Publications, 2010; 이승진 역.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13.

Doriani, Daniel M.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2001; 정옥배 역.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1.

Engel, James F. *How to communicate the Gospel effectively*. Ghana: Africa Christian Press, 1988; 정진환 역. 『당신의 멧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 서울: 조이선교회, 1991.

Edwards, Jonatha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Volume 2: Religious Affections*.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정성욱 역. 『Religious Affection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the WORKS,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제 1권, 신앙감정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Edwards, O.C. *A History of Preaching*. Nashville::Abingdon Press, 2004; 김석환·윤익세 역. 『교부들의 설교』. 서울: 은혜출판사, 2010.

Falwell, Jerry. *Twenty-Five of the Greatest Sermons Ever Preach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정창영 역. 『가장 훌륭한 25편의 명설교』.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Fee, Gordon 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A Guided Tour*. Grand Rapids: Zondervan, 2014; 오광만·박대영 역.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1998.

Goldsworthy, Graeme. *Gospel-centred Hermeneutics: Biblical-theolog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by Graeme Goldsworthy*. England: Apollos, 2006; 배종열 역. 『복음중심 해석학』. 서울: CLC, 2010.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김진섭·류호영·류호준 역.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이레서원, 2009.

Hansen, Collin. *Young, Restless, Reformed: A Journalist's Journey with the New Calvinists*. Wheaton: Crossway, 2008; 조현학 역. 『현대미국 개혁주의 부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Harari, Yuval Noah.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New York: Harper, 2015; 조현욱 역. 『사피엔스』. 서울: 김영사, 2015.

Hayford, Jack W. *Manifest Presence: Expecting a Visitation of God's Grace Through Worship*. Grand Rapids: Chosen Books, 2005; 임신희 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서울: 서로사랑, 2007.

Hurtado, Larry W. *Destroyer of the gods: Early Christian Distinctiveness in the Roman World*.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6; 이주만 역.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서울: 이와우, 2017.

Johnson, Dennis E. *Heralds of the King: Christ-Centered Sermons in the Tradition of Edmund P. Clowney*. Wheaton: Crossway, 2009; 윤석인 역. 『모든 성경에서 그

리스도를 설교하라』.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Keller, Timothy.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2; 오종향 역.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_____. *Making Sense of God: An Invitation to the Skeptical*. New York: Viking, 2016; 최종훈 역. 『답이 되는 기독교』. 서울: 두란노, 2018.

_____. *Prayer: Experiencing Awe and Intimacy with God*. London: Penguin Books, 2016; 최종훈 역. 『기도』. 서울: 두란노, 2015.

_____. *The Meaning of Marriage: Facing the Complexities of Commitment with the Wisdom of God*. London: Penguin Books, 2013; 최종훈 역. 『결혼을 말하다』. 서울: 두란노, 2014.

Ladd, George Eldon. *Gospel of the Kingdom: Scriptural Studies in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90; 박미가 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서울: 서로사랑, 2001.

Lloyd-Jones, D. Martyn. *Preaching &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1972; 정근두 역. 『설교와 설교자』. 서울: 복있는 사람, 2005.

_____. *Puritans Their Origins/Succes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서문강 역. 『청교도 신앙-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_____. *Walking with God Day by Day: 365 Daily Devotional Selections*. Wheaton: Crossway, 2013; 박혜영·정상윤 역. 『날마다 읽는 마틴 로이드 존스』. 서울: 복있는사람, 2005.

Lowry, Eugene L.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1;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 구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Lucado, Max. *A Love Worth Giving: Living in the Overflow of God's Love*. Nashville: W. Publishing Group, 2006; 박혜경 역. 『아주 특별한 사랑』. 서울: 두란노, 2003.

Luther, Martin. *The Table Talk of Martin Luther*. New York: Dover Publications, 2005; 이길상 역. 『탁상담화』.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McCormack, Joseph. *Brief: Make a Bigger Impact by Saying Less*. New York: Wiley, 2014; 홍선영 역. 『브리프』. 서울: 더난출판, 2015.

Miller, Calvin. *Preaching: the art of narrative exposi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2006; 박현신 역. 『설교: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9.

Murray, Joh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박문재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Murray, Iain H. *David Martin Lloyd-Jone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2013; 오현미 역. 『Martin Lloyd-Jones』. 서울: 복있는 사람, 2016.

Packer, J. I. *Among God's Giants: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Kingsway Publications, 1991; 박영호 역. 『청교도 사상』.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1.

Palmer, Parker J.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New Jersey: Jossey-Bass, 2011; 김찬호 역.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서울: 글항아리, 2012.

Peters, John. Martyn Lloyd-Jones, *Preacher*. Pymont: Paternoster, 1986; 서문강 역. 『마틴 로이드 존스 평전』. 서울: 지평서원, 2007.

Piper, John. *A Holy Ambition: To Preach Where Christ Has Not Been Named*. Minneapolis: Desiring God Foundation, 2011; 이선숙 역.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라』. 서울: 좋은 씨앗, 2013.

_____.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2; 전의우 역.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직업인이 아닙니다』. 서울: 좋은 씨앗, 2005.

Plummer, Robert. Merkle, Benjamin. *40 Questions About Interpreting the Bible*. Grand Rapids: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10; 김현광·조충현 역. 『성경을 여는 40가지 질문』. 서울: CLC, 2012.

Robinson, Haddon. Larson, Craig Brian. *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A Comprehensive Resource for Today's Communicators*. Grand Rapids: Zonder van, 2009; 이승진 역. 『성경적인 설교 준비와 전달』. 서울: 두란노, 2007.

Robinson, Haddon W. *Biblical Sermons: How Twelve Preachers Apply the Principles of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7; 박영호 역. 『강해설교』. 서울: CLC, 1999.

Sang Hyun, Lee. *The Philosoph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이용중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Sargent, Tony. *The Sacred Anointing: The Preaching of Dr. Martyn Lloyd-Jones*. Wheaton: Crossway Books, 1994; 황여얼 역.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서울: 한

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6.

Smith, James K. A.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Taking Derrida, Lyotard, and Foucault to Chu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박삼종·배성민 역.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서울: 살림, 2009.

Smith, Steven W. *Recapturing the Voice of God: Shaping Sermons Like Scripture*. Nashville: B&H Academic, 2015; 김대혁·임도균 역.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서울: 아가페북스, 2016.

Spurgeon, Charles Haddon. *The Power of the Cross of Christ*. Leeds: Emerald Books, 1995; 장택수 역. 『십자가의 능력』. 서울: 예수전도단, 2016.

Stanley, Andy. *Communicating for a Change: Seven Keys to Irresistible Communication*. Multnomah: Multnomah, 2006; 김창동 역. 『최고의 설교자를 만드는 설교 코칭』. 서울: 디모데, 2007.

Stott, John. *Between Two Worlds: The Challenge of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Eerdmans, 1982; 정성구 역. 『현대교회와 설교』. 서울: 생명의 샘, 1992.

Storms, C. Samuel. *The Signs of the Spirit*. Wheaton: Crossway, 2007; 장호준 역. 『(우리 세대를 위한)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서울: 복있는 사람, 2011.

Stott, John R. W. *I Believe in Preaching*. London: Hodder & Stoughton Religious Books, 1998; 원광연 역. 『설교론』.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Strauss, Mark L. *Four Views on Moving beyond the Bible to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2009; 윤석인 역.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Sweeney, Douglas Allen. Strachan, Owen. *On Beauty*. Chicago: Moody Publishers, 2010; 김찬양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Swihart, Phillip J. *How to live with your feeling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6; IVP 역.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울: IVP, 2000.

Thiselton, Anthony C.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09; 김동규 역. 『성경해석학 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Vanhoozer, Kevin J.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 Rapids: Zondervan, 2009; 김재영 역.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 가?』. 서울: IVP, 2003.

Wilson, Paul Scott.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주승중 역. 『네 페이지 설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3) 국외서적

Adams, Jay E. *Preaching with Purpose: The Urgent Task of Homile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6.

_____. *Sense Appeal in the Sermons of Charles Haddon Spurge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_____. *Preaching with Purpose*. Grand Rapids: Baker, 1982.

Akin, Daniel L. *Applying a Text-Driven Sermon in Text-driven Preaching*. TN: B&H Publishing Group, 2010.

Alexander, J. W. *Thoughts on Preaching*.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75.

Augustine. *De Doctrina Christiana*, ed. John E. Rotelle. trans. Edmund Hill. New York: New City Press, 1996.

Beeke, Joel. "the Lasting Power of Reformed Preaching" in *Feed My Sheep: A Passionate Plea for Preaching*. Don Kistler ed. Morgan: Soli Deo Gloria, 2002.

Brooks, Phillip. *The Joy of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9.

Brueggemann, W. *Finally Comes the Poet*. Minneapolis: Fortress, 1989.

Burke, Kenneth. *A Rhetoric of Mot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Cahill, Dennis M. *The Shape of Preaching: theory and practice in sermon design*. Grand Rapids: Baker Books, 2007.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McNeil, John.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_____.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8.

Carson, D. A. *Recent Developments in the Doctrine of Scripture in Hermene*

utics, Authority, and Cannon. Carson, D. A. and Woodbridge, John D. ed.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6.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Chapell, Bryan.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Grand Rapids: Zondervan, 1992.

Cohon, C. L. *God's Cares: The Psychology of Puritan Religious Exper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Danne, J. *Preaching with Confidence: A Theological Essay on the Power of the Pulpit.* Grand Rapids: Erdmans, 1980.

Deuel, D.C. *Expository Preaching from Old Testament Narrative in John MacArthur Jr.* ed. Rediscovering Expository Preaching. Dallas: Word, 1992.

Edwards, Jonathan. *The Religious Affections.* Carlisle: Banner of Truth, 1976.

_____. *The Religious Affections.* Carlisle: Banner of Truth, 1986.

Edwards, J. Kent. *Effective First-Person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Zondervan, 2005.

Eire, Carlos M. N. *War Against the Id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Fortin, Earnest L. *Augustine and the Hermeneutics of Love: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 in: Augustine Today.* Neuhaus, Richard John ed. Grand Rapids: Erdmans, 1993.

Ferring, N. *Johnathan Edwards's Moral Thought and Its British Context.* 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1981.

Frame, John M. *Cornelious VANTIL: An Analysis of His Thought.* New Jersey: P&R, 1995.

Gaffin, Richard B.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he Shorter Writings of Geerhardus Vs.* Phillipsburg: Presbyterian & Reformed, 1980.

Galli, Mark and Larson, Craig Brian. *Preaching That Connects: Using Journalistic Techniques to Add Impact.* Grand Rapids: Zondervan, 1994.

Goodwin, J. *The Divine Authority of the Scripture Asserted.* London, 1648.

Greidanus, Sidney.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8.

Hastings, James.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ume VII*.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 1981.

Heisler, Greg. *Spirit-Led Preaching*. Nashville: B&H Academic, 2007.

Horton, Michael. *A Better Wa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Cambridg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Johnson, Elliot E. *Expository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90.

Johnson, Dennis E. *Him We Proclaim: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s*. Philipsburg: P&R Publishing, 2009.

Kastner, P. Wilson. *Imagery for Preaching*. Minneapolis: Fortrees, 1989.

Keller, Timothy. *Preaching*. New York: Viking Books, 2015.

_____.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2.

Klein, William W., Blomberg, Craig L., Hubbard, Robert L.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allas: Word Publishing, 1993.

Larsen, David L. *The Company of the Preachers: A History of Biblical Preaching from the Old Testament to the Modern Era*.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98.

Lloyd-Jones, D. M.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1971.

_____. *The Love of God, Studies in 1 John, vol.4*. Nottingham: Crossway Books, 1994.

_____. *The Christian Soldier: An Exposition of Ephesians 6:10 to 20*.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77.

_____.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 ed. Hickman, Edwar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4.

_____. *Walking with God, Studies in John, vol.2*. Cambridge: Crossway Books, 1993.

_____. *What is Preaching? in Knowing the Times: Addresses Delivered on Various Occasions 1942-1977*.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9.

Osborne, Grant R.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6.

Packer, J. I.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Crossway Books, 1994.

Piper, John.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 A Plea to Pastors for Radical Ministry*. Nashville: B&H, 2002.

Philip, William. *the Practical Preacher*. London: Proclamation Trust Media, 2002.

Ricoeur, Paul.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Fort Worth: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6.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_____. *Homiletics and Hermeneutics i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Scott M. Gibson 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Robinson, Haddon W. and Robinson. *Torrey W. It's All in How You Tell It: Preaching First-Person Expository Message*.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Simonson, H. Jonathan Edwards: *Theologian of the Heart*. Grand Rapids: Eerdmans, 1974.

Stein, Robert H. *Playing by the Rules: A Basic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Stott, John. *Between Two Worlds The Challenge of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Eerdmans, 1982.

Troeger, Thomas H. *Imagining a Sermon, Abingdon Preacher's Library*. Nashville: Abingdon, 1990.

Turnbull, R.G. *Jonathan Edwards the Preacher*. Grand Rapids: Baker Books, 1958.

Tyerman, L. *The Life of The Reverend George Whitefield 2 vols*. Azle: Need of The Times Publishers, 1995.

Vines, Jerry and Shaddix, Jim. *Power in the Pulpit: How to Prepare and Deliver Expository Sermons*. Chicago: Moody, 1999.

Wainwright, W. J. *Reason and the Heart: A Prolegomenon to a Critique of Passional Reas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Whitefield, George. *Sermons, Vol. I*. New Ipswich: Pietan Publications, 1991.

Watson, Ian Pitt. *Preaching: A Kind of Folly*.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6.

Wells, David. *No Place for Truth*. Grand Rapids: Eerdmans, 1994.

2. 학술지, 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

1) 국내

강경림. “마르틴 루터의 반우상승배론.” 「신학지평」 제26집(2013년 12월호): 5-27.

강영안. “책임으로서의 윤리: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 「철학」 제81권(2004): 51-85.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34권(2015): 9-50.

_____. “장르적 성격이 살아나는 설교 방법론 제안: 비탄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제30권(2014): 42-88.

_____. “본문성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제42권(2017): 9-47.

_____. “설교자의 올바른 감정 사용에 대한 제언: 본문의 감정을 살리는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2015): 41-88.

_____. “원리화, 신학과 과정에서의 장르적 고려와 설교학적 함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통합.” 「성경과 신학」 제79권(2016): 191-228.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빌레몬서 1장 15절-16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제36권(2015): 89-117.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0.

김상구.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19권 봄호(2009): 122-147.

김성건. “목사 양산의 현실, 문제, 대안.” 「기독교사상」 제693호(2016): 12-21.

김순환. “한국교회 예배음악의 이해와 제언.” 「복음과 실천신학」 제9권(2005): 210-24

9.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설교신학 이해.” 「대학과 선교」 제 17호(2009): 39-67.

김지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라: 한국 교회의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성경과 신학」 제61권(2011): 301-34.

김지혁. “Jonathan Edwards의 마음의 감각과 그의 설교학적 미학.” 「복음과 실천신학」 제33권(2014): 42-73.

김창훈. “구속사적 설교(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의 평가.” 「복음과 실천신학」 제15권(2008): 138-39.

_____. “포스트모더니즘과 설교.” 「헤르메니아 투데이」 제56호 가을(2013): 149-174.

김현광. “로마서 7:14-25절과 그리스도인이 현재적 삶.” 「성경과 신학」 제61권(2012): 335-364.

류응렬. “설교자와 영성.” 「설교한국」 제2권 2호 가을(2010): 124-147.

_____. “최근의 설교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복음과 실천신학」 제11권(2006): 298-319.

류호영. “성경해석에 있어서 믿음과 성령 조명의 역할과 순수 이성 중심의 역사.” 「성경과 신학」 제 67권 (2013): 365-416.

문영식. “아우구스티누스와 기독교 수사학.” 「신학과 실천」 제44권(2015): 121-148.

서창원. “17세기 언약도들의 생활윤리.” 「신학지남」 제 83권3집(2004): 141-172.

서창원. “개혁교회의 경험적 설교의 능력.” 「진리의 깃발」 제57호(2014): 13-41.

선한용. “어거스틴의 성서해석.” 「신학과 세계」 제 18호(1989): 189-212.

박완철.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와 그의 ‘마음의 감각’ 신학.” 「신학정론」 제24권 1호 (2006): 211-245.

박태현. “조오지 헛필드의 설교관: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성경과 신학」 제72권(2014): 155-189.

_____. “최홍석교수의 성령론적 설교학-선포와 성령.” 「신학지남」 제82권 3호(2004): 137-175.

_____. “William Perkins의 설교론.” 「복음과 실천신학」 제32권(2014): 138-174.

박현신.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적용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315권(2013): 141-196.

_____. “삶을 변혁시키는 적용해석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설교한국」 제4호(2012): 101-133.

_____.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분석을 통한 적용 패러다임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25권(2013): 283-321.

_____. “포스트모던 청중을 위한 적용이 살아있는 강해적 교리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30권(2014): 171-228.

_____. “포스트 에브리딩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Timothy Keller 모델을 중심으로.” 「개혁논총」제29권(2014): 337-391.

_____. “John Calvin의 목회적 설교에 나타난 적용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제28권(2013): 95-140.

_____. “현대 미국 개혁주의 부흥에 대한 소고: 설교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통권 제325호(2015): 245-293.

박희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배우는 설교 교훈 33가지”, 『그말씀』 통권 307호. 2015년 1월호.

_____.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배우는 설교 교훈 33가지”, 『그말씀』 통권 308호. 2015년 2월호.

_____.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배우는 설교 교훈 33가지”, 『그말씀』 통권 309호. 2015년 3월호.

_____.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배우는 설교 교훈 33가지”, 『그말씀』 통권 310호. 2015년 4월호.

윤종훈. “존 칼빈의 구원 확신론에 관한 고찰.” 「성경과 신학」 제80권(2016): 159-186.

유지황. “마음의 신학: 성 어거스틴 『고백록』의 분석적 이해.” 「한국교회사 학회지」 제13호(2003): 251-286.

원종천. “청교도 율법적 경건의 역사적 배경.” 「역사신학논총」 제10권(2005): 87-108.

용환규. “Jonathan Edwards의 실천적 경건의 토대.” 「복음과 실천신학」 제31권(2014): 74-104.

이문균. “칼빈의 설교신학.” 「대학과 선교」 제 18집 (2010): 9-40.

이성호. “생명력있는 신자의 삶을 위한 헛필드의 투구.” 「한국개혁신학」 제32호(2011): 102-34.

이승구. “은혜의 방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신학」제80권(2016): 73-102.

이승진. “반전의 깨달음을 위한 설교 플랫폼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46호(2015): 117-145.

이태호. “예수와 사회정의: 마가복음 11:15-17.” 「성경과 신학」 제61권(2012): 241-273.

임원택. “한국교회와 청교도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28권(2013): 65-94.

정우홍. “동일화된 설교를 위한 한국인의 “정”의 정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 24권(2011년 가을호): 189-231.

정장복. “최초의 설교신학자 Augustine의 설교이론에 관한 고찰(2).” 「장신논단」 제16집(2000): 462-492.

조공호. “문화 유형과 정서의 차이: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학회」 6/2 (1997년12월): 1-43.

주정관. “기독교 대학 신앙공동체 실천 연구.” 「성경과 신학」 제61권(2012): 83-121.

최윤배.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ly Spirit and Christ as the Bearer of the Holy Spirit in John Calvin.” 「한국개혁신학」제21권(2017년 4월): 261-286.

백동조. “적용이 있는 효과적인 이야기식(Narrative) 설교 연구 = A Study of Effective Narrative Preaching Methodology With Applications.” 박사학위,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2.

윤용현.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구조 연구: 혼합적 구조.” 박사학위,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5.

이동근.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정서 연구: 한국인의 정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7.

2)국외

Kauffman, Timothy F. “Getting Sanctification Done: The Prime of Narrative in Tim Keller’s Exegetical Method.” The Trinity Riview(May-June, 2013): 1-12.

Erdt, T. “The Cavinist Psychology of the Heart and the ‘Sense’ of Jonathan E dwards.” Early American Litureture, Vol.13 No.2(Fall, 1978): 165-180.

3. 기타

1) 강의안

김덕현. “화행이론과 설교 II: 실천편.” 화행이론과 설교,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7년 1학기.

박현신. “청중을 변혁시키는 설교를 위한 성령의 다차원적 역할.” 적용과 목회적 강해 설교,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6년 2학기.

스티븐 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리더머 세미나, 수원: 더 사랑의 교회, 2017.

_____. “그리스도 중심의 강해설교의 기본원리.” 리더머 세미나 트레이너 과정, 용인: 소망교회, 2017.

Keller, Timothy. “READING 6.2 마음의 우상.” 리더머 세미나 인큐베이터 과정, 안산: 안산동산교회 수련원, 2016.(미간행)

_____. “READING 11.1 그리스도 중심의 강해설교의 기본원리.” 리더머 세미나 인큐베이터 과정, 안산: 안산동산교회 수련원, 2016(미간행)

_____. “READING 12.1 폐부에 와닿게 복음을 설교하기.” 리더머 세미나 인큐베이터 과정, 안산: 안산동산교회 수련원, 2016.(미간행)

_____. “Uninternational Preaching Models: Audio Lecture from the Ockenga Institute Pastor’s Forum: Preaching to the Hear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South Hamilton, MA, 2006).

_____. “Preaching the Gospel in a Post-Modern World.” Unpublished Classroom Lectures, Doctor of Ministry Progra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Orlando, Jan, 2002.

_____. “‘Women, Pagans, and Pharisees’, King’s Cross: The Gospel of Mark, Part 2: The Journey to the Cross—April 1, 2007” The Timothy Keller Sermon Archive, New York: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2013.

2) 인터넷

조성돈,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도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https://cemk.org/8270/>>. Accessed 9 October. 2018.

옥한흠, “눈물의 경고: 빌3:17~21”, <<https://www.youtube.com/watch?v=XxdOAA-HsH4>>. Accessed 12 August. 2018.

Edwards, Jonathan. “A Faithful 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http://www.ccel.org/e/edwards/works1.viii.html>>. Accessed 20 October. 2018.

Keller, Timothy. “Preaching to the Collective Heart”, <<http://www.timothykeller>

r.com/blog/2013/1/30/preaching-to-the-collective-heart>. Accessed 30 June. 2018.

_____. “Hell: Isn’t God of christianity an angry judge?”, <<https://www.youtube.com/watch?v=kMRCjvUXVEo>>. Accessed 5 May. 2018.

_____. “how the Gospel Changes our Heart”, <<https://vimeo.com/24464885>>. Accessed 25 June. 2018.

_____. “How to Talk About Sin in a Postmodern Age”, <<http://theosnlogos.tistory.com/455> [theos & logos]>. Accessed 26 June. 2018.

McGrath, Alister. “Mapping the Incarnation: How the Christian Narrative Makes Sense of our World”, <<https://www.abc.net.au/religion/mapping-the-incarnation-how-the-christian-narrative-makes-sense-/10214346>>. Accessed 28 November. 2018.

부록

팀 켈러 설교

본문: 막15:39-47

제목: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⁴⁸⁹⁾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42.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45.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며, 그 끝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로 모아진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백부장 그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와 함께 늘 머물렀던 사람은 바로 여인 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해드린 공회의 공회원 이었고, 제1당의 당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 이었습니다.

여인, 이방인, 바리새인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전혀 어울려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두리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들을 함께 하게끔 이 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계가 바로 우리가 원하고 변화해야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1.우리가 원하는 세상

40절에 나오는 여인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주 부활절에 볼 것 입니다.

당신이 만약 사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끝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의 절정의 사건을 보게 된다면 나는 당장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남

489) Timothy Keller, “‘Women, Pagans, and Pharisees’, King’s Cross: The Gospel of Mark, Part 2: The Journey to the Cross—April 1, 2007”, The Timothy Keller Sermon Archive(New York: Redeemer Presbyterian Church,2013).

자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주변에 없어요. 그들은 겁먹었고, 그들은 낙담에 빠졌고, 그들은 떠나가고 없었다.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의 이 세 가지 사건 모두를 그와 함께하며 유일하게 따르던 사람은 바로 여인 이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이 여인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곳을 보았습니다(47절).

다음 주에 우리는 16장 1절을 볼 것인데요, 여인은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처음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남자들은 사라지고, 여인들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문화와 법학 이 둘 다 모두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녀들의 증거는 절대 법정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녀들의 증언은 법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고대사회에의 모든 문화에 걸쳐져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여성들의 열등함과 신뢰할 수 없음을 동의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의 대부분 중대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점과 순간들 속에 여인들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녀들은 거의 복음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여인들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오직 여인들만 보고 알았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볼 것 입니다.). 사실상 수 십 년 동안 “내가 목격했습니다, 내가 그 죽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한 유일한 제자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회적 집단이 아닌 여인들을 역사적인 순간에 그의 목격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 입니까? 그것이 단지 “오, 얼마나 멋진가 하나님이 먼 미래를 내다 보셨거나 뭐 그런 것이었을까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의 이상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연설문에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내부 패거리” 이것은 저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연설문에서 그는 인간의 내면의 가장 중요하고 깊은 갈망은 바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패거리가 되고, 내부 패거리들을 발견하는 것(힘의 작은 순환), 그리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그것에 맞는 학교생활을 하고, 그것에 맞는 사람들을 알고, 그것에 맞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그 자리(내부)에 있게 되면, 그 상태로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로 올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세울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주변에서 춤을 출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이 주변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끔찍한 비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한 설교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태양계에서는 오직 한 가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든 행성들이 말하자면 합의를 본 것입니다. 오직 하나를 중심으로 세우고 나머지가 그 궤도를 도는 것으로요. 모든 나머지는 그 중심의 중심 속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모든 나머지가 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만이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설교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각각의 모든 행성들이 ‘싫어, 나는 이 우주의 중심이 될테야.’라고 이야기 하고, 만약 모든 각각의 행성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중력의 당기는 힘을 사용하여 나머지 모든 것이 그것을 주변으로 돌게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행성들이 ‘아니, 내가 중심이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고집하여 모든 것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태양계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재앙이 만들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고속도로 차 밀림 현상의 우주 버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만신창이 자동차, 우주의 만신창이 자동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나라들과 열국들이 서로를 향해 해 오던 일인 것입니다. 내부 패거리에 대한 인간의 욕망.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마음(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의 위대한 열망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는 또 다른 열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열정입니다.

수 백년 전의 전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4장 1절)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최근의 것을 본다면 마틴 루터킹 2세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날 이 나라가 일어나 ‘우리는 모두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분명한 것으로 믿는다’ 라는 국가적 신조의 진정한 뜻을 실천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날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지난날의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애 넘치는 식탁에서 함께 자리에 앉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네 명의 자녀가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성에 따라 판단 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정의를 위한 갈망입니다. 하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의는 내부에 있는 사람, 내부패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내부패거리의 경계선에 서게 만들지 않고, 그들이 가진 특권과 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반기며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반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내부에 있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기꺼이 마음을 열어 그들의 힘과 특권을 공유하는 것을 세계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갈망은(정의를 위한 갈망과 내부 패거리의 욕망) 서로 항상 전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작동해야 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회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 여인들의 무리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신뢰 하셔서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계에서 행하시고자하시는 비밀한 일들을 공유하시고 복음을 여인의 무리들과 나누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소외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끄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니가 원하는 세상을 나도 원한다.” 하

나눔께서도 역시 내부패거리의 욕망을 반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정의의 세계가 되기 위한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이 각사람 개인의 마음에 달렸다고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정확한 시스템들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저는 “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면 시스템도 괜찮아 질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무시하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는 바르게 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너무 어려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대표였던 레오니트 브레주네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1982년에 죽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그를 알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정권(그 시대의 정권)의 말미에 모스크바 전역에 널리 퍼져있는 (아주 냉소적인 농담)농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레주네프가 그를 방문한 엄마를 초대했습니다. 엄마가 오자 그는 “엄마 제가 많은 것을 잘 해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크기 좀 보세요. 아랫마을에 있는 차고에 타고 다니는 이 리무진들도 좀 보세요. 발트해 연안에도 집이 있구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내가 되게 많은 것을 해냈죠? 그렇지 않나요 엄마.” 그의 엄마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레오니트, 만약 공산주의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겠니?”

공산주의는 이미 시행되어졌고, 물건의 재분배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대한 무언가의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2.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바로 이 남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 했던 43절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듯이 그는 아주 부자였다는 것이 어찌되었든 이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울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아리마대사람 요셉은 니고데모의 친구인 것을 말해 줍니다. 니고데모도 1당 의회의 회원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을 믿는 종교적 지도자의 당원이기도 했고, 아주 교리적으로 정통파이며 아주 철저하고 까다롭게 윤리적이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이 아마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갔었고 예수님을 장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흥미로운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세요.(지금부터 니고데모와 요셉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이방인인 사람을 보세요. 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는 외부인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내부인입니다. 그들은 종교와 도덕성의 내부패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그녀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방면으로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해 졌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내부인이자 남성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입니다. 그들은 부유합니다. 그들은 내부패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내부패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부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구절에서 함께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반응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돌히”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전에는 가지지 않았던 용기가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히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로마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중한 반역죄인으로 죄를 찾기를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그를 신성 모독죄로 그의 죄를 찾았지만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그들이 비밀스럽게 말해오던 것들을 기꺼이 당당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을)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그들은 아주 위험해 졌습니다. 그들이 동조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로마 지배층과 유대 기득권층에게는 소름끼치게 위험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로 향하던 힘과 지위에 대한 자세가 변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힘과 돈 그리고 지위는 자신이 가진 것 뿐 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들을 입어, 이런 식당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을 알지. 그리고 이런 곳에 살아. 이게 나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려는 이유이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다 좋은 일에 쓰려고 그래”

하지만 이런 것들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좋은 일이 만약 힘과 돈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들은 이런 것들로 좋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만약 힘과 돈의 조금 또는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의 수단이 된다면 그들은 옳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이 하던 대로 자신들의 가진 힘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 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나요? 그들의 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이동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입니 다. 그들 이에게는 그들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 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 했습니다. 그들 은 더욱 관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점점 담대해져 갈 뿐만 아니라 점점 겸손해 졌습니 다. 그들은 점점 강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연약해 지고 있습니다. 옹? 이게 무슨 말 이냐구요? 4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다음 주에 조금 더 볼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장사되어질 때 그들이 했던 일은 그 시신을 씻기 고, 천으로 감싸서 높이고, 몰약과 유향을 바르는 것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해가 지게 되면 그들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몰약과 유향을 바르는 일을 끝내기 위해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여인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집트인들이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방부처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방부처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에 대한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헌신의 정점을 찍는 것입 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처리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들겨 맞아서 내장들이 빠져나와있는 시체, 그 런 죽은 시신을 내려놓는 것은 역겨워서 속이 뒤틀리는 일이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끔찍한 직업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항상 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항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것은 바로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남성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나 종들이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중요한 남성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내리고 분명히 씻 기고 그것을 감쌌습니 다. 그곳에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46-47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 일을 했고, 여인 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유대 시대에 만약 요셉이 그가 하던 방식대로 했던 사람이라면, 만약 요셉이 다른 남성들과 같은 사람 이었다면 저곳에 서있던 여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어이 거기 여인들, 와서 이것을 하시오. 이것은 내 일이 아니오. 거기 여인들, 와서 이것을 하시오.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놀랍게도 문화적으로 아주 적합하지 않는 행동 이었 습니 다. 그는 그의 품위에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위는 그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원 하는 정의의 대리인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내부패거리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가고 있었 습니 다. 무엇인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왜냐 구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들이 이 이유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짐작하기 어려운건 아닐 것 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요셉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기에)는 비밀스럽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의 힘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의 힘과 돈과 지위는 그를 말해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 뿐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 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오. 이건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이자, 종교적인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 입니까? 그것은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대가 이루어 놓은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대가 이루어놓은 성공은 어떤 것도 내 왕국으로 향하게 하지 못한다.”

참 기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니고데모와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창녀들이 다시 태어나야 하겠지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우리는 유아시절이나 청소년시절 같은 시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녀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다. 이방인도, 바리새인도 아니다. 너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모두 같은 기반에 있다. 너희 모두 같은 곳에 있다. 오직 철저한 은혜로 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스스로가 신이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게 만드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신이 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인간의 사악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세상을 영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법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은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신이 될까요? 도덕적인 규칙을 깨서 그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섹스, 약물, 폭력.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신이 될까요? 모든 도덕적인 규칙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축복 해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 가셔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 숙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자기가 중심이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되어 자기의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방인과 같은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구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선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창녀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다. 이방인도, 바리새인도 아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 밖에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 지라.” 제임스 에드워즈의 마가복음 주석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는 45절을 언급하며 아주 흥미로운 것을 집어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을 받으라)” 에드워즈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맨 처음 시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받으라”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 때 순식간에 합니다. “몸을 받는다(Take Jesus's body)”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지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믿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제조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몸을 받는다(Take his body)” 는 것의 의미는 그의 죽음을 움켜쥐는(grasp)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이 뜻에 대해 깊이깊이 생각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마음속에 저장 하십시오(Take it in) 빵처럼 소화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 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옮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힘보다 더욱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 보다 더욱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인종과 다른 신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수령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의 대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Pastoral Application of Timothy Keller's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 that moves Hearts'

Park, Doo Jean

Dept, Homiletics

The Graduate School of Pastoral Ministry

Chongshin University

Th.D in Preaching

Major Advisor: Dr. Kim, Dae Hyeok

Korean churches in the post-modern era is currently in crisis. Churches that have been growing and reviving in the past are now facing obstacles such as the growth of hostility towards the Christian faith and skepticism of the belief which is damaging the reputation of the church. For us who serve in pastoral ministry, the heart moving sermon of Tim Keller gives us a light of hope and comfort. Through his sermons, he was able to testify for Jesus and cause changes in the lives of many through moving them.

Ironically, the setting of his sermons took place in New York, the center of secularism. In 1989, Keller established and encouraged the growth of his church. Furthermore, his deeds led to the cause of CTC(city to city) network and is affecting the globe worldwide. The CTC network is an evangelical movement geared towards spreading the Good News from one city to another and now has over 13,000 city pioneers, 50 strings of network, and 421 churches. I, too have received my training from the CTC network and have begun establishing my own church.

What lies in the center of these evangelical movements? The answer is Keller's selfless service. There are elements in his sermons that definitely causes change in our lives as we live in the post-modern era. The major problem to post-modernism is emotionalism, and Keller is able to identify the emotions of the people in his many sermons. The issue arises whether to categorize his type of sermon into the reformed or traditional Christianity section. Moreover, another issue lies in the question of whether his sermons corresponding to our current pastoral ministry.

The following study will discuss these two issues through analyzing the heart moving, history redemptive sermon of Keller through observing his means of preaching and interpreting.

Historically, this type of sermon is similar to that of Augustine. Augustine was the analyst of love. He sought to move the hearts of the congregation through his sermons. Jonathan Edward supported sermons which influenced the base of faith knowing that when we think with our hearts open, we gain a sense of direction. George Whitefield made Christ's priceless grace as the base of his sermons and wanted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grace. This theme also links with Lloyd Jone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utting both rationalism and emotion in the sermon. Experiential sermon was a tradition of the reformed theology.

Can Keller's sermon be categorized as reformed traditional? According to John Frame's third view of Keller's sermon, he states that Keller's sermon is strongly Christ centered and follows the pattern of being easily applicable and moving. The root of this category of sermon can be found in the reformed experiential preaching column. Experiential sermon has the tendency to reach the hearts of those who listen and has been used to bring many to Christ. Like the examples above, one can conclude that heart moving sermon of Keller is indeed experiential.

Thus, we must evaluate if this category of sermon will be fitting to our pastoral ministry. Therefore, we must observe the limitations that the Keller's sermon has and evaluate them. From the evaluations we can conclude that

Keller's sermon is hard to follow in the pastoral ministry of today due to the cultural differences. Thus, we took what we understood from his sermons and put it into use in our own.

The preachers must be very careful to not forget the Holy Spirit's intervention during the sermons. In addition, there are times where preachers were afraid to express their hearts during the sermons. However, they should be reminded that sometimes the hearts those emotions are already expressed in the message itself and therefore don't need strong clarification. Moreover, we should be reminded to show the beauty of God through our physical ministry and also consider the situation of the congregation in order to gear the message that is helpful to them. We also have pondered how we can utilize the history redemptive sermons into our pastoral ministry.

As a preacher,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guide lines below. Firstly, one must center himself on the spiritual realm, find the key elements in the passage that God is intending to us, and to also apply the passage onto yourself as a minister.

Secondly, this study suggest the preaching practice of the pastors in the post-modern era. Experiential sermon can be truly experience if the one is able show that his ideology has been transformed by the scriptures. Furthermore, one must also identify the intellectual, emotional, and will-driving motives in the passage and use to move the hearts of those listen. Instead of not using these elements, one must consider the textual pathos in order to create a heart moving sermon. Moreover, since the passage is in the realm of being history redemptive, one must again identify the speech act theory factor and carry on the voice of God in his or her sermon. Furthermore, We emphasized the usage of imagery and imagination in sermons to engage the people to hunger for God.

Thirdly, This Study say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audience. Ministers in the field must prepare their sermons without excluding the crucial nonverbal communication which can lead to capturing the hearts of those who listen. If the pastor fails to capture the heart of the listeners then one eventually fails to relate with the audience. In addition, we need to consider the phrasing of

our the heart resounding sermons of our country, but most importantly, we need to be able to give a path to change. Keller points out that in the current mission field, there are many anti-christians, skeptics about the churches, and stumbling of the absolute faith that is progressively growing. This study Further states that ministers should preach sermons which could change the people's mind on faith, change their attitude, and bring about a movement of transformation in the lives of people. fourthly, the above are applied to the fifth stages of the sermon process and suggested that the pastors apply it.

By taking a comprehensive stance, we must not miss the crucial point that Keller's historical redemptive sermons lie on the border of reformed style within the traditional style and therefore makes it a sermon to not miss. Again, we realized that the application of Keller's sermon style must be considered with the culture of today's society.

Therefore, we consider the possibilities of how we could apply it to our pastoral ministry of today. Speaking in terms of weathers, the atmosphere of the churches in Korea has folded into winter in terms of them being very stagnant. I, too, sometimes worry about whether churches in Korea can arise again. However, there is light that can be found in the midst of darkness. The true owner of the church is God, and until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He will never stop his ministry.

Our hope is not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but on the everlasting Word. Despite the crisis that the current Korean churches are facing, we must continue to spread the seed of Good News. At this kind of situation, Keller's redemptive sermons that moves hearts are appropriate to be applied. For those who crave for God and those who are without God should experience Christ centered sermons.

I hope to through this study may be a small fire that lights many souls to Christ. I pray that this small fire may become a big fire one day to light many souls. Thus, I conclude this essay by giving glory to the One who gave it all.